1080 누르고 福 지으세요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
060-700-1080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우리이웃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인등을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찬덕홈페이지 : www.chando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8월 17일(음력 7월 13일) 수요일 (주간) 제 539 호

폐사지 보존 법안 9월국회 상정추진

조계종-한나라당

무관심, 부적절한 개발속 보존 필요성 공감
대상 확대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쪽으로
'1폐사지 1지킴이운동' 발족 후 관심 기대

무관심 속에 방치돼온 폐사지 보존을 위해 불교계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측과 함께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폐사지 보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사지 보존은 대표적인 불교계 현안 가운데 하나다. 전국 2천~3천개 폐사지 중에 사적(史蹟)이나 시·도기념물로 지정된 100여 곳만 법의 보호를 받고, 절대 다수가 훼손 위험에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정비하려는 폐사지도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자체 독단으로 사지정비 계획을 추진해 불교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서산 보원사지, <직지>를 기념해 사찰이 복원됐지만 스님 하나 주석하지 않는 청주 흥덕사 등에서 보듯 지자체의 관심은 관광자원화에 치우쳐 폐사지를 불교성지로 인식하는 불교계의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계종과 박근혜 대표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무관심과 부적절한 개발 속에 폐사지가 받는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과 박 대표측은 체계적인 폐사지 보존·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제정비·예산확보방안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폐사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법제정비가 거론되는 까닭은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사찰보존법 등 사찰과 관련된 법안들 가운데 폐사지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사찰보존법은 사찰 기능이 유지되는 사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사지와 관계가 없고,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되지 않은 대다수 폐사지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정확대를 통해 보호대상을 늘릴 수도 있지만, 지정확대에도 한계가 있어 2천~3천개 폐사지 보호에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된다.

이 같은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조계종과 박 대표측은 특별법 제정과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등을 검토했으나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폐사지 보존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또한 폐사지 복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폐사지 보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절터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스님이 주석하면서 관리하는 방법"이라며 "폐사지 밖에 사찰을 지어 폐사지를 관리하도록 하면, 폐사지 훼손을 막으면서 폐사지를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사지 보존을 위한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불교계가 여론을 수렴해서 보존·관리에 대한 원칙을 세우면, 이에 맞춰 법안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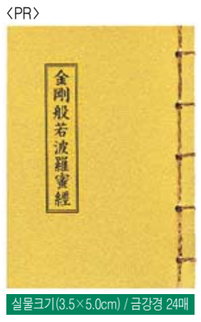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는 폐사지 보존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종교적 편향성이나 위헌 논란 등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전사지를 6년에 걸쳐 발굴해 선종 본산으로서의 가치를 밝혀내고, 주변 땅 3천평을 매입해 신흥사에 기증하는 등 진전사 복원에 공헌한 정영호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장은 "섣부른 복원은 사적지만 파괴한다"며 "우후죽순처럼 복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불교계와 정치권이 보이고 있는 폐사지 보존에 대한 관심은 문화복지연대(상임대표 김종엽)가 준비하고 있는 '1폐사지 1지킴이운동(I love lost temple)'이 발족하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10월 본격 발족할 '1폐사지 1지킴이운동'은 사찰이나 기관, 개인이 주체가 돼 정기적으로 정기답사·모니터링·보호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지현 문화복지연대 공동대표는 "폐사지 보존을 위해서는 폐사지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절실하다고 판단, 지킴이운동을 구상하게 됐다"며 "이미 여러 명망가와 기업이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을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박익순 기자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깨달음으로 가는길-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가 8월 6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계율수행 대법회는 10월 9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6일 입제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치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배우고 실천할때 깨달음 얻어"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1500여 사부대중 운집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공동 주최하는 '깨달음으로 가는길-동화사 계율 수행대법회'가 8월 6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화사 통일기원대전 안팎을 가득 메운 이날 입제식에서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신라 천년 우리 민족의 불교 이념이 그대로 살아 넘치는 동화사가 계율의 근본정신을 살리는 길을 열기 위해 계율수행대법회를 봉행하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은 "계율은 수행을 통해 견성 성불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율을 잘 지키고 내 것으로 만들 때만이 비로소 모든 수행이 보다 평탄하게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계율수행대법회를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많은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날 계율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계율수행대법회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서 계율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2군 사령부 권영기 사령관, 강희락 대구지방경찰청장, 대구 보건대 남성희 학장도 참석, 축사를 통해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의 성공적인 회향을 기원했다.

첫 법회의 법주로 나선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은 "계와 율은 우리가 부처님처럼 사는 방법을 일러주는 길잡이"라고 강조하고 "계와 율의 근본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때만이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계율수행대법회는 종진 마성 혜능 지운 법혜 철우 각묵 경성 지관 스님 등을 법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열리며 10월 9일 보살계수계대법회를 끝으로 회향한다.

관련기사 9면, 법문 24·25면

글=배지선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만해대상 시상식 후 나란히 손을 맞잡은 수상자들. 왼쪽부터 쵸페 팔조 체링(달라이 라마를 대신해 수상), 소잉카 시인, 지관 스님, 함세웅 신부.

"인류행복 기원 메시지 널리 퍼지길"

'2005 만해축전' 열려

만해 스님(1879~1944)의 시혼과 애국정신을 기리는 '2005 만해축전'이 인제군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축사를 통해 "광복 60주년을 맞는 이번 축전이야말로 만해 스님의 나라정신을 기리는 의미 있는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만해대상 시상식에서는 달라이 라마를 대신해 쵸페 팔조 체링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대표가 대상을, 문학부문에는 소잉카 시인이, 실천부문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부가, 학술부문에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 스님이 수상했다.

이날 저녁 7시부터 북한 금강산 호텔에서 세계평화시인대회이 개최됐으며, 1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는 세계 평화의 시를 묶은 시선집 <평화, 그것은> 발간 기념 만찬이 펼쳐졌다. 다음주 상세보도

글·사진/인제 만해마을=김주일 기자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북방불교의 대승계에 대하여'
법주 : 혜능 스님(8월 20일 오후 3시)

'할'



그림·조태호

종진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법왕사 제15회
경율론 삼장 백고좌대법회
법왕사에서는 제15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대승경전의 백미인 화엄경과 법화경, 제목을 주제로 8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1백분의 고승 대덕이 법문하는 법석입니다. 인연있는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주지 실상 합장
증명 : 무진장(전 포교원장) 각성(해인사 회주)
지성(동화사 주지) 정무(법왕사 회주)
일시 : 2005년 8월 20일 ~ 11월 30일 (100일간)
장소 : 법왕사 큰법당
기도 : 매일 오전 9시 108배 3회
법문 : 매일 오전 11시 30분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후원 : 불교신문, 현대불교, 불교TV, 대구불교방송, 불교연합합창단
※ 스님 사부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법랍 40년 이상된 스님 가운데서 법사로 모시고 싶은 스님 추천 바랍니다.
※ 동참하실 신행단체는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116번지
☎ 053-766-3747·9088
www.bubwangsa.or.kr
인터넷주소창에 "법왕사" 입력





수능 앞으로 100일 '모정불심'

수능 100일을 앞두고 조계사 능인선원 도선사 봉선사 흥국사 월정사 등 전국의 사찰은 8월 16일 일제히 대학입시백일기도에 들어갔다. 또 서울 봉은사는 입시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입시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자세'라는 주제로 8월 21일과 9월 11일 입시특강을 개최한다. 사진은 8월 12일 서울 도선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격발원기도를 올리는 불자들. 도선사=고영배 기자

"마이산 천지탑 관리자는 탑사 주지"

대법원 진안군 패소 판결

문화재 관리권을 놓고 벌어진 사찰과 지자체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2부(대법관 배기원 · 유지담 · 이강국)는 진안군이 상고한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혜명) 석탑 '관리자 교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석탑은 탑사 주지가 관리하는 게 맞다"며 7월 29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마이산의 명물' 천지탑 관리자가 누구냐를 놓고 벌어졌던 관리자 교체 소송은 탑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천지탑 분쟁'은 탑사와 진안군이 문화재관람료 배분약정을 체결한 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천지탑 중 일부가 군유지에 세워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탑사와 진안군은 문화재관람료를 7대3으로 배분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문제는 진안군이 배분비율을 5대5로 변경하자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탑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군유지 임대료로 문화재관람료를 대신하라는 중재안을 받아냈고 이에 불복한 진안군은 천지탑 관리인을 군청으로 바꾸는 '마이산탑 관리인 변경안'을 2000년 6월 전라북도에 제출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이를 받아들이자 탑사는 이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고법이 이를 받아들이자 진안군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탑사는 이번 소송과 천지탑 소유자가 탑사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연이어 승리함으로써 마이산 천지탑 관리권과 소유권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변론을 맡은 이용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사찰 소유 문화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요구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탑사 주지 혜명 스님은 "석탑이 사찰 경내에 위치해 있는 이상 해당 사찰이 관리하고 유지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전통이며 관례이다. 이번 경험을 교훈삼아 탑사를 여법하게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관계자는 "탑사 문화재 관람료 배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태를 파악한 후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신 기자

"日 오판·망동 하지말라"
법장 스님, 광복절 담화

광복 6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8월 9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법장 스님은 담화문에서 "일본은 식민정책을 미화하는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하고 군대의 외국파견을 합법화하려는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 종단과 2천만 불자들은 이러한 일본의 오판과 망동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또 "국민 각 개인이 갖는 정신적 고민과 갈등, 공허감이 이 해소될 수 있는 문화, 복지의 전달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10 · 27 법난 진상규명 나섰다

조계종 대책위 구성…위원장에 법타 스님

조계종이 10 · 27 법난 진상규명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조계종은 '10 · 27 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이하 법난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8월 11일 밝혔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위원장 법타 스님(은해사 주지)을 비롯해 군종교구장 일면, 총무원 기획실장 법안, 사회부장 정념,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식 발족 후 6개월간 운영되는 법난대책위는 앞으로 △법난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불교계 명예회복 및 피해자 배상 추진 △법난에 대한 종단의 공식적인 입장 정리 등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스님은 "법난대책위는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은 물론 조사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교중앙박물관 공사비 과다책정 논란

"사실 확인위해 법적 조치"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이 "원가 계산 과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기관 및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8월 12일 밝혔다.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종도와 국민 여러분께 마음깊이 사과드린다. 종단 집행부에서는 어제 발표된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결과에 따른 후속 대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임을 재차 약속드린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조사대책위원회(위원장 장주, 이하 조사대책위)는 11일 활동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김희욱 조사위원이 총무원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 업체 등의 자문을 받아 중앙박물관 내부공사 원가를 산정한 결과 32억 8000여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출됐다"며 "최초원가 69억 8000여만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무원측은 "근거가 돼야 할 설계서와 도면의 수준이 부실해 원가 계산을 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몇몇 감정기관으로부터 들었다며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추정치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공식성을 갖는 원가 산정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조사대책위는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추진실무팀 구성을 총무원에 제안했다. 조사대책위는 이와 함께 △종무행정시스템 개선 △건축불사 관련 제도정비 △건축공사 관련 매뉴얼 제작 △총무원의 종무집행에 대한 책임의식 표현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8월11일 논평을 발표 △총무원장 스님은 전 종도들에게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분명하게 밝히고 △중앙종회 차원에서 건축불사의 제도적인 관리 장치를 마련하며 △사부대중과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불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남동우 · 유철주 기자

불자 정부기관장 초청법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현직 장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권한대행 김의정, 이하 중신회)는 8월 29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불자 정부기관장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과 오영교 행자부 장관, 추병직 건교부 장관, 이재용 환경부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김병준 청와대 불자회장, 이용희 국회 정각회장, 성윤갑 관세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신회 손안식 상임부회장은 "각자 위치에서 정진하고 있는 기관장님들을 초청해 상호 격려하기 위해 법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영축총림 방장 추대 관련
조계종 수좌회 입장 발표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함주 현산 인각)가 영축총림 방장추대가 여법하게 이뤄지기를 염원하는 입장을 밝혔다.

수좌회는 8월 10일 성명을 통해 "작금의 현실은 방장의 위상과 막중한 책무와는 거리가 먼 입장에서 '본사 주지 추천권 행사' 등의 정치 권력적인 면만 염두에 두고 방장을 추대하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는 불조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자, 사부대중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좌회는 △총림법에 명시된 20안거 이상 성만이라는 최소한의 형식요건이라도 충족되는 분을 추천해 줄 것 △안거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총림법에 저촉된 인물이 추천되지 않을 것 △종헌 · 종법에 저촉되는 분을 방장으로 추천할 경우 중앙종회는 권위와 고유권한에 흠결이 나지 않도록 방장추대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종헌종법특위 소위원회 발족

선거제도 개선안 등 27개 법안 검토

조계종 선거제도 등 종헌종법 제 · 개정안을 검토할 소위원회가 발족됐다.

조계종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중원)는 8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중원, 정휴, 학담, 지홍, 법경, 보경, 본각 스님 등 총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이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법등 스님은 사견임을 전제하며 총무원장 및 교구본사 주지 선거와 관련 "직선제는 문제점이 많다. 선거인단 축소 또는 확대와는 관계없이 합의 추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北 사찰 복원 예정대로"

현대그룹 내 경영권 분쟁으로 낙마위기에 처한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과 현대아산은 "현재 추진중인 금강산 사찰 복원 사업은 흔들림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아산의 관계자는 8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부회장의 행보와는 별개로 금강산 관광과 성지 복원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도 "큰 틀에서의 대북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동국대 이사 후보
성파·현운 스님 복수추천

조계종 종립학교관위원회는 8월 10일 오후 2시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60차 회의를 열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의 건을 상정하고, 오는 11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동국대 상임이사 영배 스님의 후임으로 前 통도사 주지 성파,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각각 추천했다.

이날 추천된 성파 현문 스님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동국대 이사회에서 1명을 신임 이사로 선출된다. 조용수 기자

마곡사 중앙종회의원
원경 스님 선출



공주 마곡사 중앙종회의원에 원경 스님(천안 성불사 주지)이 8월8일 당선됐다.

원경 스님은 1988년 사미계, 91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마곡사 공주포교당 주지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제12회 「선우논강」 법석에 초대합니다.

"大念處經의 心念處 · 法念處 修行과 話頭參究"

부처님 께서"자주 모여서 법에 대해 토론하라. 그러면 정법이 영원히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우논강 은 문중과 본사, 비구, 비구니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불제자의 자세로 한국불교의 수행, 교학, 포교 등 교단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과 수행을 탁마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람직한 승가상 정립과 불교의 대사회활동 확대를 위해 각자의 터전에서 고민하는 출가자들이 매월 첫째 월요일 정기 공부모임과 년 2회 대중논강을 개최하오니 뜻있는 스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아울러 제 12 회 선우논강 법석에 여러 대중스님들을 초대합니다.

■일 시 : 불기 2549(2005)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 오후 9시
■장 소 : 지리산 실상사
■주 제 : "대념처경과 간화선"
- 대념처경의 심 · 법념처 수행과 화두참구
■발 제 : 재연스님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일 정 : 오후 2시 접수, 오후 3시 논강, 오후 6시 공양, 오후 7시 대중토론
■대 상 : 조계종 비구, 비구니
■준 비 물 : 대가사. 참가비 3만원
■문 의 : 진오스님 011-667-6092 / 실상사 063)636-3031

◆ 선우도량 후원계좌 : 우체국 704296-02-018502 (예금주 : 장영기)



대한불교조계종 선우도량 공동대표 철오 · 현각 합장

"경천사탑 평화의 상징 되길"

10여년 만에 본모습…9일 새 박물관서 낙성식

10여년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경천사10층석탑(국보 제86호)의 자태는 웅장하고도 아름다웠다.

국보 제86호 경천사10층석탑 복원 완료를 기념하는 낙성식이 8월 9일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거리'에서 열렸다.

이날 낙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현고 스님과 문화부장 탁연 스님을 비롯해 정동채 문화부장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 유홍준 문화재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경천사10층석탑의 복원을 축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현고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보존처리와 복원에 힘쓴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탑이 온전한 모습을 되찾으려면 탑에 담겨 있는 정신과 문화까지도 감안된 유물보존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낙성식에는 경천사10층석탑을 향후 경천사지에 다시 옮겨놓을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표출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정동채 문광부 장관이 먼저 "경천사지에 복제탑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미경 의원이 "그보다는 생명과 평화를 상징하는 탑이 될 수 있도록 경천사지에 옮겨 세우자"고 말했고, 법장 스님은 축사에서 "문화재는 제 위치에 있을 때 본래가치를 갖는다"며 "경천사지에 다시 세워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익순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동관 '역사의 거리'에 세워진 국보 제86호 경천사10층석탑. 사진=고영배 기자

경천사10층석탑은

고려말 1348년 경기도 개풍군 부소산 경천사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대리석 탑으로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의 목조건축 및 불화도상 연구에 소중한 자료다. 1907년 일본의 궁내대신 다나카 미스야키에 의해 일본으로 밀반출 됐다 다시 반환돼 경복궁 뜰에 세워졌으나 훼손이 심각해 해체 복원되는 등 기구한 운명을 겪어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상징하는 탑으로 간주되고 있다.

황룡사9층목탑 복원 단서 발견

개성 불일사 금동9층탑, 목탑 양식 간직

개성 불일사5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9층탑(사진)이 목탑형식인 것으로 확인돼 황룡사9층목탑 복원에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1991년 북한에서 발간된 개성고려박물관 도록 영문판에 수록된 금동9층탑 사진을 8월 7일 공개했다.

이 금동탑은 높이 37cm, 기단부 폭 13.8cm로 옥신과 옥개석으로 구성된 단아한 모양을 하고 있다. 기단 4면에 8개 문과 창문이 나 있으며, 처마마다 기와를 아름답게 조각한 목탑 양식을 갖추고 있다. 불일사5층석탑은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을 공개한 황 소장은 "9층목탑에 관한 자료가 미진한 상황에서 금동9층탑이 황룡사9층탑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의 학자가 공동으로 문화재를 연구하는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 황룡사 복원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정작 황룡사의 중심인 목탑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복원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박익순 기자



SBS에 수경사 반론보도 명령

언론중재委

지난 6월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수경사의 두 얼굴'과 관련해 수경사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한 반론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4중재부(부장 신명중)는 8월 5일 SBS에 수경사가 요구한 "SBS의 방송내용은 상당 부분 과장 · 왜곡된 부분이 있고, 자신들은 아이들을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보살펴왔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방송할 것을 명령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또 "중재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말미에 방송하되, 제목을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내용을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익석)는 최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수경사 그 후, 아동학대와 사라진 아이들의 진실은' 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불청은 8월 6일 "SBS가 수경사 관련 7월30일자 후속보도에서 객관적 진상규명을 주장한 수경사불교대책위원회의 성명서(7월 13일자) 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 보도 했다"고 주장하고 SBS의 공정보도를 거듭 촉구했다. 강지연 · 유철주 기자

北 인권문제 불교서 해법 찾자

불교평화 생명포럼 27일 보광사서 개최

불교적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 · 효림)와 불교포럼(공동대표 김연규)은 8월 27일 파주 보광사에서 '불교인권정신에 남북 상생의 길이 있다'를 주제로 '제2회 불교평화생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원이 '북한인권 문제 제기의 배경' △연변대 민족연구원 전신자 연구원이 '방문자가 본 북한인권 실상에 대하여' △동국대 조준호 강사는 '불교사상 속의 생명권과 인권의 기초' △서울대 변희욱 강사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탈북자가 직접 참가해 '북녘 동포들의 삶과 희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02)725-4277 유철주 기자

달라이 라마 방한 촉구

이계진 의원 '정부 中 눈치보기 외교' 비판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이 8월 11일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제작 박용호)'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교통상부의 무성의한 '중국 눈치보기'로 만해대상 수상을 위한 달라이라마 한국방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 의원은 "공개 질문에서도 외교통상부에 달라이라마 방한 시 중국 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외교통상부는 방문을 허용한 나라들 가운데 중국 측과 외교 마찰을 빚은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는 대답만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교통상부의 이 같은 답변은 향후 공식적인 비자신청이 있을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입국허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달라이라마 방한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재가연대 역사인물기행

10월 달라이라마 친견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는 오는 10월 11~18일 '제1회 참여불교역사인물기행'을 실시한다.

재가연대는 인도불교부흥의 메카로 알려진 나그푸르를 방문해 달라이라마를 친견하며, 인도 최대의 석굴 아잔타, 엘로라 석굴 등도 찾을 예정이다. (02)2278-3417 유철주 기자

"지역사회 선도하는 교구로"

인터뷰 금산사 12대 주지 원행 스님



"상식이 통하고 무리없는 교구운영으로 화합교단을 이루어 불교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교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금산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평상 스님)는 지난 8월 8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제12대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나온 원행 스님(무주 안국사 주지)을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원행 스님은 "교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그동안 내려온 전통을 바탕으로 승풍진작과 포교, 교육, 복지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강원, 선방은 물론 도심 곳곳에 포교당, 복지시설 등을 개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원만한 성품으로 불교계와 지역사회로부터 두루 신망이 두터운 스님은 "교구와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서라면 문중을 떠나 문호를 개방해 미래를 선도하는 교구가 되도록 하겠다"며 '불교인재 등용'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또 "국가행정이 지방자치제로 전환되는 이즈음 불교도 교구자치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승적, 교육, 감찰, 호계 등의 업무는 중앙에서 관장하고, 인사, 행정, 예산은 교구에서 맡는 절충식 종단운영 시스템"을 제안했다.

원행 스님은 1973년 법주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강원(83년), 중앙승가대를 졸업(87년) 했으며 조계종 중앙종회 11.12.13대 의원,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무주불교대학장과 나눔의 집 상임이사 겸 원장을 맡고 있다.

평소 불교의 대사회 활동이 미약함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원행 스님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지구촌 공생회' 등 불교사회 및 봉사단체에 적극 참여해 '깨달음의 사회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준엽 기자

백중맞이 사찰행사 풍성

49재 · 영산재 · 경로잔치 등 열려

불교 4대명절 중 하나인 우란분절(음력 7월 15일)을 맞아 전국 사암에서는 49일 천도재가 열린다.

서울 조계사는 우란분절 하루 뒤인 8월 20일 지난 4월 화재 피해를 입은 낙산사를 찾아 야생조류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1500여명의 신도들이 참가하는 이번 방생에서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의 협조를 받아 날짐승 30여마리를 풀어주고 생명해방을 발원한다. (02)732-2115

49일동안 매주 한차례 법회를 열어온 서울 봉은사는 '생명해방의 축제'라는 타이틀로 8월 19일 제3차 참살림수행결사 일환으로 진행해온 사경 · 하안거 회향, 영산재, 아름다운가게 봉은사점 개원 1주년 기념식 등을 개최한다. (02)511-6070

수원포교당은 8월 19일 영가천도재와 백중기도 회향 외에도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수원시의 협찬으로 열리는 경로잔치에서는 불자가수와 가릉빈가 합창단 등의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031)245-9670

서울 불광사는 효자, 효부를 선발해 표창하고 효의 의미를 새긴다. (02)413-6060 박봉영 기자

해방 60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반민족 친일파 재산보호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며

1. 서언

불교는 지난 1500년동안 우리 민족과 영욕을 함께 하면서, 평화시에는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때에는 민족을 단결시키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 왔다. 몽고군의 침입시기 민족의 힘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팔만대장경불사.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침입으로부터 분연히 떨쳐 일어나 칼과 창을 손에 잡은 승군운동, 3.1운동을 주도한 만해스님, 용성스님 등 역사적 시련을 통하여 한국불교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굳건히 확립하였다.

여기에 의거하여 우리는 일제의 잔인한 압박으로부터 민족이 해방된지 60주년을 맞이하여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한 친일망령의 청산을 위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바이다.

2. 친일파 후손의 재산찾기와 우리의 현실

지난 97년 을사오적의 하나이며 , 대표적인 반민족 친일행위자인 이완용의 후손이 시작한 '친일파 후손의 재산찾기'는 보수적인 법원이 이완용후손에게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에게 경악과 실망감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송병준, 이재극, 이해창등 을사오적 및 한일합방의 공로자로 일본정부로부터 은사금과 작위를 수여받은 친일파들의 재산반환소송이 줄을 이어 제기되고, 연이어 승소함으로써 '3.1운동의 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이 심히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헌법정신을 수호해야할 법원이 동족을 팔아먹은 댓가로 축적한 재산일지라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고, 친일파의 재산찾기를 방지하고자 최용규,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반민족 친일 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오히려 위헌시비에 휘말려 있는 우리의 현실은 항일의 역사위에 수립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의심케 한다.

3. 봉선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게 된 계기

친일파들의 준동(蠢動)은 이제 산사(山寺)에도 미쳐,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당시 공로자로 선정되어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은사금을 수여받은 이해창의 후손이 봉선사(奉先寺)의 말사(末寺)인 수락산 내원암(內院庵)의 토지 5만평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함으로써 천년사찰 내원암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

봉선사는 조선시대이래 우리나라의 교학중추를 담당하는 교종본산(敎宗本山)이고,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으로 말미암아 꺼져가는 불교를 위해 순교한 허응당 보우스님과 함께 불교중흥을 이룩한 사찰이며, 일제시대를 통하여 운암 김성숙, 운허큰스님과 같은 항일운동가를 배출한 사찰이기도 하다. 특히 운허큰스님은 봉선사의 전 조실로서 젊음을 '대한광복단'의 일원으로 항일운동에 바치셨으며, 해방후에는 불경의 한글화를 주도하여 '동국역경원'을 설립,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신 대강백이시다.

수행집단인 승가가 사회현실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찾기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국가 기능이 친일파 청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봉선사는 운허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민족정기를 되살리고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바이다.

4. 결어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 ·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헌법을 탄생시킨 권력의 주체인 헌법제정권력의 선언으로서 국민의 근본적 결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는 기존의 보수적 견해를 버리고, 헌법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고, '위헌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민족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를 촉구한다. 나아가 이 나라의 1000만 불자들은 단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호국(護國)의 불사(佛事)에 동참, 우리민족의 앞날에 부처님의 정토(淨土)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불기(佛紀) 2549(2005)년 8월 8일

대한불교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철안 합장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최근들어 오페라, 클래식, 연극 등 거의 모든 장르에서 대형화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불교문화계는 대형 공연은 고사하고 이렇다 하게 볼만한 공연과 전시 등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우선 대중들의 관심을 끌 다양한 창작물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좋은 창작품들을 양산해 내려면 무엇보다 탄탄한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불교계에는 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일천하다. 문화 포교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문화 마당은 언제나 썰렁한 현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자본 · 전문인력 부족속 좁아지는 문화마당

● 글 싣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방담



요즘 일반 문화계에는 대형 창작 기획작품에 관객들이 몰리는 추세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문화포교를 활성화 하기위해선 작품구성이 탄탄한 대형 공연들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1999년 공연된 오페레타 '아미타불'. 현대불교 자료사진

차세대 유망주 발굴, 예술 장학금 지원부터 시작을
교계 언론사 예술단 운영 · 후원회 활성화 등이 대안
공모전 · 단체 기획전 많아야 포교효과 … 고급화도 관건

'아미타불'에 이어 2000년 한국적 창작 오페라인 '직지'가 박범훈 교수에 의해 탄생했다. 지난해에는 이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영화 '동승'을 오페라로 각색한 '동승'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고 이들 공연들이 모두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객석을 메울 정도의 호평은 받았다. 그래서 불교문화계가 침체돼 있는 현실에서 대형 창작물의 부재가 더욱 아쉽다.

과거 대형 창작물들을 많이 발표했던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시대가 변해 문화는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될만큼 대중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며 "그래서 문화계도 내실있고 볼거리 풍부한 매머드급 대형 공연만이 살아남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총장은 "불교계도 문화 포교에 관심있는 몇 개의 사찰이 연계해 내실있는 창작물들을 만들어 낸다면 공연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조언했다.

▥ 대중적인 대형 창작물이 없다

일반 문화계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오페라의 유령'을 비롯해 '아이다' '투란도트' 등 대형 창작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퇴조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공연 티켓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눈앞의 이익과 단맛에만 빠져 특정 장르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관객들은 작품의 탄탄한 구성력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작품들을 감상하기 위해 공연장을 앞다퉈 찾고 있다. 차별화된 고급 문화상품들은 불황에도 대중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례다.

그렇다면 불교계에는 이런 대형 창작물들이 없었을까. 대형 공연은 주로 출연자와 무대 규모가 큰 오페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불교를 소재로 한 최초의 오페라는 1971년 장일남 한양대 교수가 만든 '원효'다 국내 최초의 창작 오페라로서 김자경 오페라단(71년)과 국립오페라단(83년), 글로리아오페라단(95년) 등에 의해 세차례나 공연될 정도의 대형 창작물이었다. 1999년 정부기 중앙대 교수의 오페레타 '아미타불'에 이어 2000년 한국적 창작 오페라인 '직지'가 박범훈 교수에 의해 탄생했다. 지난해에는 이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영화 '동승'을 오페라로 각색한 '동승'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고 이들 공연들이 모두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객석을 메울 정도의 호평은 받았다. 그래서 불교문화계가 침체돼 있는 현실에서 대형 창작물의 부재가 더욱 아쉽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음악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불교 미술계 역시 주로 개인 창작 위주의 소규모 전시에 국한된 것이 많아 대중들의 발길을 붙잡기에만 한계가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호평받은 바 있는 '동국미술인회 창작전'과 같은 단체회원전을 많이 열어 한 자리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대형 전시가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순 동국미술인회 회장은 "회원들간의 작품 아이템 공유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보여주는 것만이 문화 적자생존의 시대에 불교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지원금도 후원금도 없이…

문제는 돈이다. 대형 기획공연과 창작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7년동안 불교문화계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클래식으로 포교에 힘써온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전고투'는 이를 절실히 대변해 주고 있다.

변변한 후원 단체 하나 없이 7년 동안 정기음악회 등을 열어온 니르바나는 적자만 남았다. 니르바나측에 따르면 창단 이후 니르바나의 빚은 무려 7억원에 이른다. 출연료와 대관료 등 행사관련 비용의 합계가 표를 팔아 얻은 수익금을 항상 넘어섰기 때문이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니르바나는 급기야 지난 6월 후원회를 결성했다.

이렇게 정기연주회도 이어가기 힘든 현실에서 좋은 창작품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비해 서울은 물론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까지 원정 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년에 10억 이상의 지원금이 따라붙는다. 또한 개신교는 CBS 재즈 심포니, 기독교 TV 오케스트라 등 교계의 방송국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 활발한 음악 선교를 하고 있다. 2년에 한번 꼴은 해외 선교 포교까지 갈 정도다.

진명 스님은 "외국 종교방송사들의 경우 오케스트라를 꼭 하나씩은 운영하며 음악을 통해 선교를 하고 있다"며 "불교계도 언론사들이 중심이 돼 오케스트라나 연합합창단을 결성해 후원 모금도 하고 홍보도 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형진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단장은 "문화 포교 사업은 이익을 창출하려는 생각으로는 절대할 수 없다. 문화를 통해 불교를 알리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불자기업인들과 문화재단, 큰 사찰들이 중심이 돼 후원회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주는 문예진흥기금 제도도 적극 활용해 볼만하다. 공연과 전시 기획 취지만 성실히 구성해 신청한다면 적은 돈이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동국대 손재현 체육교육과 교수는 "경쟁률이 만만치 않지만 공연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정말 필요한 후원제도"라며 "자신의 작품이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정확한 취지를 알린다면 예산을 지원받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실제로 손교수는 3년전 무용극 '사천왕'을 무대에 올릴때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았다.

▥ 인재불사가 먼저다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개신교 신자인 강민선(가명 · 25) 양은 원주시 개운동 모 교회에서 유학 생활내내 장학금을 받았다. 대신 교회 성가대를 위해 10년간 일한다는 조건이었다. 실력은 뛰어났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할 뻔한 강 씨는 교회의 도움으로 유학을 다녀왔으며 지금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맹활약중이다. 물론 강씨는 교회 지휘자로 일하며 전국 순회공연을 하는 등 교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불교계는 오페라와 같은 대규모의 공연을 하려면 다른 종교 음악가들을 출연시켜야 공연이 이뤄질 정도로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1999년 오페레타 '아미타불'을 공연시 불교 성악가들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적이 있다고 당시 기획을 맡았던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국장) 씨는 아픈 기억을 회고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한 수원 포교당 성관 스님은 4~5년 전부터 젊은 음악인재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어 문화인재양성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공연시설을 갖춘 수원 포교당에서 이들이 주축을 이룬 음악회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있는 이들의 부러움까지 사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도 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주형기씨도 당시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인터뷰를 통해 "학비가 없어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하지 못할 형편이었는데 장학금을 준다는 한인 교회들은 유혹(?)의 손길이 많이 뻗쳐왔다"고 밝힌바 있다.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개신교나 천주교 등에서는 중고생때부터 음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금과 장학금을 주며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이들이 훌륭한 음악인으로 성장해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해 1등공신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불교계가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당장 피드백이 없어도 해당 사찰의 신도 자녀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국대를 비롯한 종립학교에서 문화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공모전 등을 활성화해 중 고생때부터 예술적 소양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아울러 조계종 총무원에서 주최하는 불교미술대전이나 창작 찬불가 공모대회와 같은 종단 차원의 문화예술 경연대회도 횟

결 의 문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연합회는 지난 7월19일 중앙종무기관 일부 일반직 종무원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관할청에 접수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 우리 종단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중앙종무기관의 일반직 종무원들에 대하여 부당 해고나 임금 착취 등 근로와 관련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욕구를 사회법에 의존하여 충족하려는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의 종도답지 않은 행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2,500여개 사찰을 관리하고 1만 2천 여명의 출가 수행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계종단의 중앙종무기관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불교와 승단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이에 적극 반대하는 <교구본사주지연합회>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1. 노동조합의 설립이 대내외적으로 완결되는 순간, 전국 본말사에서는 총무원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할 것이다.
   - 총무원은 전국 본말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의 스님들과 신도들의 종교 활동의 소산인 삼보정재를 종교적 방식이나 가치관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유지 운용되는 총무원에 납부할 수 없다.
   - 전국의 모든 사찰과 스님들에 대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왔던 조계종의 종헌종법 준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재가 종무원이 노동법과 '노동조합'이라는 세속의 법과 방식을 동원하여 '종단 개혁'과 '사부대중공동체' 운운하는 불자답지 않은 자들을 위해 쓰여 질 분담금 납부를 전면 거부할 것이다.
2. 총무원 집행부는 노동조합 구성원들에 대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즉각 실행하라.
   - 오히려 전국 2,500여 개 본말사 및 수많은 소속 · 산하기관에는 수많은 재가불자들이 중앙종무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심과 원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찰과 산하 기관에서 재가 종무원들의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이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근무 여건을 점차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러한 때, 중앙종무기관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은 재가 종무원에 대한 기피 등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건전하고 선량한 다수의 재가 종무원들을 보호하고 종무원 상호 뿐 아니라 출재가간 올바른 관계 개선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노동조합 설립 참여자들에 대하여 단호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종단 집행부에 촉구한다.
3. 일반직 종무원은 지금까지 견지해온 재가불자를 대표하는 신심과 원력을 지닌 사부대중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포기하고 속화의 길을 자초하는 노조설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의 입장을 밝히며 우리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불교와 교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부 일반직 종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중앙종무기관의 모든 조치와 결정을 위법망구의 결단으로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이며, 어떠한 종단적 희생도 감수할 것임을 천명한다.

불기 2549(2005)년 8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

용호복지관,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마주보기'

"보고 느끼니 이해돼요"



장애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은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사진은 일반청소년들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하는 모습.

8월 8일 오전 11시, 찌푸렸던 하늘이 흰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을 때 두 손을 마주 잡은 청소년들이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대강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이고 나머지는 일반 청소년. 이들은 두 사람이 짝을 이뤄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곳까지 올라왔다.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마주보기' 통합 프로젝트는 남구 지역에서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복지기관 3곳이 마음을 모아 함께 준비해 의미를 더했다.

불교계가 위탁 운영하는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이 3년째 펼쳐온 장애와 비장애 마주보기 통합 캠프에 가톨릭의 감만복지관(관장 김선희 안나 수녀), 개신교의 남구종합복지관(관장 손광훈)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 복지관 간의 통합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첫 단추를 끼웠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련원에 오르는 것이 프로그램 중의 일부일 정도로 장애 · 일반청소년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기획된 이 행사에는 정신지체장애인 32명, 비장애 청소년 32명이 함께 참여했다.

가톨릭 · 개신교 복지관 함께 참여
장기자랑 즐기며 마음의 벽 허물어

함께 춤을 추는 시간. 이미 예비모임에서 한번 만난 짝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몸을 흔들며 더욱 더 친밀해지기 시작했다. 춤을 추는 사이, 다빈이와 민국이가 시선을 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대열을 이탈하고 괴성을 지르는 다빈이를 민국이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다. 춤을 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민국이는 다빈이 손을 놓지 않았다.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민국이는 "다빈이가 제멋대로 행동해 힘들긴 하지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돕고 또 여러 가지 놀이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한바탕 춤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친구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물 풍선 던지기가 시작됐다. 물 풍선이 날아다니고 물벼락을 맞으며 즐거워하는 청소년들 틈에서 지희와 상호 팀의 분위기 심상찮다. 짝인 상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희가 투정을 부리자 상호도 짜증을 내고 있었다. 장애를 가진 지희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어리광을 부리고 당황한 상호도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희의 맑고 순수한 마음은 화난 마음마저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물 풍선 놀이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상호의 손을 끌어당기며 웃고 있었다.

대양공고 종교반에서 활동하며 복지관 봉사활동을 해온 상호는 "지희에게 같이 짜증을 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휠체어 달리기, 요플레 먹이기, 사랑표현하기 등 그룹별로 함께 하나의 과제를 완수하며 하루해가 저물었다.

서로를 마주보며 마음을 나누었던 청소년들은 금련산 수련원에 오를 때처럼 두 손을 꼭 맞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춘성 용호복지관 부관장은 "장애청소년들에겐 사회성을 길러주고 비장애 청소년들에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아름다운 자연 마음껏 즐겨요

금정청소년수련원, 범어사 금강암서 초등생 산사체험

(재)범어청소년동네가 부산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금정청소년수련관(관장 정만)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1박 2일간의 산사체험 프로그램을 연다.

8월 20일, 21일 양일간 범어사 산내 암자 금강암에서 열리는 이번 산사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착순 20명만 신청을 받는다.

아직까지 자동차로가 없어 걸어가야 하는 몇 안 되는 범어사 산내 암자 중의 하나인 금강암. 큼직한 바위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금강암으로 오르는 것부터가 산사체험의 시작이다. 참선과 스님과의 만남에 중점을 둔 이번 산사체험에는 사찰 예절, 참선 이론과 실수, 소원 등 만들기, 사성제, 스님과 차 마시기, 선체조, 금정산 숲 생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알뜰하게 구성돼 있다.

금정청소년수련관 관장 정만 스님은 "인터넷 문화, 도시문화 등에 젖어 있는 아이들이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느끼고 참선을 통해 평소에도 고요한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길을

정서 안정되고 의젓해졌어요

청도 용산사 연꽃어린이집 다도학습 발표회

8월 10일 연꽃이 만개한 경북 청도 유호연지의 군자정에 청도 용산사 부설 사회복지재단 연꽃어린이집(원장 도명) 선재반 어린이 17명이 다도학습을 나왔다. 평소 원장 도명 스님에게 배운 다도 시연 모습을 부모님과 마을 어르신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선재반 어린이들이 찻잔을 바로 놓자, 다동(茶童)이 나서 차를 따르고, 다식을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넨다. 차를 받은 어린이들은 차의 색을 감상하고 차향과 차맛을 음미했다. 차를 따르고 마시는 동안 어린이들은 차 마시는 법, 차향과 맛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민호군 어머니 이재화씨(청도 원정리)는 "다도, 사찰순례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실생활에 접목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명 스님은 "다도와 명상 수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인내심을 키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APEC 성공기원' 부산불교계 들썩



칠월칠석이었던 8월 9일, 부산 삼광사는 칠석예술제를 열어 가족사랑을 되새기고 APEC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국 정상들이 부산을 찾게 되는 APEC 정상회의가 8월 10일 현재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시가 APEC 정상회의 체제로 돌입한 것을 비롯 불교계에서도 APEC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기도회와 함께 각종 문화행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대성)가 10일 대웅전에서 '2005 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백일기도'를 입제했고 하루 전인 9일에는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주지 도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칠석예술제를 봉행했다.

또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6개 교단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모임인 '공동선 실천을 위한 부산 종교지도자협의회'는 여여선원(선원장 정여)

범어사 · 삼광사 등서 기도회
칠석제 관련 문화행사도

주관으로 11일 부산불교회관 7층에서 APEC 성공 기도회와 광복 60주년 기념식을 함께 가졌다.

범어사 대웅전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을 비롯 APEC 기획단, 불교계 신행단체 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일기도 입제식은 천수경, 정법계진언, 사다라니, 지심정례공양계, 허남식 부산시장의 발원문, 대성 스님의 기원문에 이어 석가모니불 정근, 축원, 반야심경 봉독으로 진행됐다.

특히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인각 스님을 비롯한 선방 수좌 스님들과 범어사 강원 학인들도 기도에 참석해 마음을 모았다.

대성 스님은 기원문에서 "부산 개항 이래 최대 행사인 APEC 정상회의는 세계에 부산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불자들이 부산 시민의 마음을 모으는 중심에 서서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힘을 모으고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범어사와 함께 삼광사도 기도를 입제했으며 11월 12일까지 이어지는 기도에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일반 시민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한편 삼광사(주지 도원) 특설무대에 마련된 칠석예술제는 변지영 무용단의 '견우와 직녀'를 비롯 민족 고유의 명절인 칠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가족이 다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춘향이과 이도령의 사랑이야기를 판소리와 오카리나를 사랑하는 앙상블 '오사앙'의 합주, 삼광사 화엄합창단의 합창, 남성중창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으며 백양산 자락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놀이로 대미를 장식했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통도사 도서관 도서 확충 나서

7월 6일 상량식을 가진 통도사 불교도서관이 우리나라 불교도서관을 대표하는 전문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장서 확충에 나섰다.

통도사 불교도서관은 2개의 동으로 건립되며 통도사를 찾는 불자들에게는 불서, 경전 등을 전하고, 양산 시민들에게는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개방된다. 통도사 도서관은 인터넷 검색실, 불교교양도서실, 열람실 등을 갖추고 단순히 책을 '읽는' 도서관에서 벗어나 직접 '찾고' 눈으로 '보는' 도서관이 되도록 다양한 자료를 갖춰 사찰도서관 문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055)372-7009 천미희 기자

대구 불광사 만불전 기공

대구 불광사 불광불교대학(학장 사요)은 8월 20일 오전 11시 기공식을 시작으로 만불전 건립불사를 봉행한다.

불광사 만불전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000평 규모로, 2006년 완공될 예정이다. 지하1층에는 주차장이 들어서고, 지상 1층에는 종무소와 공양실, 2층에는 시민선방, 3층에는 불광불교대학과 신행단체 사무실, 문화센터가 마련되며, 4층에는 대법당이 각각 들어서게 된다. (053) 656-6766 배지선 기자

구연동화반 수강생 모집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지현)이 전문자격증 취득반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에 새롭게 개설되는 과정은 구연동화 2급 자격증이 주어지는 2개월 과정의 구연동화반과 2급 자격증이 주어지는 3개월 과정의 레크리에이션반.

9월부터 개강되는 구연동화반의 경우, 불교 구연동화가 전무한 실정에서 불교 구연동화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고 풍부한 불교 설화나 부처님 전생담 등을 소재로 한 불교 구연동화 개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불교구연동화에서 독보적인 존재인 박서영 씨가 강의를 맡는다.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교사대학 졸업생,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불자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주 화 · 수요일 저녁 7~9시 대한불교교사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이 열린다. 마감은 8월 31일까지. (051)852-0852 천미희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co.kr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80%이내)	· 건강진단서 1통 (영문, 대사관 지정병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9월 15 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6. 남경중의약대학 교류 연혁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 원광대 ·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 1995년 1월 20일 학장 혜인 스님 남경중의약대학 방문 상호교류 및 자매결연 협의
· 1995년 7월~2000년 12월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1차~14차)
· 1995년 8월 19일~8월 25일 남경중의약대학 총장 일행 방한
· 南京中醫藥大學 漢語 分校설립, 분교장 취임
· 1995년 10월 25일 이병용(李秉鎔, 한의사) 명예박사학위 취득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남경중의약대학 국제교육학원 교직원 방한 (中國 江蘇省 教育委員會 永鎭, 國際教育學院長 楊公服, 教務處長 惠紀元, 國際交流服務中心 總經理 丁雲南)
· 1996년 12월 5일~12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 1997년 8월 10일~8월 15일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 1999년 9월 본교 중국어과 5명 본과 입학
· 2000년 9월 9일 본교 중국어과 11명 본과 입학
· 2000년 11월11일~11월17일 남경중의약대학 王玲玲 院長, 徐恒 院長 訪韓
· 2001년 3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28명 본과입학
· 2002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3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11월 중국국가의사고시 7명 합격
· 2005년 중국국가의사고시10명 합격

한국총장 손 혜 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마음을 낮추니 '편안'



예산 수덕사 선수련회 습의사 진전 스님과 수련생들이 공양물을 주는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수덕사 禪수련회 프로그램 '거리탁발 체험'



탁발한 공양물을 먹고 있는 데이비스씨(왼쪽에서 두번째).

#밥을 얻어 먹는다, 낯설지만 색다르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덕숭산 계곡물처럼 흘러내린다.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땀을 연신 닦아내지만 역부족이다. 이틀 뒤의 입추(立秋)보다 열흘이나 남은 말복(末伏)이 어울리는 찜통더위다.

수덕사(주지 법정)는 7월27~30일과 8월4~6일, 8월 10~13일 3차례에 걸쳐 선수련회를 진행했다. 탁발이 수행자에게는 하심을, 보시자에게는 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수덕사는 올 수련회부터 탁발을 수련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8월 5일 오후 4시 예산 수덕사 황하정루 앞. 88명의 수덕사 여름 선수련회 참가자들이 각자의 발우를 들고 모였다. 바로 탁발을 하기 위해서다.

탁발에 앞서 2시간 동안 참선을 하며, 마음을 비우고 또 내려놓으려 노력했지만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아 보인다. 부모와 함께 수련회와 참석한 태경(18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이는 "밥을 얻어 먹는 것이 낯설지만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매일 매일 하셨다고 하니 느낌이 색다르다"고 한다.

#"탁발은 수행, 보시자에 예 갖추길"

드디어 수덕사 포교국장 지오 스님과 4명의 습의사 스님들이 수련생들을 이끌고 일주문을 나선다. 길게 늘어선 수련생들이 신기한지 이날 수덕사를 찾은 관광객들은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한다. "무슨 일이냐?"는 관광객들의 질문에 수덕사 템플스테이를 담당하고 있는 안진영씨는 "주민들에게 음식을 받아 먹는 탁발을 하는 것"이라고 탁발 의미를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다.

어느새 사하촌에 도착한 수련생들에게 지오 스님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잊지 않는다. "탁발도 수행입니다. 공양물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예를 갖추시기 바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양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련생들이 3~4명씩 한조가 돼 집을 방문한다. 쑥스러운 표정을 감출수 없는 수련생들을 환환 미소로 맞은 천용운 · 황화자씨 부부는 정성스럽게 하얀 쌀밥과 몇 가지 나물, 고추장을 발우에 담아준다.

휴가 기간을 이용해 수련회에 참석했다는 허은주(35 ·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씨는 "여러 사찰 수련회에 참석해봤지만 발우를 직접 들고 탁발을 하기는 처음"이라며 "정성을 다해 음식을 주시는 주민들이 그저 고맙기만 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선식(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 김은영씨 부부도 "오늘 저녁에는 예전과 다르게 좀 더 특별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뿌듯한 표정을 숨기지 않는다.

수련생들은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위를 2시간 동안 걸으며 부처님과 같은 모습으로 탁발을 했다.

일부 공양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원한 음료수와 물까지 얻은 사람들은 싱글벙글이다.

#"남김없이 비워 감사의 마음 전하자"

주민들의 훈훈한 인심과 음식물로 채워져 무거워진 발우를 들고 다시 황하정루에 돌아온 수련생들은 서로 마주보며 발우공양을 준비한다.

습의사 현우 스님은 "발우공양 역시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오는 불교 고유의 식사문화"라며 "탁발을 통해 얻어온 음식을 남김없이 비워 공양물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고 말했다.

본격적인 공양에 앞서 수련생들은 공양물을 받아 오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 십시일반 공양물을 나눴다.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데이비드 슈마커(34 · 미국)씨는 "불교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탁발까지 하게 돼 무척 재밌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종교 교사인 데이비드씨는 "한국과 같이 미국에도 다양한 종교가 뿌리내리고 있다"며 "이번에 체험한 한국의 불교문화를 학생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탁발과 발우공양을 마친 수련생들은 1080배와 탑돌이 촛불의식를 끝으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마음을 낮추는 탁발체험으로 한층 뿌듯해진 수련생들은 다음날 일찍 덕숭산 정상에 올라 어느새 한국 근대 선(禪)을 중흥시킨 경허 · 만공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글 · 사진/수덕사=유철주 기자

템플스테이 안전사고 이상無

공주 영평사 공주의료원과 지정병원 협약

보건소 · 119 구조대와 연계도

충남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가 템플스테이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주 의료원과 지정병원 협약을체결했다.

8월 5일 공주의료원 회의실에서 열린 지정병원 협약식은 강선배 공주의료원장과 환성 스님의 협약서 서명으로 이뤄졌다.

영평사가 공주의료원과 지정병원 협약식을 맺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찰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대기하고 있어 초기 대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보건소와 119 구조대와의 연계도 강화하여 템플스테이로 영평사를 찾은 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산사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영평사는 현재 국내 사찰 중 화재보험 가입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사찰로 낙산사 화재 이후 안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사찰로 주목 받은 바 있다.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은 "영평사가 올해 템플스테이 사찰로 운영되면서 휴가철인 7 · 8월의 경우에만 연인원 1000명 이상이 2박3일간 산사체험에 참여했거나 예약하고 있는 상태로 안전과 위생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증심사 일대 사찰수행환경 UP"

광주시, 생태복원사업 착수

광주 무등산 증심사 일대가 대대적인 생태복원사업으로 사찰 수행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8월 8일 "증심사 입구의 무질서한 상업지구와 원주민촌을 이주하고 이곳을 시민들의 휴식처로 가꾸는 생태복원사업을 이달 말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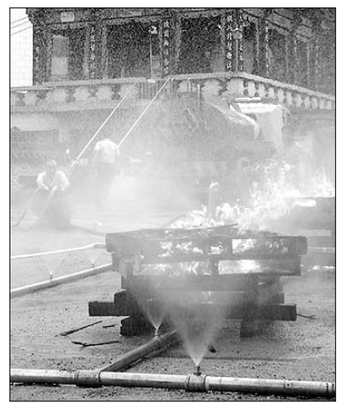
20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증심사 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 말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은 상가와 주민 68가구 이주단지를 조성하며 2007년까지 2단계로 주차장과 버스 회차지를 만든다. 또한 2008년 마무리되는 3단계는 상가단지 조성, 방문자센터 건립, 생태복원작업이 펼쳐진다.

1972년 공원지구로 지정된 무등산 증심사 지구에는 증심사, 약사사, 문빈정사 등 광주를 대표하는 사찰이 자리해 있으나 상가 난립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 논란이 있어왔다. 이준엽 기자

조계사 소방시설 시연회 열어

물 분무설비시스템 도입



조계사가 WSH 소방설비 시연회를 열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일환인 대웅전 중창불사가 한창인 조계사(주지 원담)가 고건축물 보호를 위한 첨단 소방 설비인 '헤어초크 물분무설비시스템(WSH)'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조계사는 8월10일 부주지 도문 스님, 서울시 문화재 심의위원, 종로구청, 종로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앞마당에서 WSH를 시연했다.

독일의 고건축물과 박물관 등에 설치 · 사용되고 있는 WHS는 물방울 크기를 0.1mm 이하로 분해한 미분자 구조를 강력하게 분무할 수 있는 노즐을 통해 소화하는 시스템으로, 화재시 질식사의 원인인 연기를 미세한 물 입자구조가 흡착해 인명피해를 줄이고 화재를 조기 진압할 수 있는 첨단 소화 장비다.

도문 스님은 "한국불교의 상징으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127호인 대웅전이 변변한 소방시설 없이 화마에 무방비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낙산사 화재 같은 참화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찰 소방대책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태안전투 순직경찰 위령재



태안사 스님들이 초혼 독경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당시 곡성 태안전투에서 순직한 경찰관들의 넋을 달래는 위령재가 8월 5일 태안사 내 경찰 충혼탑에서 열렸다.

곡성 태안사 주지 종효 스님과 대중스님들의 초혼 독경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위령재에는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한강택 전남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과 유가족, 참전 동지 회원 등 300여명이 동참해 순직 경찰관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올해 55주기를 맞는 태안사 위령재는 1950년 8월 6일 한국전쟁 당시 태안사에 지휘본부를 두고 곡성지역을 사수하던 중 북한군과 교전으로 산화한 경찰관 48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광주 덕림사 교사 초청 법회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는 8월 16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제3차 명사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초청법회는 광주 운남고등학교 진학실장 임양성 교사가 초청법사로 나와 '입시에 대비한 수험자와 학부모의 마음가짐'이란 주제의 강의와 상담을 진행했다.

무이 스님은 "대입 수능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초조해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어나 입시전문가를 초청했다"며 "법당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입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매월 개최하는 덕림사 명사초청법회는 회를 거듭하면서 불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높아 사찰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준엽 기자

대전 연꽃마을 연꽃 전시회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연꽃마을(주지 도공)이 8월 20일 낮 12~3시 경내에서 300여명의 스님과 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꽃을 주제로 한 시낭송회를 마련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인 박제천씨와 성찬경씨가 자작시를 발표할 예정이며, 연잎차를 시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연꽃마을 주지 도공 스님은 "하루 방문객만 수 백명에 이르고 있다"며 "행사 참석자들에게는 무료로 연잎차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042)274-5754

유철주 기자

※ 기사넘쳐 '지금 우리절에서는…' 쉽니다.

남산당 정일 대선사 열반1주기 추모법회

南山堂 正日 大禪師의 열반 1주기 추모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문도스님 및 사부대중은 수희 참석하시어 함께 자리하시기를 앙망하나이다.

● 일 시 : 불기 2549년 8월 27일 (음, 7월 23일)
● 시 간 : 오전 10시
● 장 소 : 삼각산 보광사 (서울 강북구 우이동 76-19)
종무소 02)993-3808

불기 2549년 8월 10일

삼각산 보광사 남산문도회 문도일동 합장

http://cce.khu.ac.kr 열린 대학교육 · 평생교육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생 모집

기문명리학	기문명리학 사주, 작명, 택일, 양택, 단시 등을 기문역학으로 파악하고 실생활에 응용하는 과정 홍국수의 기본바탕 오행의 원리와 팔문, 팔괘, 팔장을 기문으로 포국하는 방법 학습 ● 수 19:00 ~ 21:00 (2학기 과정) 학기당 200,000원 ● **60세 이상 수강자에게 수강료 50%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웰빙관상학	우리 얼굴, 신체 모든 부위의 형태와 기색을 살펴 운명 변화, 웰빙법 연구 골격과 살집의 미학, 십이궁과 십삼부위, 성형미학과 출세, 얼굴의 색깔과 운명교정 학습 ● 월 10:00 ~ 12:00 (2학기 과정) 학기당 200,000원
한국전통 민속문화	한국인의 전통무속신앙, 자연숭배사상, 풍수지리를 연구, 현장답사 및 실습체험 ● 금 19:00 ~ 21:00 (2학기 과정) 학기당 200,000원
한문해석법	체계적인 한문해석법 습득과 「명심보감」「동몽선습」「계몽편」독해, 중국시, 한국시 감상과 탐구 ● 월 14:00 ~ 16:00 (15주 과정) 200,000원 ● **60세 이상 수강자에게 수강료 50%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한시창작	한시의 역사와 작법을 습득하고 고문 이해, 명시 감상 및 창작을 통한 한시의 여러 장르 연구 ● 목 10:00 ~ 12:00 (15주 과정) 200,000원

▶ 특전 : 경희대 총장명의의 수료증, 도서관 이용 ▶ 접수기간 : 2005년 8월 29일(월)까지 (방문접수 : 평일)

■ 개 강 : 2005년 9월 1일(목)부터 각 강좌 해당 요일
■ 접 수 처 :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네오르네상스관 2층)
■ 문 의 처 : Tel (02) 961-0870~2 홈페이지 http://cce.khu.ac.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자세한 교육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교통안내 : 지하철 1호선 회기역 하차 1번출구(마을버스 경희대학교 정문 하차)

화합 기반 불교복지 일군다



8월9일 성남 봉국사 주지 효관 스님과 신도들이 노인복지 시설 자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봉국사

경기 이천 · 용인 · 성남

이천 사암련 주축, 장학사업 · 北어린이 지원 '한뜻'

용인 봉축행사 · 불우이웃돕기 통해 이미지 변신

성남 직장 신행 활기…사찰간 불화 해결과제로

이천

이천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천 불교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적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단합은 잘되고 있지만 포교활동은 다소 약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런 두 가지 평가는 보는 관점의 시각 차이일 뿐이며, 하나로 요약하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먼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는 사암연합회가 그만큼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데 기초하고 있다. 이천사암연합회는 어느 지역과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만큼 단합된 힘을 자랑한다.

4년 전 열린 세계 도자기엑스포 전야제를 사암연합회가 주관해 연 것은 그만큼 사암연합회가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천 불교는 지역민에게 불교의 저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불교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여기에다 영업용 차량 염주 걸어주기, 불우아동 장학금 지원, 이천시 장학회 후원, 북한 어린이 돕기 등의 활동으로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개별 사찰들의 활동은 다소 미약한 편이다. 영월암(주지 홍법) 등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포교활동을 벌이는 사찰이 없다. 포교활동이 약하다는 평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체 70여 사찰 중 신행 및 포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찰이 드물다는 것이 바로 이천 불교가 안고 있는 숙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과 지역민들은 한결같이 이천 불교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그 이유는 사암련 차원에서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데다, 이천 불교를 대표하는 영월암이 포교 활성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천사암련은 불교회관 건립, 유치원 운영, 경승설치 문제 등 지역불교 현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또 철야참선법회를 개설해 포교활성화에 나선 영월암은 기도도량이자 지역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한편, 시내에 위치한 영월암 포교당에서 시민선방과 요가와 꽃꽂이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열어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용인

인구 80여만 명의 용인. 신흥개발지역인 용인은 신도시 대부분이 그렇듯이 불교세가 약한 편이다. 사찰 수는 140여 곳 정도로 적은 편이 아니지만, 변변한 도심포교당 하나 없는데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극히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않았다. 사암연합회 역시 이름만 유지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용인 불교는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용인 불교는 최근 몇 년간 봉축행사와 불우이웃돕기 등 복지활동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같은 분위기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기대감에 차 있다.

이런 기대감의 중심에는 사암연합회가 있다. 용인사암련은 지난 3월 용덕사 주지 성효 스님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한 활로 모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성효 스님은 시민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지역 사찰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 사찰들의 사암련 활동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포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용인의 대표 사찰인 용덕사(주지 성효)의 변화에 거는 기대도 크다. 결식아동과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후원을 통해 이미지를 높여 온 용덕사는 현재 불사중인 수련원이 완공되는 대로 템플스테이를 여는 한편, 내년까지 시민선방과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역불교 활성화에 나설 채비로 분주하다. 여기에다 10월 경 완공예정인 용덕사의 여성재소자 아동양육시설이 가동될 경우 불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지역 사찰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통사찰 백련사(주지 법공)도 용인 불교 발전을 견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에버랜드에서 4.5km나 떨어져 있어 지역민들이 찾기 쉽지 않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한편, 경전학교와 일요법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포교에 뛰어들 계획이다.

성남

인구 100만의 성남. 인구만큼이나 사찰도 적지 않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사찰 수는 대략 200여 개. 1994년 분당 신도시가 생기면서 사찰도 적지 않게 늘었다.

올해 5월과 6월에는 중부경찰서 법우회와 시청공무원 불자회가 잇달아 창립되면서 재가불자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사암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6월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호국영령천도영산재를 개최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부 사찰들도 열심히 뛰고 있다. 통도사 분당 포교당인 장안사(주지 성화)가 도심 한복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행조직으로 불자들의 신행을 이끌고 있고, 대규모 사찰인 천태종 대광사(주지 운덕)는 기도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영운정사(주지 영운)는 다도강좌로, 약사사(주지 혜안)는 노인무료급식으로, 전통사찰인 봉국사(주지 효관)는 불교복지대학과 봉사신행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성남 불교는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성남의 스님들 스스로도 성남 불교가 약하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우선 지역불교를 이끄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암연합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사암련 회원 사찰은 70여 곳.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언제부터인가 사찰들 간에 알력이 생기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식으로 변해 버렸고, 분당 신도시가 생기면서부터는 신시가지인 분당구와 구시가지인 중원구 · 수정구 간의 경쟁으로 거리감이 생기면서 "성남 불교는 두 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대다수의 사찰들이 신행 및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성남의 스님들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또 변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사암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찰 토지 확인 작업으로 분주하다.

30안거를 성만한 수좌 출신으로, 영월암과 시내에 있는 포교당을 수행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아울러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가꾸겠다는 계획 아래 다양한 사업을 구상중이다.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지역사찰 화합·사회활동 앞장

혜봉 스님 (이천 용학사 주지 · 이천사암련회장)



12년째 이천사암련회장을 맡고 있는 혜봉 스님은 지역 사찰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이천 불교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년 전 용학사를 창건, 다양한 법회와 신행활동을 통해 이천 불교 활성화를 꾀했으며, 경내에 복지시설인 마야원을 설립해 불우 아동과 청소년도 보살피고 있다.

20여년간 성남서 포교 진력

지관 스님 (성남 용불사 주지 · 성남사암련회장)



지관 스님은 성남에서만 20년 가까이 포교활동을 해왔다. 2년 전부터 사암연합회 회장을 맡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지역 사찰의 단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늘 안타깝다. 지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중 포교활동'이 필수적이며, 사암련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종무행정 · 포교 · 복지 전문가

성효 스님 (용인 용덕사 주지 · 용인사암련회장)

성효 스님은 선방수좌 출신으로 종무행정 · 포교 · 복지 · 사회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 능력을 겸비한 스님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는 조계종 환경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용인사암련 회장과 용인경찰서 경승실장 등을 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시민선방, 복지시설 건립과 함께 주말 템플스테이를 통해 용덕사를 종합문화공간으로 가꾸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주민 위한 교육·문화공간 구성

효관 스님 (성남 봉국사 주지)



효관 스님은 중앙승가대 · 건국대 등에서 불교학 · 정치외교학 ·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 서울시 중등 2급 정교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만능맨'이다.

봉국사 주지 부임 후 복지와 문화를 통해 지역민에게 다가가면서 봉국사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말 참선 등 새 신행문화

홍법 스님 (이천 영월암 주지)

이천 불교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님이다. 2005년 5월 영월암 주지로 부임한 홍법 스님은 도량 불사와 주말 참선 등 신행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 · 청소년 포교에 적극적

혜안 스님 (성남 약사사 주지)



복지와 해외포교에 관심이 많은 혜안 스님은 약사사 복지신행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미얀마와 스리랑카의 기술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미얀마 새벽사원 불탑 복원사업과 고아원 후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영어회화반, 사물반 등 학생회 법회를 통한 청년포교에도 적극적이다.

'효와 신행 일치' 강조

지법 스님 (이천 관음사 주지 · 이천사암련 총무)



5년 째 이천사암련 총무를 맡아 사암련 회장 혜봉 스님과 호흡을 맞추며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현재 태고종 동부종무원 종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스님은 신도들에게 효와 신행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절에 오는 것보다 집안을 편안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것은 '효'를 실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복지관 연계 자원봉사단 구성

성화 스님 (성남 장안사 주지 · 한솔종합복지관장)



장안사 불교대학의 졸업자들을 기수별로 나눠 복지관 양로원 등 분야별 자원봉사단으로 구성해 활발한 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성남에서는 유일하게 불교유치원(장안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포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전반을 운영하는 등 신도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일요법회 · 경전학교 계획

법공 스님 (용인 백련사 주지 · 용인사암련 총무)



올해 초 백련사 주지로 부임한 법공 스님은 도량 보수불사와 함께 신도회를 조직하는 등 백련사가 지역 불교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기도도량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나한전을 새로 건립하고 일요법회와 경전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2005학년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현 공 풍 수

■ 교육기간 : 2학기 과정
■ 강의시간 : 초급 – 수요일 오후 6시 – 8시 50분
중급 – 월요일 오후 6시 – 8시 50분
■ 접수기간 : 8월 1일 – 9월 2일(오전 10시 – 오후 3시)
■ 담당교수 : 선공세준
■ 교수약력 : 활불선원 원장,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포천중문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 학기당 학습비 : 300,000원
■ 교 재 명 : 현공풍수학(선공세준 편역 011-706-4090)
■ 교육목표 : 현은 통일과 하도를 뜻하고 공은 공간낙서를 뜻하며, 현공이란 시간, 공간, 방위의 기를 상호 전환하는 방정식으로 선후천 팔괘오행을 현대적 에너지 기들을 파악하여 1-9까지 구성 천문에 따라 가람의 배치와 묘, 주택, 도시건축, 아파트, 상가, 빌딩 등 자연과 인간 환경 전반분야에 풍수의 길흉에 대해 조사하여 비보 개선하는 최상승 풍수 법술이다.

■ 강의내용

초급반
- 현공풍수의 대의 : 양택의 가람배치와 풍수사상
- 현공 역리와 납갑 오행 : 풍수역학과 가람의 과학적 요건
- 현공풍수학의 길융화복의 근거 : 형기론 이기론 물형론 종합
- 현공풍수 학파(현공 풍수 인물) : 역괘풍수(양택삼요)와 비성(현공)풍수의 역평
- 현공풍수 하도낙서의 핵심 : 낙서 후천팔괘의 결합
- 현공구성의 운형 : 구성의 궤적과 공간방위의 정립
- 현공 성반(주택과 방위법) : 왕성과 비왕성의 관계
- 현공구성의 사물변화 현상법술 : 하도수와 운반관계 (주택, 묘, 공간, 기술법)
- 현공풍수 별의 순서 정하는 법 : 24 산향 음양 영정 (묘지주택 정하는 법)
- 현공풍수의 청규 : (주택, 묘, 도시, 상가, 아파트, 인테리어)
- 지운과 입수 운기법
- 정음(淨陰), 정양(淨陽), 납갑(納甲)법 : 천문 연월일시 기준과 2분 2지
- 성문 이궁을 논하는 법 : 물의 종류와 물의 영향에 관하여
- 반음 복음, 음양 합심법 : 용의 지세와 형국 명당보는 법
- 포태 사대국 수법 허와실(虛實) : 삼반삼침(三盤三針), 正, 中, 縫 원리
- 현공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 좌향법, 형국법
- 용혈사수(龍穴砂水向) 아파트 실내풍수인테리어 코디 (책상, 침대, 주방, 쇼파 등등)
- 삼합반(三合盤) 9층 패철(佩鐵)과 현공삼원반과 천문풍수
- 천지인(天地人)공간의 원방각 기 측정원리

중급반
- 현공 애성 하괘 변수법, 성문2궁법, 칠성 타겁, 현공풍수의 증험

● 공개 강좌 : 9월 7일(수) 오후 6시
● 온라인 접수 : 조흥은행 313-03-004148 (예금주:동국대학교)
홈페이지 〈http://dgucc.dongguk.ac.kr〉
● 문의전화 : 사회교육원 ☎ 02)2260-3728~9
● 개인지도 : 원방각 - 서울 서초구 서초 2동 교대사거리 큐브플러스 1513호
02)587-2855 / 011-706-4090

‘내 맘대로 승적 이동’ 막아라

일부 종단스님 이중 승적 · 부자격자 유입 등 문제 많아

범종단 차원서 관리 시스템 갖춰야

최근 창종한 A종단은 얼마 전 입종한 한 스님 때문에 종단분규 상황까지 치닫게 됐다. 다른 종단에서 비리로 제명된 스님을 허위로 작성된 승적부만 믿고 입종을 허락했다가 분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야 그 스님이 비리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스님들의 이력서라 할 수 있는 승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 소신에 따라 종단을 옮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각종 문제를 일으킨 스님이 종단만 옮겨 여전히 승려 신분을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승적을 허위로 조작하는 사례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규모가 작은 종단일수록 심각하다. 인원수 늘리기에 급급하다보니 아무런 검증없이 입종 희망자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검증을 한다고 해도 일차적으로 승적부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종단이 승적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증 실효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B종단 신도인 김모 보살은 최근 C종단의 한 사찰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했다가 황당했다. 한주 전 B종단 소속이었던 어떤 스님이 C종단 소속으로 소개됐기 때문이다. 법회를 마치고 돌아와 B종단에 문의했지만 B종단 관계자는 그 스님이 종단을 옮겼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소속 종단조차도 승적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종단 관계자들은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많은 스님들이 옮겨 다니는데 승적부 관리는 해서 무엇하겠느냐”며 “그럴 필요성도, 승적을 관리할 인력과 시스템도 없다”고 말한다.

이같은 승적관리 부재는 결국 종단 난립으로 이어지면서 불교 이미지를 흐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승적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종단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승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조계종은 최근 ‘승적업무 처리에 관한 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법제도 강화를 통해 승적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승적을 관리해왔던 태고종도 올 12월부터 자체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을 승적관리 업무에 이용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일붕선교종이 최근 승적관리 목적으로 ID카드로 승려증을 발급해 종단 스님의 높은 과심을 끈 것 등은 한번 참고해 볼만 사례다. 승려 분한신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단 스님들의 활동현황을 파악할 필요성도 크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소종단들은 인력부족과 재원부족으로 승적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10~20년 전에 만들어진 승적부를 전산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종단협 김석오 총무차장은 “종단들이 서로 뜻을 모아 승적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일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며 “무엇보다도 승적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종단들의 인식이 관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모 종단의 한 관계자는 “불교계가 자체 정화를 위해 승적 등 기본 자료를 함께 관리할 틀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도 있다. 종단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여과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신 기자



태고보우승가회, 여름 가족수련회

태고종 수행결사단체인 태고보우승가회(회장 호명스님)는 7월 29~31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2회 산사체험 불자가족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했다. ‘푸른 숲 맑은 마음 부처님마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법회는 어린이 · 청소년 · 성인그룹 등 세대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기존의 수련회 형식을 탈피하고 세대가 함께 수행하는 가족중심의 수련일정으로 진행됐다.



총지종 청소년 여름수련회

총지종(통리원장 우승) 제15회 청소년 여름 학생수련회와 제10회 어린이 여름수련회가 7월 25~29일 2박3일씩 보령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산과 바다와 함께 하는 마음 수련의 장’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갯벌조개잡기, 생활요가, 성주사지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제5회째를 맞는 진각종 회당문화축제. 올해에는 8월9~13일 울릉도 도동항 등지에서 영화상영. 해변가요제, 의료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북한상품 남한판매 돕는다

천태종, 조불련 요청 수락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이 북한 관광상품 개발 및 남한 판매에 나선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일행은 8월 8~10일 금강산에서 정서정 서기장과 차금철 스님 등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대표들과 만나, 북한 관광상품 개발 및 남한 판매에 협조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조선불련무역회사가 8월말부터 생산하는 관광상품의 남한 판매를 도와달라는 조불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무원 스님은 “북한 공산품을 한국으로 반입하기 위한 절차가 완료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천태종이 복원공사를 하는 개성 영통사 낙성식은 9월말에 열기로 잠정 결정됐다. 자세한 행사 계획은 2, 3차례 다시 만나 의논할 예정이다.

천태종은 북한지역 성지순례를 조불련 주도하에 치룰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16일 조계사에서 열린 광복절기념법회에서 추가논의가 진행됐다.

강유신 기자

진각종 회당문화축제 성황

가요제 · 민속공연 등 1만4000명 참가

진각종 회당문화축제가 8월 9~13일 울릉도 일대에서 열렸다. ‘독도아리랑’을 주제로 개최된 제5회 회당문화제는 영화상영 가요제 민속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진각종 스승과 독도수비대, 울릉군 주민, 관광객 등 1만 4천여 명은 한 여름 밤의 즐거운 축제를 만끽했다.

11~12일에는 영화상영, 해변가요제, 도동항 풍등 날리기 행사가 진행됐으며, 13일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수비하는 군부대원 대상 위문공연과 풍등제작, 소망등 달기, 연날리기 행사 등이 열렸다. 진각복지재단은 문화복지연대, 고려대 안암병원과 공동으로 11, 12일 울릉군 여래심인당에서 주민 대상 무료진료 봉사를 실시했다. 강유신 기자

선암사 목조관음상 1년만에 제자리로

진위논란을 빚었던 태고총림 선암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상(전남 유형문화재 169호)이 본래의 자리인 선암사 원통전에 봉안됐다.

선암사(주지 금용)는 7월 29일 목조관음보살상 이전 봉안법회를 갖고 1년간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됐던 보살상을 원래의 자리인 원통전에 봉안했다.

종정 혜초 스님을 증명법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운산, 칠전선원장 지허 스님을 비롯 선암사 대중 스님들이 참석했다.

목조관음보살상 진위논란은 2004년 8월 선암사 스님 중 일부가 보살상을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으나, 태고종이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감정을 의뢰해 진불임을 확인받았다.

태고종, 불교교양대학 정비

‘준 종립대학’ 인가 등 각종 혜택 주기로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종단 내 불교교양대학 정비에 나선다.

태고종은 종단사찰 혹은 스님들이 설립 운영하는 사립 불교교양대학 현황파악을 위한 신고사업을 벌인다고 8월 10일 밝혔다. 이번 신고사업은 불교대학 운영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태고종은 교양대학 현황, 학사일정, 학교 정관, 학생 현황, 학생증과 수료증 양식 등을 자료화해 이에 입각한 행정편의와 각종 홍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가 완료되면 ‘준 종립대학’으로 인가하는 등 불교교양대학 지원 육성 계획도 세우고 있다. 태고종은 불교교양대학들을 묶어 연합회를 결성하고 졸업자에게 2급 포교사고시에 응시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동방불교대학 2년 편입시험 응시자격 등도 부여할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천태종 하안거 입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8월 11일 단양 구인사에서 을유년 하안거 입제식을 봉행하고 1개월간의 하안거 수행에 돌입했다. 9월 10일까지 계속되는 천태종 하안거 수행에는 2만여 명이 종도들이 동참하고 있다.

천태종은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의 생활불교론에 따라 재가신도를 위한 하안거와 동안거를 매년 마련하고 있다.

본원종 창종기념법회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9월 9일 오전 11시 평창동 총무원에서 본원종 창종 1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또 이날 오후 1시 중앙종회를 열고 총무원장 등 6부 원장 및 부장과 중앙종회의원 등을 선출한다.

총지종 1박2일 경로법회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8월 30~31일 아산 도고온천 도고유스호스텔에서 제6회 경로법회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 사원 소속 65세 이상 각자와 보살. 이번 경로법회는 입제식, 강연, 연예인 공연, 온천욕, 회향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이 행사와 관련, 노인의 목욕과 식사를 도울 도우미 봉사자를 모집한다. (02)552-1080

임제선학원 유식학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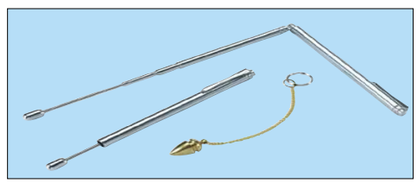
서울 임제선학원은 불교 유식학 강좌를 들을 학인을 모집하고 있다. 임제선학원은 8월 2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오형근 前 동국대 불교대학원장을 초청해 유식학 강좌를 연다.

불교의 유심사상이며 심리학인 유식학은 선(禪)의 이론적 요체를 담은 학문. 일반인도 수강이 가능하다. (02)496-3952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파 감정 개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그림1 맬토차단캡 그림2 모아짐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수다. 수맥탐지 기술만 배우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것이다. 氣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입금농협053-12-102911

관세음 수진언 옥환의 소망

자녀가 없어 고민하는 가정의 소원성취

평생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
지혜의 자녀를 얻는 영험



관음보문품경에나오는 관세음보살 42가지 수진언은 세상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 시켜주는 영험의 손이며 법구다. 세상중생들중에 가장 큰 고민은 자손이 없는 고민으로 관세음보살께서는 인연이 되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인연의 씨앗인 후손이 꼭 있어야 하는데 전생의 업보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기 위한 것이 관세음 42수주 영험중 17번인 관세음수진언 옥환이다.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얻고자(設欲求男) 관세음보살게 공양하면 복덕과 지혜를 겸비한 아들을 낳게 되며(便生德智慧之男) 가령 딸을 얻고자 하면 (設欲求女) 단정하고 훌륭한 상호를 갖춘 딸을(便生端正有相之女) 낳을 것이니라.**(관세음보문품경에서)

관세음수진언 옥환은 지혜의 자녀뿐 아니라 이혼하지 않고 평생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샘솟게 하는 영험을 담고 있다.불경에 입각하여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불교의식을 마치고 출시한 **관세음보살 옥환**을 부부가 베게속에 각각 넣고 평생 사용할 수 있게 99% 순 銀으로 만들어 졌으며 자녀가 없어 고민하는 부부, 후손을 기다리는 가정과,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신부 및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영험의 법구다. 전화로 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축원불공과 평생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에 대한 100일 불공을 드린다. **문의(02)741-4487**

수맥파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맬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는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키며 차단한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77**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들어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천연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못받을 돈이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버는등. 숫한 화제를 낳는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 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불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53-12-102911

가족과 함께하는 서악사 음악회 대구 BBS 공개방송
●출연 : 정수라, 해바라기, 김범룡, 조항조, 박경진, 장태민
●특별출연 : 도일스님, 일봉스님, 코리안팝스오케스트라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일시 : 8월 24일 오후 7시
장소 : 예천 서악사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주최 계율수행 대법회 현장

윤리와 법이 무너져 곳곳에서 믿기지 않는 사건 사고가 터져 나오는 이 시대.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계율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그 해법을 구해보는 법석이 열렸다.

8월 6일 오후3시 대구 팔공산 동화사 통일기원대전. 동화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손을 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대주제 아래 계율수행대법회의 막을 열었다. 계율을 주제로 한 최초의 대중법회로 평가받는 이번 동화사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강희락 대구지방경찰청장, 대구보건대 남성희 학장, 2군 사령부 권영기 사령관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해 계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계율로 행복찾기

날씨 35° 구도열 100°

'깨달음으로 가는 길' 주제…1500여 사부대중 운집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계율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깨달음의 길을 닦아가기 위해 8월6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열린 계율수행 대법회 입제식에는 1500여 사부대중이 동참 진지한 법석을 이뤘다.

"계율은 교통법규와 같은 것"

"사회에서 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딱딱하고 어렵고 엄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불교의 계율도 율사스님들만이 지켜나가는 그런 어려운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율은 교통법규가 있어서 차들이 마음대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10회에 걸쳐 열리게 될 계율수행대법회의 첫 법주로 법상에 오른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동화사 통일전을 울렸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좋은 행위를 익히고, 좋은 습관 좋은 성격을 형성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계율입니다. 곧 부처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지침이 되는 내용을 계라 하고, 잘못이 있을 때 벌을 받고 다시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율입니다."

쉽고도 차근차근하게 이어진 스님의 법문에 사부대중이 쏘옥 빨려 들어갔다.

"부처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부처님 삶을 배우세요. 많지도 않습니다. 딱 다섯 가지만 배워 실천하면 됩니다." 오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계율이란 나를 속박하는 틀로만 여겼는데 행복하기 위해 부처님 삶을 배우는 것이라는 스님의 법문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조수정 · 34 · 대구시 남구)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계율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덧 사라지고 등산복 차림의 한 거사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돋보기를 낀 한 노보살은 열심히 뭔가를 받아 적고 있다.

"아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래 익히고 몸에 배지 않으면 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는데 무엇부터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 대중들이 난감해하는 것을 눈치챈 듯 스님은 두 가지 숙제를 제시했다.

"불교의 기본 예법인 합장부터 바로 하세요. 신발도 반듯하게 벗어 놓으세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불자들의 얼굴엔 새로운 다짐이 역력하다.

서울 부산 등서 KTX 타고 참석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는 계율 수행을 주제로 한 최초의 대중 법회다. 한국불교 최고의 율사스님들이 법주로 나선다. 수행의 기본인 계율 정신을 되살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사회의 난제들을 풀어보자는 점에서 이미 불교계는 물론 사회의 주목을 받은 계율수행대법회는 대구의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열렸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온 불자도 있고, 부산에서 온 불자들도 있었다. 대구불교대학(총학생회장 오동규)은 매년 여름 개최하는 수련회의 일정을 계율수행대법회가 시작되는 날로 잡아 모든 재학생과 동문들이 참여하도록 배려했다. 거동이 불편한 대구대광맹인불자회원 10여명도 벼르고 별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대구 북구 노원동에서 왔다는 50대 거사는 "부인과 딸이 팔공산에 등산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아마 법회에 데려오려고 그런 것 같다"며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이날 최연소 참가자는 4개월 된 갓난 아기. 아기 엄마 김혜영(29 · 칠곡)씨는 "어머니 따라 아기를 업고 법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동래 전법사에서 온 비구니스님은 "이번 법회를 계기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길 바란다"며 시종 진지한 모습으로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폭염 속 4시간 동안 미동도 않고 경청

입제식과 종진 스님의 법문, 또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과 동국대 이자랑 선생의 논찬과 답변으로 무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법회였다. 찜통 더위에 1500여 불자들의 열기가 더했지만 참석자들은 시종 흐트러짐이 없었다. 사이사이 두 번의 휴식시간, 자리를 뜰 법도 하건만 대중들은 다시 통일기원대전을 가득 메우며 법회에 집중했다. 스님의 법문을 놓칠세라 열심히 메모를 하는가 하면 논찬문과 계율법회 안내서 등을 꼼꼼히 읽었다.

오후 4시를 넘기자 팔공산 자락에서 때 아닌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오후 6시30분 법회가 끝나자마자 대구에서는 보기드문 소나기가 퍼부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찾아 나선 불자들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일까? 법주스님의 법문이 시원해서일까?

대구 동화사/글=배지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이모저모〉

 # 오늘 법회는 최고! '3000만원 짜리(?)' 법회

박배의(대구불교대학 48학번) 거사는 "접수비가 3만원인데 오늘 법회는 3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법회였다"고 말했다. 박 거사는 "계율의 의미부터 부처님 당시 계율의 성립과정까지 쉽게 풀어주신 스님을 뵌 적이 없다"며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다.

 # "듣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이날 입제식에는 시각장애인들의 모임인 대광맹인불자회 10여명이 봉사자에 의지하거나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시선을 모았다. 맹인불자회 장재근(53) 거사와 정옥숙(61) 보살은 "계율법회에 참석하고 싶어 자원봉사자들에게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14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원봉사자 정만월(80 · 대구) 보살은 "맹인불자들은 특정법회에 가고싶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번 법회에는 관심이 많고, 열번 모두 참석할 뜻도 비쳤다"고 말했다.



대구 대광맹인불자회 회원 10여명이 이번 법회에 동참했다.

 # 종진 스님 "법회 10회 전부 참석하겠다"

이번 계율수행대법회의 첫 번째 법주로 나선 종진 스님(해인총림 율주)은 계율에 대한 일반 대중의 큰 관심에 적잖이 고무된 표정이었다. 법회를 마친 스님은 "이번 계율수행대법회가, 평소 계율에 대한 관심 부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아홉번의 법회에 모두 참석하겠다"고 밝혀 주위의 박수를 받았다.

 # 서울 향천선원 신도들 법회참가

정토사 만일염불회 서울분원인 향천선원 유광옥 보살 등 신도들도 KTX 고속열차를 타고 아침 일찍 동화사를 찾았다.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향천선원은 염불수행 전문도량. 평소에도 향천선원 신도들은 공부를 위해 전국의 유명법회를 찾아 정진한다고. 유보살은 "이번 법회가 평소 궁금했던 계율문제를 되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반가워했다.

 # 출가, 재가자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은 "계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대중들과 함께 법회의 자리를 갖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지만, 재가자와 출가자에게 설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출 · 재가자가 모두 동참하는 계율법회에 다소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재가불자들을 위한 법회와 출가 수행자를 위한 법회가 따로 구분되어 순차적으로 열린다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 기본부터 알고 禪공부했으면

최종수(51 · 대구동구 신천동) 거사는 "요즘 선수행 붐이 일고 있는데, 기초도 모르는 채 무모하게 덤비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 "선을 하기 전에 불자로서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지킬 줄 아는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 왔는데 이번 계율법회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9월 22일 출발(모집중)
티벳 성지 순례 8일
여행경비 : ₩ 1,89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포함)
왕자 싯다르타에서 깨달은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묘음에 밀교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태국 성지 순례 6일
여행경비 : ₩ 1,290,000원
화려한 황금빛 에머럴드 사원이 있는 부처님의 나라 태국과 부처님 재세 시 왕림하셨던 만달레이 언덕. 세계 최대의 연옥좌불상(6백톤) "로카찬다"미얀마 불교문화의 상징 "쉐다곤" 파고다 등 미얀마가 여러분을 불은(佛恩)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중국의 6조 혜능조사님을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90,000원
10명이상 출발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신나게 달려봅시다”



안양 운불련이 같은 생활권의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 지역의 불교를 통합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은 8월 2일 열린 강동수 8대 회장 취임 및 창립 11주년 기념법회 모습.

안양 운불련, 군포 · 의왕 · 과천 활동권역 통합

4개 지역 아우르는 통합 신도회 추진
교통 봉사, 쌀 나눔행사 등 전개 계획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안양지역회가 활동권역 확대와 지역불교계 통합에 나서 주목된다.

운불련 안양지역회는 안양시 뿐만 아니라 같은 생활권으로 통하는 군포, 의왕, 과천시를 한 권역으로 묶은 지역회로 탈바꿈했다. 안양지역회에서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지역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 안양지역회라는 명칭과 달리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에 회원을 고루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지역회(회장 강동수)는 4개 지역의 사찰신도회를 아우르는 통합신도회를 발족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직장 · 직능 신행단체가 지역불교 통합운동을 전개하는 사례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 운동의 출발은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지역회 지도법사단으로부터 시작된다. 도광(도광사), 성법(염불암), 혜원(한마음선원) 스님 등 안양지역 스님 3명과 군포시의 덕산(천지사), 성견(수리사) 스님, 의왕시의 성행(청계사), 덕문(용화사), 월중(대안사) 스님, 과천 보광사 종훈 스님 등을 지도법사로 추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지역회는 이날 추대된 지도법사단 모임을 통해 4개 지역의 불교계 화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불교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셈이다.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지역회는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어 지역 스님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합신도회 구성도 지도법사단 사찰의 신도회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운전기사 불자들의 지역불교계 통합 원력에 지도법사단도 적극 동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지역회는 또 회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개인택시 불교조인 ‘목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목조’가 생길 경우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휴무가 가능해 회원들의 법회활동은 물론 봉사활동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안양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안양시의 허가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 밖에도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지역회는 군포 매화복지관 교통봉사, 장애인 나들이차량 봉사, 사랑의 쌀 나눔행사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양 · 군포 · 의왕 · 과천지역회는 이같은 계획을 추진해 나갈 집행부로 고동호, 한성희, 박종규 부회장, 정수범 사무국장 등을 선출했다.

강동수(52 · 법천) 회장은 “질서와 예절이 있는 운불련, 열심히 일하는 운불련, 봉사하는 운불련,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는 운불련 등을 4대 지표로 삼고 지역불교 통합과 활성화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031)469-6300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직장인 위한 야간법회 연다

봉은사 9월부터 매주 수 오후 7시30분
반야심경 · 천수경 등 강의

서울 강남 삼성동 봉은사가 직장인을 위한 ‘열린 법회’를 개설한다. 특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불자들이 사찰에서 법회를 연 경우는 많지만 모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회는 봉은사가 처음이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직장인들을 비롯해 낮시간에 법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9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법왕루에서 야간법회를 연다고 8월 8일 밝혔다.

이 법회의 활성화를 위해 봉은사 신도지역조직인 6봉은도 함께 법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열린 법회’에서는 초발심자경문과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서울 강남 복판에 있는 봉은사의 지리적 여건을 살려 법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개설하게 됐다”며 “현대사회의 개인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일상에 찌든 생활인들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3218-4800

우리단체 이사람



고영순
자비신행회 부설 한꽃외국인노동자센터 팀장

외국인노동자 위한 다양한 기획 · 실무
아울려 교류할 수 있는 법당 건립 발원

광주 동신고 영어교사인 고영순(46 · 고불심 · 사진)씨는 지역에서 불자 외국인들의 대모로 통하고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불자 외국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때로는 해결사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광주 ·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4000여명. 이 가운데 절반이상이 네팔 스리랑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온 불자들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 의료, 복지도 문제지만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불자 외국인들이 낯선 땅에서 고향을 느끼며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사찰입니다.”

3년전, 대원사에서 외국인 템플스테이 통역 자원봉사를 하던 고 팀장은 자비신행회에서 외국인노동자센터를 개설하자 ‘물 만난 고기’가 되어 휴일도 없이 외국인노동자들의 고민들 들어주었다.

고 팀장은 센터에서 교육, 상담, 의료, 생활지원, 문화지원 교류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한국문화체험, 한국음식 만들기, 성지순례, 불교문화체험 등은 인기가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5월, 자비신행회가 지자체에서 시상하는 ‘좋은동네 밝은동네’ 대상을 수상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주부, 직장인으로써 바쁜 가운데도 불자 외국인 노동자 일이라면 최우선으로 정해 일하고 있는 고 팀장은 “항상 웃으며 낙천적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며 겸손해 한다.

광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이 모여 사는 하남공단내에 ‘이주 외국인노동자 법당 건립’을 발원하고 있는 고 팀장은 “외국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아쉽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교사와 약사, 기자 등 고학력자 출신들이 많아 그들이 이 땅을 떠나 귀향하면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관이 될 것입니다.”

이준엽 기자

마곡사 · 현대불교 공동주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아내의 손을 말없이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내 남편, 아내의 손을 잡아봤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서로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요? 자기 장점 50가지 쓰기는 부부에게 서로 몰랐던 부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서로에게 편지쓰기를 마친 뒤 눈을 감고 서로를 느껴봅니다. 손끝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집니다.

7차, 부부를 위한 템플스테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쓰는 일기는 어떨까요? 살뜰한 고백들이 넘쳐나겠지요. 8월 5~7일 공주 마곡사 연화당에서 열린 ‘부부’를 위한 7차 자비명상 템플스테이가 그랬답니다. 무뚝뚝한 남편들의 사랑 속삭임에 아내들은 눈물을 연신 흘렸습니다.

흔히들 마음이 열려야 사랑이 보인다지요.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낯설게만 느껴질까요? 그동안 바빴다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15쌍의 부부중 황금 같은 여름휴가를 이번 템플스테이에 맞췄다는 김용기(52 • 서울 도봉구 창5동)-김계희(49) 부부와 정도영(42 • 서울 양천구 신월7동)-서미영(42) 부부, 임신 중인 아내와 참가한 요가강사 이강언(38 • 서울 마포구 서교동)-송현정(26) 부부의 체험일기를 들여다 봤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럼 눈으로 대화하세요” 김용기(오른쪽) · 김계희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으로 대화하고 있다.

삶에 지쳐 손 한번 잡지 못했던
당신이 부처입니다

당신은 ‘불법을 담은 그릇’입니다

남편과 아내들은 첫날인 5일 서로에게 108배를 올렸습니다. 다들 머쓱해하더군요. 어떤 아내는 “40년 결혼생활에 남편에게 처음 절을 받아본다”고 했고, 어떤 남편은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하더군요.

그 중, 동갑내기 정도영-서미영 부부의 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나의 눈이 맑지 못해 당신이 불법을 담은 그릇이고 부처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절의 부처님에게만 절을 했죠. 매일 일과 스트레스을 달고 살던 당신에게 ‘더 사랑해달라. 더 아껴 달라’며 부담만 주었죠. 그런 제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론 당신이 부처님입니다.”(서미영)

물론 남편 정도영씨의 일기도 보았지요. ‘사랑하는 서미영!’이란 말부터 글머리에 쓰여 있더군요.

“항상 고맙고 든든하고 미더운 사람. 당신을 힘들게 해도 별 말없이 내게 힘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 용석에게는 친구였고, 내게는 늘 연인입니다. 여보! 이렇게 살아갑시다.”

대화 나누며 사랑 확인하세요

결혼 22년차 김용기(52 · 서울 도봉구 창5동) 김계희(49) 부부. TV에서 마곡사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본 아내 김계희씨가 먼저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108배가 끝나고, 곧장 ‘자기 장점 50가지 쓰기’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펜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내 장점을 찾지 못할까?’ 다들 한동안 상념에 젖은 채 펜만 들고 있습니다.

김계희씨의 일기는 이랬습니다.

“전쟁 치르듯 살았죠. 바쁜 나날은 정작 나를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시부모와 친정부모, 그리고 남편과 자식들이 전부였으니까요. 지난 해 가을, 당신이 교통사고 났을 때 이런 상상을 했었죠. ‘당신이 내 곁을 떠난다면’ 하고 말이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고, 두려움이 거침없이 다가왔어요. 순간 당신을 봤어요. 자고 있는 당신에게서 안심을 얻게 됐죠. 지금도 그 상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눈이 뜨인답니다. 여보! 건강하게 삽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 살아요.”

남편 김용기씨의 일기에서도 사랑은 물씬 묻어나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표현하지 못한 경상도 사나이를 이해해줘요. 그간 섭섭했던 점이야 하나 둘이 아니겠지만, 강물처럼 그냥 흘러 보냅시다. 앞으로는 당신과 나를 위한 삶도 삽시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됐듯이 말이오.”

사랑의 나무 가꾸며 행복하게 살아요

‘부부명상’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맨발 산행으로 진행됐습니다. 신발에 익숙했기에 무척이나 낯선 경험이었지요.

결혼한 지 6개월 된 이강언(38 ·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송선정(26)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우로 아침공양을 마치고, 15쌍의 부부는 맨발로 마곡사를 나섰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 걱정으로 남편 이씨는 잰걸음으로 첫 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덕분에 기자는 둘 만의 맨발 데이트에 불청객이 돼 버렸지요.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다른 커플처럼 ‘퇴근 후 짧은 연애’ 과정 없이 늘 붙어서 지냈으니, 조금은 심심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린 부부 같은 연인, 연인 같은 부부로 큰 다툼 없이 사랑의 나무를 가꿔왔잖아. 행복하기 그지없다. 당신의 마음을 다 헤아려주진 못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내 감정을 막연하게 다 알아주기를 바랐지. 그런데 이렇게 함께 걸으며 말을 나누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이강언)

“이번 부부명상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익숙함에서 낯설음을 발견한 거예요. 정작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서 알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눈으로 말하고, 입으로 서로를 듣기로 해요.”(송현정)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108배’ ‘새벽 숲길 걷기 명상’ ‘자기 장점 50가지 쓰기’ ‘서로에게 사랑을 보내는 편지 쓰기’ 등의 프로그램은 낯설게만 느껴졌던 ‘솔직함’을 익숙한 삶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지도법사 마가 스님(마곡사 포교국장)은 부부들에게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 줄 거라’란 기대감, 그것에서 오는 섭섭함. 그 과정을 왜 겪으려 합니까? 미세한 간극은 부부간에 독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물으세요. 눈과 입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야 서로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글 · 사진/마곡사=김철우 기자



맨발로 산에 올랐습니다. 모난 돌들로 발바닥은 얼얼했습니다. 내딛는 발걸음이 흠칫 놀라 머뭇거리기만 했지요. 하지만 꼭 잡은 당신의 손은 포근한 진흙이 돼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친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13~6 /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원.예술대학
사)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준 보유자 진하 큰스님

※ 제반의식교육 실시
각 사찰 모든 행사를 성심껏 사정에 따라 진행함
기초 불공의식 · 천도재 · 49재 · 바라무 · 작법무
051)556-1715 진하 문도회장 대명 합장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특유의 관정비법으로 전수합니다.

전화: 02)720-5719/720-5682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각	사	작법	경
안	49	륙	시		나비	
식	재	재	식	물	춤	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률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연꽃그림에 부처님말씀 담아 드립니다
한지에 한국화(미표구)
- 크기 : 소, 중, 대,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선물용, 판매용
- 전화주문 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 착수 등기 속달
- 입금 계좌 : 농협 150039-56-064426 이상근

연꽃화가 018-588-5698 안동 하회마을 입구 한지마을

5천만원이내 수좌의 보임 토굴(터)를 구합니다
▷ 석보각
010-2379-214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지리산
016-483-563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
011-9723-0967

어 린 이 집
스님, 선생님 모십니다
019-579-0404
055)635-3248

사찰 부설 유치원 (제주시)
부식 담당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완비)
011-692-5630

사찰운영(동업) 같이 하실분 모심 (스님 처사 보살)
1. 위치: 경주 2. 사찰규모 :
(토지: 약3,500평, 건물: 330평)
3. 참여하실분(소자본 투자가능 한분 사찰부동산 같이 등기함)
4. 교통 환경 너무나 좋습니다
010-7228-4817

법당에 계실 신심있는 노보살님 모십니다 (무보시)
▷서울 송파구
02)409-01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일산,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40대 후반에서 50대)
018-363-119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평택
031)682-558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절에서 상주하실 분(50대 전후)
▷ 구파발 시연사
011-261-0572
02)352-0572

공양주보살님 행자모십니다
▷대구광역시, 조계종 사찰
053)653-7558
011-9364-2426

사찰 총무직을 하실 신심있는 불자를 구합니다
▷PC가능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0-3131-1094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576-2737

종무소 직원 구함
신심있는 불자로서
홈피관리,
문서작성에 능한 30세 이하
부산 011-584-353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나이 60세 이상 노부부를 모십니다)
▷강원도 평창
02)582-8609
02)581-860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60대)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031)571-5424
011-746-8698

주역과 사주를 통달한 60세 비구입니다
스님없는 절의 보살님에게 비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병든 노비구스님을 시봉할 신심있는 보살님을 찾습니다
010-9484-7693
문수스님

산세수려한 산사에서 기도스님(부전)으로 살고자 합니다
010-4520-6787

기도스님, 행자(남,녀) 스님되실분 모십니다
▷ 부산
016-9730-3003

스님공부와 역학 공부를 하실분 (처사구함)
041)857-8606

행 자 모 집
천년고찰이며 전통수행도량인 본 사찰에서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신심과 원력을 가진
수행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설악 백담사 033)462-6969

氣
절대 말이나 이론으로 하는게 아니고 몸으로 수련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오세요.
제1기 전문 기수련인 모집 (선착순 0명)
- 모집대상 : 스님 및 전문 기공인이 되고자 하는 분, 일반수련생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하실 분)

천지도법 기공협회 053)754-0082 / 011-549-8130
(대구 동부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관음기도 성취도량
- 교통 사통팔달 산세수려 기도하는 분위기
- 최신식 실버타운 심신수련 기도처
- 독방사용, 숙식제공, 저렴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 편안하게 모셔드립니다 ●선착순

010-9367-5982
주지 법사는 관음기도로 가피받은 사찰임



금강정사 행운 달마도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모아주는
해룡스님의 선필 달마도
서울 용산구 한강 3동 65 금강정사 해룡스님 합장
02)795-4840
010-6667-4843
서울지역상가 무료 염불 해 드립니다

자연 야생 운지 버섯
- 하곡환 – 당뇨 측정기
- 상곡환 – 혈압 측정기
- 생인환 – 간 검사 티켓

무료 제공
제품에 자신 있어야 측정기 무료 제공
생인당 011-9882-1526 / 051)206-5567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전국 제일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학력,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 배출기관
- 최첨단 시설

▶행자(예비스님 남 · 녀)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 – 45세미만,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우학스님 – 직접 강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대구도심사찰 최초! 남골당 운영
문의전화 : 053)474-8228 011-9852-0075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실전사주명리학
200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모 집 과 정

과정 / 강의시간	강 의 내 용
실전사주명리학 특별속성과정 (9월 2일 개강) 금요일 10:30 ~ 13:30 15:00 ~ 18:00	· 사주명리학 : 김동현 교수 · 관상, 성명학 : 김동현 교수 · 육효, 구성학 : 김경표 교수 · 수 강 료 : 100만원 (16주)
실전사주명리학 초급 (9월 1일 개강) 목요일 10:30 ~ 13:30 (16주 : 30만원)	· 담당교수 : 김동현 동양 전통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음양오행의 변화와 역의 원리를 통한 대자연의 이치인 (천,인,지 사상) 하늘.사람.땅의 이치를 깨달으며 사회관, 국가관, 세계관을 통한 자아를 발견하고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한다. 또한, 단순한 길흉화복만을 예견하는 운명학 차원을 넘어 역학을 통한 각자의 인연의 법칙을 알고 도덕성과 가치관을 정립하며 모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실전사주명리학 중급 (9월 1일 개강) 목요일 15:00 ~ 18:00 (16주 : 30만원)	
실전사주명리학 연구 (8월 30일 개강) 화요일 14:00 ~ 17:00 (16주 : 30만원)	

모 집 안 내
▷ 접수 및 등록기간 : 2005. 6. 27 ~ 8. 26
▷ 수강대상 : 일반성인 남 · 여 / 학력 제한 없음
▷ 개 강 : 2005년 8월 마지막주 (총 16주 : 4개월)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사진(3cm×4cm) 2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www.dongbang.ac.kr 김동현 교수 : 017-704-8373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02)745-2142

문화관광부 템플스테이 사찰
경기도 슬로우푸드 명소로 지정된 원효대사 오도성지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기도스님 모십니다.	
행 자	불심깊은 미혼 독신자 男행자 모집합니다.
공양주 보 살	신심과 건강을 갖춘 55세이하의 공양주 보살을 초빙합니다.
종무원 남 · 여	PC가능(홈피관리), 운전가능자, 사찰에서 숙식가능한 분 (단, 평택지역 거주는 출퇴근 가능)
사찰음식 조리연구원	사찰음식학습관 보조, 연구원 및 실습생 모집합니다.
템 플 스 테 이	몸과 마음을 맑고 건강하게 하는 수도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emplefood.co.kr 게시판 참조)
사찰음식 수 강 생 모 집	54기(화요반), 55기(토요반) 수강생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emplefood.co.kr 게시판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수 도 사
문의 연락처 031)682-3169. 681-7732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밀양
- 법당 : 15평
- 요사 : 50평
- 부지 : 35,000
- 가액 : 5억7천

- 위치 : 부산
- 법당 : 30평
- 요사 : 20평
- 부지 : 76평
- 가액 : 1억8500

- 위치 : 부산
- 법당 : 24평
- 요사 : 5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3억 6천
- ※ 일반 부동산 및 사찰 교환가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①분당목조사찰-9억5천
②강남포교당85평-월200만원
③판교근처사찰140평-11억
④판교근처나대지100평-6억5천
⑤관악산 150평-4억5천
⑥광명사찰350평-12억
◆ 1억~10억사찰많음.투자상담
※ 직원,공양주,기도스님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충북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 천년고찰 아래 마을
- 건물 : 주택 30평, 불상 모심 대지 500여평, 1600여평
- 가액 : 2억

043)832-6144
043)832-2090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강서구 녹산동 부근 경내에 500년생 괴목 2그루 (부산시 보호수)있음. 420평
- 법당. 요사(큰방1, 각방3) 등기필
- 가액: 3억 2천만원

010-5655-1250
051)973-4562
051)941-8989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북구 구포시장내 요지
- 2층건물 66평
- 법당, 방3개 전세 3천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17대 주차가능

051)364-4889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1천 5백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 평수: 110평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시설비 별도)

※ 능력있는 분에게 좋은 조건으로 양도

011-436-0097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층건물중 2층 전철역 도보 3분거리
- 평수: 45평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9-477-6674

절터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
- 대지: 2000평
- 2차선 도로접, 해발 700m 건축가능
- 가액: 1억원

011-292-3073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랜드지역
- 토지면적 2450평 건축허가면적 1000평 (팔각대웅전60평,팔각지장전 30평) 총공사비 소요 5억
- 가액: 3억

061)783-0408
018-312-0108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평창
- 부지 : 5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3억

※산세 및 계곡 좋음

- 위치 : 서울시내 지하철역 100m 내
- 부지 : 62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
- 가액 : 10억

※역사 깊은 도심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강릉 I · C 부근 천혜의 소나무 자연 조경
- 부지 500평, 노천 미륵법당
- 법당 30평, 요사 30평, 산신각
- 가액 : 2억 (융자 6천만원 포함)

011-452-8374
033)644-3149

포교당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신정동
- 지하 1층 60평, 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는 스님 불사관계로
- 능력있는 분에게 좋은조건으로 양도

011-9511-8656

암자 터 안내

- 위치: 경주시 산내면 건천I.C에서 10분거리
- 평수 : 1,160평
- 건축허가면적- 주택 25.7평, 창고 14평
- 가액 : 평당 7만원

※ 조용하고 물이 좋음

055)337-7774

포교당 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37평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 답사후절충 (집기일체)

043)211-7893
019-656-2766

사찰 안내

- 위치: 대전시내
- 대지 905평, 전 150평, 임야 320평, 총 1,375평 임야 전은 현재 주차장 밑마당으로 사용중이며 언제라도 건축을 하면 대지로 전용 할 수 있음.
- 법당은 새건물이며 시멘트슬라브 기둥세워서 2층으로 올릴 수 있음.
- 1층 120평, 지하 40평, 요사채 구옥 시멘트슬라브 약 40평 • 가액 : 15억

011-209-7420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구미시 소재
- 부지 : 140평(3층 건물중 3층)
- 법당 : 100평 (방4개, 옥상 사용 100평)
- 가액 : 1억 9천만원
- 특징 : 도심 포교당으로 법당 시설비만 1억이 투자된 멋진 도량임

- 위치 : 부산광역시
- 법당 : 60평(방2개)
- 보증금 :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3000만원
- 특징: 지하철역세권으로 시설 A급 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 평수 : 33평, 시유지 20평
- 법당, 요사,부엌별도 • 가액 : 7천 7백만원

016-796-6216

- 위치 : 충북 청원군 낭성면
- 대지 : 466평, 2층 법당 26평
- 요사 : 26평, 창고 30평 • 가액 : 1억 6천

016-467-5822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남일면
- 법당 요사채1동 방3개
- 가액 : 6000만원

010-9537-0108
043)296-4480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정릉 유원지 입구)
- 3층 약50평
- 시설일체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천만원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

011-9725-3196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옥계면
- 대지 150평, 전 430평
- 가액 8천5백만원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가액 : 500만원에 월35만원

010-4841-349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토굴안내

- 위치: 지리산
- 전기, 길없음
- 문의전화

055)884-5763

암자 안내

- 위치: 경남 함양군 안의면 부근
- 심야전기보일러 물좋고 산세수려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1-455-6208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 2층 접견실, 스님방, 큰방 3층 법당(삼본불,지장보살, 산신각)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월60만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모든 시설 완벽

010-3167-2774

사찰 안내

- 위치: 경기지역
- 단독2층 법당 30평 1층요사: 50평
- 전세 보증금 3천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특징: 30년 전통사찰

031)536-101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부지: 사용 삼백평 등기는 백평
- 법당: 18평 기와 단청됨 남향
- 요사: 23평 외 7평 기와 동향 용왕전 3평 약수물이 좋음 산신각 3평 산이 힘있는 도량임
- 미륵부처님 11자 석불로 모셨음
- 절 뒤로는 산이고 앞으로는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청정도량임
- 집기일체 구비되고 몸만오시면 됨
- 가액은 일억 이천만원 급 안내임
- 절은 20년쯤 되고 추천하는 사찰임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원 안 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 대로변, 역세권 유동인구 많고 위치 최고 좋음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배란다.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7324-51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
- 평수 대지 260평(평당 250만원) 건평100평
-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뜨는 경관수려한 사찰 1급지입니다. (부산, 울산 30분소요)
- 가액 : 6억 (융자 1억8천만원), 절충가능

011-9512-5118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역 2분거리, 시장내 위치
- 3층 건물 중 2,3층 2층 법당 사무실 스님방 3층 요사채 방3개, 공양간 거실, 시설 일체 완비
- 시설비 1700만원(절충가능)
- 가액 : 2층만 사용시- 1천만원, 월80만원 2,3층 사용시-1천만원 월 100만원

019-9264-7000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220평, 건평 60평 법당, 요사채 2동
- 전세 : 2억5천(절충가능)

02)762-2204
02)745-6939
011-244-2083

사찰부지안내

- 위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전주시에서 15분거리
- 평수: 23000평 능립지역 19400평 관리지역 3600평
- 가액: 평당 15000월 평야 5~6천평
- 용도: 사찰, 납골당
- 계곡이 흐르고, 도로접, 등산로

011-681-6927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대지: 70평, 건평: 20평 뒤는 산, 앞은 바다 마을 인접
- 가액: 4천만원

055)672-287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읍 5분거리
- 대지 : 60평 사용가능평수 300평이상
- 시설 : 법당, 산시각, 공양간, 삼존불
- 전세 : 3천만원 양도가액 : 5,500만원
- 기도하실 스님에 매우 적합 몸만 오시면 됨

011-9394-1215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 600평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교통편리, 산세위치 수려함, 신축건물 고건축
- 가액 : 4억5천만원 (절충가능)

011-530-8490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4동
- 법당 : 약 40평
- 부지 : 약 300평 (국유지)
- 가액 : 3억원

016-237-3006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대구,진주고속도로 공사중)
- 대지 100평.
- 건평 : 본채, 요사채, 방4개, 입식주방, 욕실2개, 창고1
- 합천읍 5분거리, 50호 촌락
- 가액 : 5천만원(절충가능)

055)932-9917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4호선 7호선 교통요지
- 평수: 45평(2층건물 중 2층) 옥상 사용가능
- 시설: 큰법당 큰방2칸 큰주방 삼존고불(동불) 고좌대, 후불, 신중, 산신 영단 아미타변상도
- 최고시설 전혀 손 볼일없음
- 가액: 보증금 1천5백만원 월70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 새벽예불 올릴 수 있으며 몸만 오셔서 수행하시면 됨

010-4859-8472
02)598-8472~3

암자(토굴)안내

- 위치 : 원주시 원주터널에서 10분, 서울에서 1시간
- 종교부지 800평외 320평 보궁20평,법당30평,산신각, 미륵대불,3층석탑, 요사채50평, 정남향
- 산세수려, 아늑한 도량, 30년된 사찰
- 가액 : 4억8천만원(절충가능)

010-6213-5949
011-361-0516

불교 유식학 강좌 학인 모집

불교의 유심사상이며 심리학인 유식학은 유심식관이요, 진여실관인, 禪의 이론적 요체를 담은 학문입니다. 수행은 세세생생 하는 것이요, 교학이 갖춰지지 않은 수행은 이론이 없는 종교와도 같은 것이니 뜻있는 동참 수학의 유연 도반을 모십니다.

◆ 강 사 : 오형근 박사 (동국대학교 前불교대학원장)
◆ 강의과목 : 유식학 (전과정 마스터)
◆ 개 강 : 2005년 8월 25일
◆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법회일은 금요일)
◆ 학 기 : 2학기 (방학 없음)
◆ 대 상 : 스님, 일반인 (종파 관계없음)
◆ 접 수 : 8월 15일까지
◆ 문 의 : 02)496-3952~3

한국불교 임제선학원

사찰 (급) 안내

서울시내 최적의 요지에 위치한 1백년 역사의 사찰로써, 급박한 사정에 의해 매매코자 하오니 사찰운영을 본의로 하는 원매자가 있으면 상담을 요합니다. 중개인의 개입은 사절합니다.

- 대지 : 1천여평
- 건물 4동 (대웅전, 요사채 등 대형건물)
- 주변 환경이 뛰어남.
- 매매즉시 등기 이전 가능 함.

연락처
010-2559-9487
011-573-0108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신 흥 사
- 대표자 : 전 진 욱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남천면 흥산 2리 432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공고함

2549(2005)년 8월 5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지난 538호(8월10일자)에 게재한 위 탈종공고 중 대표자이름이 잘못기재 되었습니다. 이에 수정하여 다시 공고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국불교학회 여름 워크숍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8월 8~9일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 여름 워크숍이 본사 부설연수원에서 개최됐다. 한국사회에 대한 불교적 진단을 시도한 이번 워크숍은 불교의 참여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김성철 동국대 교수(불교학)의 '불교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 줄기세포 연구' . 참석자들은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김 교수의 불교적 고찰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윤영해 동국대 교수(불교학)는 한국 기독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불교 발전의 길을 모색했고, 정기문 강원대 교수(경제무역학부), 이동한 충북대 명예교수와 서재영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은 각각 경제 · 정보화 · 환경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뤘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분석을 제시했다.

불교의 눈으로 본 한국사회는?


정기문 교수


이동한 교수


윤영해 교수


김성철 교수


고유환 교수


서재영 연구원

김성철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고찰' 주목 받아
종교 · 경제 · 환경 · 생활방식 · 윤리 문제 진단

●유전자 조작, 윤리 문제없다

김성철 교수는 해박한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줄기세포연구 절차를 세세하게 설명하며, 불교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복제인간이 탄생한다 해도 불교의 업 이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대목.

김 교수는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유전자 조작이 문제될 것은 없다"며 "오히려 과거의 미신적 생명관에서 벗어나 무상 · 무아 · 공 · 연기의 진리에 접근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유전자 조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살생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 중음신이 부착돼 형성된 생명체이기 때문.

하지만 "황우석 교수(서울대 수의학과)의 연구방법에서는 정상적인 수정란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살생 문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난자와 정자 결합이 아닌,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를 주입함으로써 줄기세포를 얻는 황 교수의 연구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수정란은 자궁내벽에 착상도 되지 않을뿐더러 생명체로 발전하지도 않는 유사(類似)수정란이라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사수정란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날 무고하게 죽어가는 실험용 동물이나 가축들에 대한 살생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밝힌 김성철 교수는 "원칙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육식을 금하고, 동물실험도 모두 중지하는 것이나 그런 최선의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차선책이라 할 수 있는 살생 악업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제인간에 대해서는 "나와 시간을 달리하여 탄생하는 '일란성 쌍둥이'로서 '신체를 이루는 업종자(業種子)'만 나와 유사한, 독립적 인격체로 보면 된다"고 설명하며, "복제 자체의 문제보다는 인간이 장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병욱 고려대 강사는 "불교에는 요의경(了義經)과 불요의경(不了義經)이 있어 중음신에 관해 쉽게 합의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음신 개념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중음신을 생명과 별개가 아닌 생명의 한 단계로 설명하는 티베트 쫑카파 스님이 중음신 개념을 회통한 바 있다"며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독교 성공요인 '봉사'

윤영해 교수는 필리핀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인 한국에서 기독교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며, 종교발전의 전망을 내놓았다.

윤 교수에 따르면 기독교가 한국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은 △기독교를 통해 미국문화를 이식하려는 미국의 책략 △미국에 의해 기독교신자인 이승만이 선택된 정치적 상황 △기독교가 근대문명과 동일시 된 점 △문화적 사대주의 △선교와 사회봉사에 치중한 공로 등이다.

이 가운데 윤 교수는 특히 기독교계의 교육 · 의료 분야 봉사를 높이 평가했다. 즉 기독교의 고도성장은 한국사회 현안에 기독교가 헌신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에 반해 불교 등 전통종교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기독교의 그런 헌신적 노력은 90년대 들어 이기적 욕망충족으로 변질되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은 역기능은 종교가 외면당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같은 현상이 불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윤 교수는 "불교가 무소유의 승가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개인적 위안거리 서비스에 안주하며 시대의 불의에 과감하게 맞서 싸우지 못한다면, 그리고 집단적 이기심에서 벗어나 환경 · 생명 · 통일 · 분배 등 사회현안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퇴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토론에서는 문화재관람료, 불교식 통과의례 등 불교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 한 참가자가 사찰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찰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윤영해 교수는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며 부정적 효과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철 교수는 "에스키모가 전통을 잃게 된 결정적 계기는 캐나다 정부의 지원금이었다"며 "외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본연의 생명력은 잃게 된다"는 말로 포교와 수행 등 사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불교적 경제 운용방식은?

정기문 교수는 경제운용방식에 불교적 개념의 도입을 시도해 관심을 모았다.

정 교수는 "무소유란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극단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다"고 해석하며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장제일주의와 관련해서는 윤회사상을 끌어들여 대안을 찾았다. 즉 "생산량의 증가, 물질적 풍요 등 직선적인 성장개념에 따르면 성장제일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뒤,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환이 원활한 건강한 경제"라며 "경제의 순환성을 인식해야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화' '기술의존적 삶' '소비문화'를 현대한국사회의 주된 현안으로 규정하며, 생태철학적 접근을 시도한 서재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은 "도시화가 일회적 소비와 재생불능의 폐기로 이어진다"며 "자연과 동화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템플스테이와 단기출가 등을 통해 불교적 삶의 양식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과 불교사상의 친연성에 초점을 맞춘 이동한 교수는 "컴퓨터 운용시스템은 불교의 유식론에서 말하는 인식의 사분설(四分說)과 흡사한 모형으로, 인간에 가까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유식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 전문가 고유환 교수는 "한반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관계국가들이 제로섬(Zero-sum, 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쪽은 손해보게 되는 상태)이라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불교의 가르침인 상생과 공존의 논리가 긴장 완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2>

윤회와 영생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특히 인간의 줄기세포를 체세포(우리 몸의 각 부분으로 분화된 세포)로부터 배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 발전이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리카락, 뼈와 같이 각 부분으로 분화되기 전인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즉 몸의 어느 부분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은 세포의 노화나 암 등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람의 사망이 몸의 모든 부분이 동시에 사망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어느 한부분의 노화나 이상에 의해서 초래된다는 점에서 줄기 세포의 가능성은 엄청나다. 이상이 생긴 세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장기를 당사자의 줄기세포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면, 사람의 수명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다.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세포노화의 원인규명이나 스스로의 수명을 아는 세포의 메커니즘을 속이는 방법발견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는 이유다.

줄기 세포 배양에는 인간의 난자가 이용된다.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배양하고자 하는 세포핵을 삽입한 후 전기 충격 등을 행해 주면, 세포핵은 자기가 배아 세포인 줄로 착각하고 다시 분열을 진행한다. 실험을 위해서 난자를 이용해도 되는가에 대한 윤리적인 우려, 그리고 계속 분열을 시키는 경우 결과물로서 인간이 복제될 수 있는 점(최근에 개는 복제했다)에서 큰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복제를 창조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서 싫어한다. 인간뿐 아니고 삼라만상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전통을 가진 불교에서 생명 복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상스러운 일이다.

아마, 생명복제라는 과학적으로 복잡한 문제와 깨침의 전통과의 접점을 찾는 데서 생기는 어려움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무한히 자기의 DNA같은 생명체를 계속 만들어 내는 것과 인간이 추구했던 영생은 같은 개념일까, 다른 개념일까. 자기의 체세포로 복제된 눈이나 귀, 그리고 뇌세포를 갈아 끼움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인간의 '고'는 없어지는 것일까.

고장난 장기 갈아 끼우는 시대 눈앞에
무한히 죽지 않고 산다고 행복할까?

십년 전만 해도 하지 않아도 될 고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다. 불교도에게는 다시 한번 부처님 법에 대한 전진적인 이해의 단초를 제공할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자. 과연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이 그렇게 추구했던 영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한히 죽지 않고 산다는 가능성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숙제에 부딪칠수록, 육체가 나고 죽는 것이 생사가 아니라 '한 생각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을 생사라



그림 : 문병성

2005학년도 불교지도자 과정 제6기(3년) 신입생 모집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과 목	제 출 서 류	개 설 경 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통신 각30명) 대승경전학과(주간,통신 각20명) 근본불교학과(주간,통신 각20명)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화엄경 약찬게, 유식 30송 삼국유사 안반수의경	활안스님, 묘주스님 김상현 교수 최종남 교수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 일시 및 장소
①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①입학원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반명함판 사진 3매 ④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자기소개서 1통	2005년 8월 1일 ~9월 5일(월) [서류전형]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5년 9월 5일(월), 6일(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5년 9월 8일(목) 오후 4시
• 대승경전학과 : 2005년 9월 6일(화) 오후 2시

4.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대학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3년과정)9월6일개강 신입생 모집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 티베트어강좌(2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불교학과] 2005년 8월 5일 ~9월 5일 입학금 200,000원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서류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학과정규반) : 8월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주간반) : 8월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 : 9월 6일(화요일) 개강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미술학과) : 9월 7일(수요일)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문학과) : 9월 8일(목요일)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례문화학과) : 9월 6일(화요일)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티베트어강좌) : 9월 8일(목요일) 개강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2005 학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불교한글의식교육원

과 정	기간	요 일	법 사	내 용
• 토요정규반	2 년	매주 토요일(오후 3시~5시40분)	만춘스님,문종순법사	이론,실기
• 수요야간반	2 년	매주 수요일(오후7시 ~ 9시)	양성도, 민병홍법사	실 기
• 목요주간반	2 년	매주 목요일(오후12시 ~ 1시40분)	문종순 법사	실 기
• 바 라 반	2 년	매주 금요일(오후 3 ~ 5시)	지도스님	실 기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30명(2년) • 바라반 30명(2년) • 주간반20명(2년) • 야간반20명(2년)	• 한글불교의 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반명함판사진3장	2005년 9월 3일까지 토요일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3:00 ~ 5:40 •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야간반) • 매주 금요일오후 3:00 (바라반)

3. 개강일시 2005년 9월 3일(토) 오후 4시30분(정규반)
7일(수) 오후 7시(야간반)
8일(목) 오전 12시(주간반)
9일(금) 오후 3시(바라반)

4.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5.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경전대학원 ·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일주문



상월원각대조사기 배구대회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8월 21일 단양 공설운동장에서 상월원각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를 개최한다. (043)423-7100



불로사 거사림 창립법회서 법문

중앙승가대학장 종범 스님은 9월 3일 오후 6시 구미 불로사(주지 현오)의 거사림회와 합창단 창립법회에서 법문한다.



통일법당 하계 수련법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법타 스님은 8월 20~21일 영천 은해사에서 평불협 통일법당 하계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1544-0408



가족사진 경연 응모

경주시장애인복지관장 종광 스님은 8월 26일까지 가족간의 화목을 다지고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사진 경연 응모를 받는다. (054)776-7522



'…우리들의 삶' 주제 토론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8월 25일 오후 7시 서울 사무실에서 '3차 오일쇼크와 우리들의 삶' 주제 토론회를 연다. (02)576-1866



화계사 청년회 여름수련회

서울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은 8월 26~28일 전남 구례 화엄사에서 청년회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02)902-2663



뉴욕 세계한민족포럼 개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은 8월 12~15일 미국 뉴욕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제6회 세계한민족포럼을 개최했다.



BBS '불교강좌' 프로 진행

보령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은 8월 10일부터 불교방송 '불교강좌' 프로그램(오전 6시부터 25분간)을 맡아 진행한다.



원효사상 주제 강의

동국대 김상현 교수는 8월 17일부터 5주간 수요일 오후 7시 서울 구기동 삼성출판박물관에서 '원효사상' 주제 강의를 한다.



평양에서 단독 콘서트

불자가수 조용필 씨는 8월 23일 오후 6시 평양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광복 60주년을 기념한 단독 콘서트를 연다.

"계율은 수행의 시작이고 끝"

계율書 '비나야장의 요체' 발간 천운 스님

"계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계율에 의지하여 정진해야 하건만 계를 받는 이는 있어도 지키는 수행자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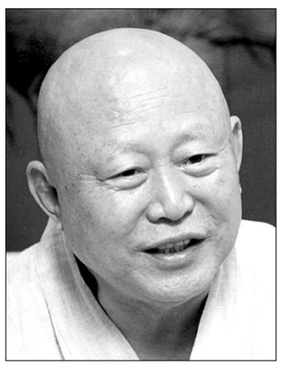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대종사인 천운 스님(대흥사 조실 · 사진)이 하안거 해제에 앞서 계율의 근원을 밝히는 <비나야장(毘奈耶藏)의 요체>(한결문화사 刊)를 발간했다.

"'늙은이가 왜 갑자기 계율을 들고 나서는가?' 할 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 수행의 시작과 끝이 계율임을 절실하게 느낀다"는 스님은 "후학들에게 법다이 넘겨주고자 계율의 요체를 밝혀 서술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책의 서문에서 "계율은 부처님이 제정하신 법으로 출 · 재가 수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활규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면 견성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님은 "계, 정, 혜 삼학도 결국 '계율없이 선정없고 지혜도 생기지 않는것'이다"며 "죄가 있다면 뼈아프게 참회하여 하루빨리 보리도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이 발행한 <비나야장의 요체>는 '계율의고찰' '율장의 성립' '율종의 개요' '사분율의 계상'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행자가 소홀하기 쉬운 계율의 구성과 정신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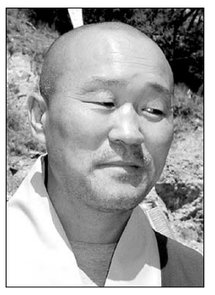


지계제일 우바리존자의 율장정신을 본받고자 대흥사에 우바리율원을 준비중인 스님은 이번에 발행한 책을 각 율원과 선원, 강원, 신행단체 등에 무료배포할 예정이다. (062)375-7600

이준엽 기자

100일간 감로법문으로 정법의 삶 안내

제15회 백고좌법회 여는 실상 스님



"여러모로 바쁜 가운데 준비한 백고좌법회이지만 어느 때보다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4년 이후 매년 백고좌 법회를 여는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사진).

스님이 다시 제15회 백고좌 법회를 마련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3천평 규모의 불교종합복지관 불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불도저 스님'이란 애칭처럼 묵묵히 준비한 백고좌법회다.

입제식은 8월 20일 오전 11시. 11월 30일까지 봉행되는 법회에는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 등 대덕 스님들이 화엄경과 법화경, 계율에 관한 법문을 들려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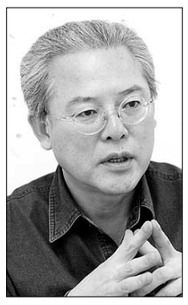
실상 스님은, 불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열린도량' 건립의 원을 세우고 백고좌 법회 기간 동안 토요일마다 '작은 음악회'도 함께 연다.

"대작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고좌법회를 잠시 미루는 게 어떠냐"는 주위의 만류에도 스님은 "불사 회향을 앞두고 더욱 백고좌법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쁘고 어려울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소중하고 절실한 법"기 때문이다. 스님은 "회향 28일 전부터 매일 법화경 야간법회도 동시에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053)766-3747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제14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고 현 조선대 교수



은정희 前 서울교대 교수



제14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로 학술 역경분야에 은정희 교수(前 서울교대), 예술분야에 고현 교수(조선대)가 각각 선정됐다.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은정희 교수가 평생을 원효학 연구에 매진해 원효 스님의 주요 저술을 대중적으로 역주하는 등 한국전통 불교학 연구에 크게 기여했고, 고현 교수는 불교미술을 그래픽디자인이라는 현대미술과 접목해 불교회화의 새 장르를 개척하고 현대화 대중화에 일조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8월 10일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 부상으로 죽비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9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안암동 승가원 강당. (02)586-6521

강지연 기자



월정사 스님 · 가톨릭 춘천교구 신부 '즐거운 족구 한판'

네트를 앞두고 스님과 신부가 한 판 대결을 벌였다. 평창 월정사 스님들과 가톨릭 춘천교구 신부들이 8월 6일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둔치에서 족구 시합을 한 것이다.

'제2회 오대산 월정사 주지배 평창군 족구대회' 시범경기로 열린 시합은 4명이 한 팀을 이뤄 3세트 경기로 치러졌다.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은 승복을 입고, 신부들은 사제복에 반바지 차림으로 경기에 나서 응원 나온 양 종교의 신도들과 주민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시합 전에는 스님들의 우세가 점쳐졌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첫 번째 세트는 한 번도 연습한 적이 없다는 신부들의 승리로 돌아갔다. 두 번째 세트는 한 번 연습한 적이 있다는 스님들의 승리. 승부를 결정짓는 세 번째 세트는 듀스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다시 신부들의 승리로 끝났다.

춘천교구 교육국장 오세민 신부는 "스님들이 자비를 베풀어 사정을 봐 준 것 같다"며 겸손해 했고, 월정사 재무국장 법상 스님은 "아주 오래까지 기억에 남을 시합"이라고 즐거워했다.

경기가 끝난 뒤 스님과 신부님들이 같은 팀을 이뤄 평창지역 유지들과 친선 게임을 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스포츠 · 문화행사 등 신나는 축제로

한강행복문화축제 여는 김진관 조계종 서울신도회장

"상반기에 연등축제가 있다면 하반기에는 한강행복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 김진관 회장(사진)은 한강행복문화축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한강행복문화축제는 10월 1일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수변마당 일대에 달마마라톤대회, 걷기명상, 환경캠페인,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행사.

"달마마라톤의 경우 5km 10km 하프코스에 이어 올해는 30km 구간을 신설했는데 가장 신청자가 많다"며 "5km의 경우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찾아와서 골인해야만 완주로 인정하는 등 재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기존 마라톤 대회와 차별화하기 위해 선수들이 마라톤에 참여하는 동안 나머지 가족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풍물을 비롯해 선무도 군무 시연, 스포츠 댄스 등 문화행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환경캠페인은 국제환경문화연대(NGO) 출범으로 시작된다. 한국수중환경협회의 후원으로 수중 쓰레기 건져 올리기, 환경사랑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환경문화연대는 일반 환경단체와 불교산악회, 사찰 신도회, 대학생회 등과 손잡고 환경감시에 나선다. 특히 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모두 10구간으로 나눠 서울지역 사찰들이 사찰별 환경벨트를 구성해 감시활동을 적극 펴나갈 방침이다.

김진관 회장은 "한강행복문화축제를 테마가 있는 '신문화 마라톤 축제'로 정착시켜 불교의 역동적인 저력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교사불자련 백담사서 수련대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8월 8~10일 인제 백담사와 설악산 봉정암에서 수련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의 교사불자들은 백담사에서 108배 정진을 하고, 봉정암에 올라 철야용맹정진으로 회향했다. 백담사 회주 오현 스님은 "청소년들에게 불법을 알리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05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5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 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

①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초급과정	예경의식 및 조 · 석 예불	20명	3개월
중급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3개월
전통의식과정	49재의식 및 전통교육	20명	6개월
요잡 · 작법과정	바라춤, 나비춤, 사물 다루는 법	10명	3개월

② 응 시 자 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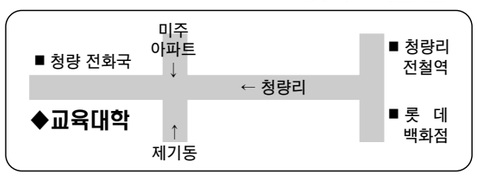
③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면접)

④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⑤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5年 8月 16日 ~ 9月 12日
▶ 입 학 일 : 2005年 9月 13日

▼ 찾아오시는 길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불자 세상보기

고 유 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北, 인권도 '핵'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 조사 · 연구한 '탈북자 증언을 통해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의 공개를 계기로 북한인권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 75%가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는 등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 북한사회 전체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거부하고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의 면접조사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과장되거나 소문을 증언한 것도 있을 것이다. 미국 등 서방세계와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한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 차원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한국이 불참하거나 기권한 것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상을 방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지금은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북핵문제 해결이 북한 인권문제보다 우선한다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뤄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족의 생존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민족의 생존권이 담보돼야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전쟁에서 확인했듯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지 못하면 우리 민족 상당수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사고'는 먼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의 개혁 · 개방 환경을 조성해서 경제난 해소와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개선은 외부 압력도 중요하지만 민주화 등 내부동력이 뒷받침돼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미국이 제기한 '고립압살정책의 두 개의 기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경우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6월, 북한이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의 '구체안'에 합의하고도 1년여 동안 6자회담과 남북대화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인권법 제정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s)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 한 · 미 양국의 역할분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인권법,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통해서 북한에 압력을 넣어 '정상국가'로의 변신을 유도하고, 한국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대북지원과 관련한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6월 10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가 거론됐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당장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의사표시 시점을 대비한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매년 상정하고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북한인권문제 거론이 어려운 현 단계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 · 간접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거론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국보 제86호 경천사10층석탑이 새로운 모습으로 공개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95년부터 해체 복원에 들어가 10년 동안 210군데 보존처리를 마치고 모두 142개 부재로 해체되었던 이 탑을 3차례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송,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세웠다. 국립중앙박물관이 10월 28일 개관한다 하니 일반인들이 이 탑을 보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경천사10층석탑 복원이 주목받는 까닭은 문화재적 · 역사적인 의미도 각별하지만, 암질조사 · 약품실험 등 보존처리와 3차원정밀스캔작업에 의한 부재 실측, 레이저를 사용해 오염물을 제거 등의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이뤄지는 등 과학적인 문화재복원처리의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뒤바뀐 불화 도상들의 위치를 바로잡았고, 상륜부의 원형을 복원하는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번 복원은 한층 발전한 보존처리기술과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하지만 박물관 실내에 우뚝 솟은 경천사10층석탑을 보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까닭은 보존처리를 필요로 하는 석탑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한국보존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많은 석탑에서 박락과 변색, 그리고 기울어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석탑의 원형이 훼손됨은 물론, 복원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다. 이 점에서 최근 시작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석가탑 모니터링은 문화재보전관리의 합리화 측면에서 주목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면 불필요한 해체복원을 막을 수 있고, 보존처리의 적절한 시점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란 말이 있다. 이 말의 속뜻은 힘과 정성을 들여 한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탑은 바로 불탑으로서 뜨거운 신앙심과 정성을 다해 탑을 세우게 된데서 유래한 말이다. 우리 문화재는 이러한 정성과 땀 그리고 슬기와 멋이 어우러져 태어난 것이다. 우리도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문화재보존관리에 정성을 기울이자.

■ 이기선(조계종 성보문화재 위원)

이렇게 들었다 부동산 투기

만약 너희들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려거든 언제나 자기의 현 위치가 지극히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늘 흡족해하라. 만족스러움을 아는 마음에는 곧 부귀와 안락과 평안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이니라. 〈불수반열반교계경〉

전 세계에 불어 닥친 부동산 투기 열풍은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광기어린 욕심을 대변하게 한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미국의 부동산 열풍이 텍사스의 황량한 사막에 까지 몰아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텍사스 리오그란데 지방의 사막 땅값은 최근 6개월 사이 12배나 뛰어올랐다.

어디 미국뿐이랴. 프랑스, 중국 등 땅과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부동산 투기 열풍이다. 그리고 그 결과 결코 멈출 수 없는 인간의 욕망처럼 땅값은 하늘을 찌른다. 우리나라도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광풍은 전 국토에 아파트를 난립하게 만들면서 나라와 국민을 갉아 먹고 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한사람이 서른여섯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부동산을 이용, 갖가지 편법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이제 주부들까지 그 대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8월말 극약처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결전'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허점은 있고, 빠져 나갈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에 앞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서야 한다. 넓고 안락한 아파트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귀와 안락이 깃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 천미희(취재부 차장 · 부산주재)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친일파 후손의 몰염치한 소송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이 수락산 내원암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낸 데 대해 교구본사인 봉선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는 <현대불교> 538호 기사를 보았다.

명백한 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몰염치한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역사적인 죄인의 후손들이 그리도 떳떳하게 친일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인정받으려 하는 우리 사회의 일면에 씁쓸한 마음과 부끄러움이 앞선다. 특히나 지금은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발효된 때가 아니던가.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이 건재하고 오히려 득세하는 과오를 남겼다. 1977년에는 매국노 이완용의 후손들이 재산찾기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여기에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도 재산찾기 소송을 냈다고 하니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가 남아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역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친일행위로 얻은 대가마저 재산권이라는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과연 그 법이 정당한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정의의 여신'을 상징으로 삼는 법원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김율희(광주시 서구 유촌동)

연못에 동전 투척 삼가해야

지난 일요일,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양양 낙산사를 방문했다. 사찰에 참배를 하고 돌아 나오는 순간, 낙산사 앞의 연못에 관광객들이 동전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낙산사 뿐 아니라, 전국의 유명한 사찰을 방문해보면 관광객들이 종종 갖가지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물속에 던지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재미를 위해, 혹은 소원을 빌며 던지는 동전은 물속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더구나 분수가 아닌 연못의 경우에는 동전 회수도 어려워 그대로 방치된 동전들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동전을 던져 넣어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비단 사찰 연못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001년 서울대공원에서 죽은 잔점박이 물범을 해부했더니 동전이 124개나 나와 충격을 주었다. 이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물속에 동전을 던져 넣는 사람들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차라리 동전을 모아 대웅전에 비치돼 있는 보시함에 넣거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보내는 것이 어떨까.

아무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동전을 던진다지만, 생각 없이 던진 동전에 효험이 있을 리 만무하다. 불자들이라면 애꿎은 곳에 동전을 던지며 요행을 바라기보다, 바르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복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현승(안산시 고잔동)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인 포교를

지난 일요일에 강화도 소재의 몇 사찰에 다녀왔다. 매일 수만 명이 찾는 이들 사찰에는 어디에도 법회 안내의 간판마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윤장대니, 와불상 조성이니 하는 안내지만 잔뜩 있어 관광지 만드는데만 열을 올리는가 생각될 정도였다. 저절로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불교의 참모습을 알려주는 일이 중요할 텐데 하는 생각에 이어 스님들이 평생 배운 불교공부를 왜 신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입장료로 받은 돈이나 시주 돈으로 불교와 사찰을 알리는 팸플릿 한 장이라도 왜 못 만드나. 진정 천신, 보살, 아라한, 연각, 성문이 계시다면, 이제 그곳을 떠나 이곳 사바세계로 오셔야 한다.

그곳을 다 비워놓고라도 사바세계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참으로 불교를 살려 주셔야 한다.

한국의 스님과 신도님들 참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강록(붓다뉴스)

'현대' 만평 심 민 섭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SAMSUNG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47-9114

정각사 화엄불교대학
기 초 반 2기 수강생 모집

● 개강 : 9월 1일(목) 10시
● 특별법문 : 보광 대선사 (해인사 보림선원장)

正法을 배우는 불자, 교양 있는 불자
능력 있고, 봉사하는 불자가 되도록
최고의 교수진이 여러분을 모십니다.



주요강좌
- 보광 대선사법문 (보광 큰스님 / 보림선원 선원장)
- 예불문 · 반야심경 (정엄스님 문학박사)
- 기초교리 (최봉수 동국대 교수)

특 강
- 불교와 상담 (이근후 교수), 시인과의 만남 (조병무 교수)
- 풍수지리 (이기만 서장), 명상수행법 (임승택 교수)
- 자녀교육과 입시 대책 (민족인재사관학원 홍성일 이사장)

제출서류 : 입학원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 강 료 : 한학기 5만원 (입학금 1만원)
※ 입학자격 - 제한없음
문의전화 : 031)398-8001
특 전 : • 졸업 후 조계종 포교사 응시자격 부여
• 경전반 진학

소원이 꼭 성취되는 절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정 각 사

홈페이지 www.junggaksa.com (검색어: 정각사)
국민은행 계좌 639001-01-098061 (대한불교 조계종 정각사)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8월10일 위덕대 학생들과 일본 히로시마 노인요양원 어르신들의 만남. 학생들에게도 일본 어르신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됐다. 사진제공=위덕대

'60년 고통' 청소·안마하며 공감

위덕대생, 日원폭 피해자 방문·자원봉사
히로시마 평화공원 찾아 평화기원 참배

8월 9일, 일본 히로시마항. 국제 봉사활동의 원을 세운 22명의 위덕대 일본어학부 학생들이 낯선 땅에 도착했다. 학생들을 맞은 곳은 히로시마 '조선통신사 연수기관'. 조선시대 한일 외교의 한 장을 장식했던 곳이다. 학생들은 '민간 외교관'이 된 듯 어깨가 으쓱해진다.

올해가 우리에게는 광복 60주년을 맞는 해지만 일본, 특히 히로시마 사람들에게는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히로시마 사람들에게는 60년 전 8월 9일이 끔찍한 기억으로 각인돼 있다. 이제는 건물도 복구됐고 '아름다운 물의 도시'로 다시 태어났지만 참혹한 기억은 아직 히로시마 사람들 가슴 속에 저마다 자리하고 있다.

학생들의 활동은 히로시마의 노인요양원에서 시작됐다. 일본어 전공자들인데도 아직 낯선 땅에 적응도 되지 않은 탓인지 평소 갈고 닦은 언어 실력이 절반도 나오지 않는다. 사실 그 보다는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들, 60년 전의 상황을 목격하고 그 여파로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할지가 더 고민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일본 할머니들이 먼저 말을 건넨다.

"학생들, 종이 거북이 접을 줄 알아요?"

할머니들과 조금 친해지자 학생들은 연습이라도 하고 온 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집 청소, 골목청소에 할머니들의 어깨 안마, 말벗 상대까지 학생들은 각자의 몫을 하기에 여념이 없다.

할머니들은 손자뻘 되는 학생들이 자신들을 찾아준 것만도 좋은 모양인지 싱글벙글이다. 게다가 한국 학생들이 자신들을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줬다니, 고마운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한다.

히로시마에는 사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 태어나 그대로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당하고 고국에 돌아갈 생각은 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재일동포 할머니를 만나기도 했다.

한 학생은 "할머니의 집을 청소하고 나오는 길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놓는다. 노환에다 몸 여기저기가 불편한 할머니를 혼자 두고 나오자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학생들의 활동은 히로시마 평화 공원으로 이어졌다. 원폭 피해로 쓰러져간 망자들과 대면하는 자리. 학생들에게는 무거운 침묵의 기운이 감돈다. 한 학생은 "전쟁으로 무고하게 숨진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학생들의 기원은 참배에 이어 비석을 닦는 손길 하나하나에서도 묻어난다.

자원봉사를 체험하기 이전에는 "일본어를 전공하고는 있지만 과연 역사 인식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털어놓은 학생이 있을 정도로 '인식의 차이'라는 두 나라의 앙금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후 3학년 김현욱(25) 학생은 "두 나라는 늘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활동으로 우리가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학생들도 한결같이 "사람 사이의 정은 국경도 나이도 다 뛰어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들은 이번 활동이 역사의 벽을 넘고 국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아픔을 가진 사람과 사람'이라는 관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안다. 그러하기에 히로시마 사람들과 굳게 잡은 두 손에서 학생들은 한국과 일본이 민간에서 가까워 질 수 있다는 확신을 느낀다.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활동을 정리해나갈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강진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정진팀

"마음 쏟아야 시원합니다"

지역 장애 어르신들의 발을 꼭꼭 누르는 손길은 어르신들의 다리까지 이어진다. 손끝은 힘과 발마사지 기술로 조화를 이뤄 야무지다. 얼굴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혔다.

물놀이와 막바지 휴가로 뜨거운 여름 햇살을 피하기 바빴던 8월 5일. 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김광환)은 피서행렬에서 살짝 비켜나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발마사지 봉사회 정진팀(팀장 김용철)이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 안부가 궁금하고 우리 식구(정진팀)들도 보고 싶고…. 길도 막히는데 여기 와서 발마사지 해드리는 게 더 신나고 즐겁죠."

정진팀의 활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열심히 발만 주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무른다'는 것은 체온을 나눠야 하는 일이기에 어르신과 마사지 봉사자 사이의 친밀한 대화는 필수다.

"할아버지, 저번에 제가 따뜻한 물 드시라고 했는데, 안 드셨죠?"

"에이, 미지근한 물은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어서 못 먹겠는걸."

발마사지는 몸의 순환을 좋게 한다. 따뜻한 물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지만 어르신들에게 영 맛이 없다. 그럴 때마다 애가 타는 것은 봉사자들. 투정부리듯 이야기해야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드시기 때문에 정진팀 봉사자들은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나간다.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만 6년. 정진팀의 관록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에서 엿보인다. 봉사자 스스로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몸 관리를 하는 모습도 그렇다.

6년이면 요령으로만 발 마사지를 해도 될 텐데 봉사자들은 "'정성'없이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잘라 말한다.

"손끝으로 하는 일이라 어르신들이 민감하세요. 마음이 안 들어가 있으면 대번에 알아채시거든요."

여기에 더해 이권숙(45) 보살이 그간 봉사활동의 하면서 느낀 점을 조심스레 하나 전한다.

"'봉사'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받으시는 분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해요. 이것이 봉사자로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김강진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내에서도 베테랑 봉사팀으로 불리는 '정진팀'. 8월5일의 무더운 날씨보다 정진팀의 봉사 열기가 더 뜨거웠다.

식료품·생필품 보내 주세요

북부장애인복지관은 9월 한가위를 맞아 지역 장애 어르신들에게 지급할 물품을 준비하느라 고심이다. 쌀과 같은 식료품은 늘 어르신들에게 필요하다. 정진팀은 "명절이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치약 비누와 같은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02)2092-1746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5년 8월 1일 부터 □ 입학일 : 9월 5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제 9기수업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7시)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 2005년 9월 둘째주 화요일 (9월 6일)
제 9기 첫수업이 시작됩니다.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사랑과 희망을 읽어 드려요

매일 점자도서관 출근하며 시각장애인 위해 자원봉사

향기도반의

희망의 소리 전하는 '설리번 선생님'

이 근 희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책을 읽어 내려가는 청아한 목소리는 CD로 녹음돼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운 점자책보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소리도서'로 다시 태어난다. 이근희씨가 녹음실에서 소리도서를 녹음하며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손가락과 귀를 통해 책을 읽는다? 우리가 읽는 활자가 '시각의 언어'라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것은 '촉감의 문자' '소리의 언어'다.

이근희(50)씨는 바로 그 촉감의 문자를 목소리로 들려주는 사람이다. 그는 바쁜 직장일과 가사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서울 암사동 한국점자도서관에 거의 매일 출근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도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다.

'소리도서'란 전문 성우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시 소설 수필 문제집 신문 등의 내용을 읽어 카세트테이프나 CD에 녹음한 뒤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일종의 '소리로 듣는 책'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點字)책을 읽기 위해선 고도의 훈련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만 소리도서는 듣는 것이 곧 읽는 것과 같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장점이 있다.

2002년 봄. 이근희씨는 우연히 TV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도서 만들기' 자원봉사자 모집광고를 본 후 눈이 번쩍 뜨였다.

그날 이씨는 두 가지 가슴 떨리는 체험을 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헤아릴 수 없는 소외와 불평등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였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 장애인의 이야기에 저는 눈이 먼 채로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더 놀라웠던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엄청난 독서량이었습니다. 그들이 점자책이나 소리도서로 읽고 있는 책은 동·서양의 고전에서부터 신문, 교과서, 문제집 등 헤아릴 수 없이 다양했어요."

그날 이씨는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책을 만들어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지금껏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소리도서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왔다. 이근희씨의 이런 열정이 통해서였을까. 이씨는 한국점자도서관에서 '설리번 선생님'으로 통한다. 맹농아자로서 1904년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헬런 켈러를 잊게 한 그 설리번 선생님을 본 따 붙인 별명이다.

"한권의 소리도서를 만들고 나면 무어라 말하기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에 가슴이 찡합니다.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읽고 함께 느끼며 영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불교 관련 서적을 녹음하다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야말로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이씨. 그는 시각장애인들이 때때로 느끼는 숱한 고통과 번민이 한권의 소리불서로 치유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매번 녹음에 임하고 있다.

이씨가 4년 동안 제작한 소리도서는 줄잡아 100권이 넘는다. <오페라의 유령> <팡세> <공인중개사 문제집> 등등. 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책은 <해탈의 즐거움> <인연을 비껴가지 말라> <가보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 등을 비롯한 불교 관련 서적이다.

천주교나 개신교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과 소리도서, 전자도서 등을 만들어 보급하는데 열을 올리지만 불교계는 아직 그렇지 못해 늘 아쉽다는 이씨. "불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불교서적이나 경전을 소리도서로 만들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씨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조계종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매번 허사였다.

이씨를 포함해 동서들 모두 불자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4명의 동서중 셋째인 이근희씨는 서울 불광사에 다니고 큰 동서는 부천 관음사, 둘째와 막내 동서는 서울 능인선원의 열혈 불자로 통한다. 이중 둘째 동서인 이향규(51)씨는 이씨의 설득과 소개로 올해 초부터 한국점자도서관에서 소리도서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향규씨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장애인을 보면 괜히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 피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생각을 바꾸게 됐다"며 웃음 짓는다. 이근희씨 또한 "자원봉사와 금전적 지원도 좋지만 장애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들을 보는 따뜻한 눈"이라고 강조한다.

> 4년간 100여권에 달하는 '소리도서' 제작
> 목 부을때면 얼음 찜질해가며 작업 하기도
> "경전 녹음해 부처님 말씀 전하고 싶어요"
> 고통, 번민 한권의 소리불서로 치유되길

이런 이근희씨의 소리도서 자원봉사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한 집안의 아내, 엄마, 며느리 그리고 한 사업체의 핵심 멤버로서의 1인4역을 하며 자원봉사를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때론 목감기에 걸려 편도선이 부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얼음 팩을 목에 대고 구연동화를 마무리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4년간 꾸준히 이씨를 지켜 본 육근해(45) 한국점자도서관장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은 짧게는 1주일 길어야 6개월 하는 게 보통인데 이 선생님처럼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은 드물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덧붙여 육관장은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리도서 제작에 동참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편한 시간대에 점자도서관을 방문해 소리도서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원봉사에 비해 쉽게 할 수 있다"며 일반인들의 많은 참여를 호소한다.

이씨는 '이제는 정부에서 점자도서관 및 소리도서 등을 만들고 운영해야 할 때'라고 힘 주어 말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도서관을 만들면 시각장애인이 더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서비스가 너무 열악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자도 만들고는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점자책은 일반 책에 비해 10배의 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지원으로 소리도서를 만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싼 값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 틈나는 대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이씨. 제대로 된 소리도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굳은 의지 표현이기도하다. "1970년대에는 허허벌판에라도 점자도서관을 짓고 그곳에 점자책을 쌓는 일 자체가 목표였지만 이제는 달라져야죠. 그 도서관에 무엇을 채워 넣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을 좀 더 높이 쳐들어 주십시오. 몸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앞길을 밝히기 위하여.'(헬런 켈러)

이근희씨가 소리도서를 녹음하는 녹음실 벽면에 붙어 있는 헬런 켈러의 명언처럼 오늘도 그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희망의 등불과 행복의 소리'를 밝히고 있다.

글=노병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여시아문 창립 11주년 특별 이벤트



1994년 8월 24일 오픈한 이후로, 고객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여시아문이 문을 연지 벌써 만 11년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현대불교신문사의 비전에 맞추어 문을 열게된 여시아문은 수많은 불서와 문화도서를 대중에게 알리고 판매하는데 있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현재 불교서점계에 있어 커다란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해외불서와 e-book제작 판매까지 그 영역을 넓혀 세계 최대의 불교서점을 향해 나아가는 여시아문은 그동안 고객여러분이 주셨던 크신 사랑에 보답고자 '창립 11주년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시아문닷컴으로 방문하셔서 여시아문이 마련한 '전 도서 특별 할인서비스'와 '푸짐한 선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시아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 www.yosiamnu.com을 참조하세요.

"창립 11주년 특별 이벤트 속에 한번 빠져봅시다~!!"

– 행사 기간 : 2005년 8월 17일 ~ 8월 31일(2주간)

1 11주년 기념, 11%의 특별할인!
– 여시아문에서 판매하는 모든 도서를 11%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구입을 망설였던 도서까지 이번 기간을 통해 모두 구입하는 기회를 맞이하세요. (단, 발행일 기준 1년 미만은 10%할인)

2 11번째의 행운을 잡아라!
– 행사기간내에 매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행운의 11번째 고객에게는 여시아문 출판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3 나도 여시아문도 11년!
– 여시아문까페나 이메일을 통하여 여시아문과 함께 했던 에피소드나 얽힌 사연, 또는 도서 감상평을 써주세요. 총 11분을 선정하여 여시아문닷컴에서 사용 가능한 사이버 도서상품권(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4 1+1 행사
– 행사기간 동안에 여시아문 회원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두 분 모두에게 평생 여시아문에서 도서 구입시 10%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회원자격을 드립니다. (기존 회원이 아니더라도 두 명이 동시에 가입할 경우도 해당됨)

여시아문 http://www.yosiamun.com yosiamun@buddhapia.com 전화주문 : 02_2004_8220 팩스주문 : 02_737_0696

시간·장소 안 가리고 '삼매' …현대인 생활에 잘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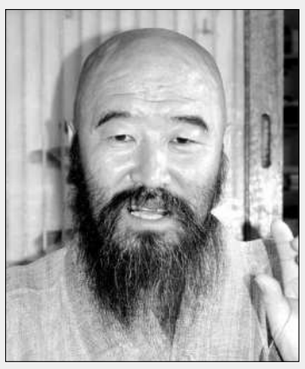
지상좌담

'염불선 수행' 이 뜨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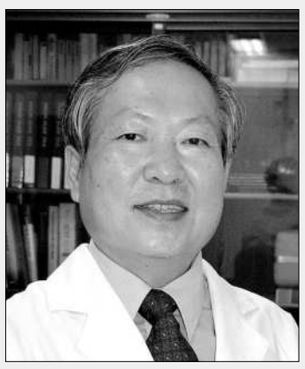
참가자 : 덕산 스님(청원 혜은사 주지) **일우 스님**(경주 다담선원 회주) **정목 스님**(양산 정토선원장) **배광식 교수**(서울대 치대 교수 · 청화 스님 유발 상좌)

염불선 수행법이 뜨고 있다. 기존 선수행을 해온 재가불자들 사이에서 유독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왜 그럴까? 그 이유와 배경을 놓고 불교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본지가 단독 보도한 '염불선 소의경전 <염불선경> 발굴(536호 18면)'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큰 호응에서도 확인됐다. 도대체 염불선 수행법이 재가불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염불선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지상으로 초대, 염불선을 주제로 한 좌담의 장을 마련했다. △왜 염불선 수행에 관심이 뜨겁나 △염불선 수행의 장점 △기존 간화선 묵조선과 무엇이 다른가 △염불선, 과연 선인가 염불인가 등의 소주제로 나눠 참가자들의 의견을 요약 정리했다.


덕산 스님


일우 스님


정목 스님


배광식 교수

기복 불교 탈피…수행 인구 늘면서 주목
자·타력 겸비, 진실한 믿음으로 윤회 벗어

▲최근 들어 염불선 수행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다. 염불선 수행법 관련 서적도 꾸준히 출간, 읽히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염불 관련 카페활동이 활발하다. 염불선 수행법이 불교계에서 지대한 관심을 얻고 있는 이유와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하나?

정목 스님 : 불교인들의 수준이 높아져 기복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한 수행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또 출가 수행자들이 염불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한 이유일 것이다.

일우 스님 : 바로 '소리' 때문이다. 불교가 크게 융성하고 널리 퍼져나간 것은 오직 염송가(念誦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염불선은 염송에 따라 번뇌망상을 녹아내리게 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덕산 스님 : 수행에 대한 재가불자들의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선을 직접 체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선택한 수행법이 염불선이라 생각된다. 염불은 누구나 쉽게 생각하고 이미 익숙해져 있는 수행법이라 생각하는 데다 선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벗으면서 자연스럽게 염불선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본다.

배광식 : 정보화 사회를 맞이해 기존의 다양한 불교수행법이 다시 소개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드러나지 않았던 염불선 수행자의 목소리가 대중에게 전해지고 있고, 복잡다단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병행 수행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염불선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불자들이 염불선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수승한 수행법인 선수행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염불수행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수행법상의 우열을 따지려는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유로 불자들이 염불선을 선택하는지 궁금하다.

또 염불선 수행법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배광식 : 천 사람이 모이면 천 개의 개성이 있다. 의심하기 좋아하고 참구적인 사람은 간화선이 좋은 수행법이 될 수 있고, 의지적인 사람은 묵조선이 좋은 수행법일 수 있으며, 지정의(知情意)를 고루 갖춘 사람은 염불선이 좋은 수행법일 수 있다. 염불선 수행은 자력(自力)과 타력(他力)을 겸비하는 것이고, 건조하고 마른 이치로만 추구하지 않고 생명으로 추구하는 점이 매력이다.

덕산 스님 : 화두, 염불 모두 생각이전의 자리인 진여당체에 마음을 두고 정진한다면 조금도 차이가 없다. 특히 온갖 능력이 다 갖추어진 이 자리에 마음을 두고 염불을 하면 맑은 에너지가 발생돼 탁한 기운을 정화해준다. 일반 재가자들이 가정에서 이런 방법으로 정진하게 되면 스스로의 업이 맑아짐은 물론 세상도 맑히고 우주도 맑혀지게 된다. 염불선 수행법이야말로 재가자들에겐 가장 이상적인 수행법이다.

일우 스님 : 수행법의 우열을 가리는 것, 수행법의 매력과 장점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어떤 수행이든지 수행은 쉬운 것이 없다. 선종사에 나와 있는 조사스님들께서도 깨닫기 위해 생사를 초월한 수행을 했다. 묵조든 간화든 염불이든 목적은 같다. 다만 수행하는데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간화선, 묵조선 등의 선수행법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가?

정목 스님 : 선수행은 일정한 장소와 한가한 시간을 요구하지만, 염불은 일상 생활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다. 자력이라고 말하는 선수행은 반드시 깨달아야 생사해탈한다고 말하지만,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힘입는 염불은 진실한 믿음으로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수행의 난이도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일우 스님 : 수행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수행의 법도는 같다.

덕산 스님 : 간화선과 묵조선 염불선의 수행방법은 화두를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의 차이, 염불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있을 뿐이다. 하지만 모두가 본래성품자리에 마음을 두고 한다는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배광식 : 본래면목을 드러내 견성성불하는 것을 궁극목표로 하는 것은 간화선, 묵조선, 염불선 모두가 최상승선으로서 같다. 그러나 염불선은 본래면목 곧 실상을 생명으로 추구하며, 수행자의 지정의를 고루 조화적으로 충족시킨다는 차이점이 있다.

궁극 목표는 본래면목 드러내 견성성불
간화선 · 묵조선 · 염불선 근본은 일치

▲그렇다면, 염불선 수행의 핵심 요체와 구체적인 수행법은 무엇인가?

배광식 :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며 부처를 깨달아가는 공부가 바로 염불선이다.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아미타불 염불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에 들어, 실상삼매(實相三昧)와 보현삼매(普賢三昧)를 실증하도록 하면 된다. 깨닫기 전까지는 실상(實相)을 모르기에 아미타불 염불을 한다.

덕산 스님 : 현생과 극락의 수행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바르게 알고 수행을 해야 한다. 내가 본래 부처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정토염불이 아닌 내 안의 부처님을 마음에 두고 염불을 해야 한다. 아미타불 또는 지장, 관음을 입면 관상염불(觀相念佛)을 행하여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관상염불은 <정토삼부경>에서 드러내 보인 정토의 경계를 관찰하는 지관(止觀)의 수행이다.

▲일반적으로 염불선은 선수행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염불선은 선인가 염불인가?

정목 스님 : 관상염불에 들어가면 자력수행이라 말하는 선수행과 다를 것이 없지만 아미타불의 광명으로 이미 보여주는 경계를 관찰한다는 의미에서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힘입는 타력이라고 말한다. 자력과 타력은 관점을 달리한 해석일 뿐이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연기법을 믿는 것, 부처님 혹은 조사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 등 깨달음 이전의 수행이란 모두가 타력에 의지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우 스님 : 선이다.

덕산 스님 :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선이 될 것이오, 극락세계에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염불일 것이다.

배광식 : 염불선은 염불과 선을 겸한 것으로, 염불이면서 선이다.

▲정토관에 따라 염불과 염불선 관련 단체들이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정토를 보는 입장이 '서방정토'와 '유심정토'로 나뉘면서 파생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해결법은?

배광식 : 칭명염불, 관상(觀像)염불, 관상(觀想)염불도 지성으로 수행하면 염불삼매에 들 수 있고, 곧 견성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본래 불성을 지니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의 면에서는, 서방정토와 유심정토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덕산 스님 : 서방정토 극락세계 또한 실존하는 세계다. 극락세계는 수행근기에 따라 수행처가 다르다. 극락세계 또한 성불을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는 곳이지 특별한 곳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며 이 우주가 본래 부처다. 그러므로 유심정토와 서방정토의 근본은 다르지 않다. 우주는 생명이다. 즉 마음이다. 둘이 아닌 하나의 도리에서 그대로 부처 세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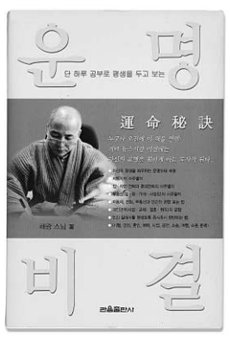
일우 스님 : '서방정토'와 '유심정토'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토염불은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기 때문에 달리 나눌 수가 없다.

정목 스님 : 경론과 뛰어난 조사의 어록에 의지하면 다툼을 화해할 수 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하나의 명호 아래 판이하게 다를 것이 없다. 처음의 범부는 서방정토요, 깨달으면 유심정토다.

정리=김철우 기자

운명비결 저자 해광스님 직강 (개인교수)

초칠일에 눈을 떠라!



– 천장비기(하늘이 숨기고 땅이 감추는)의 운명학
– 명리와 육효의 조화와 완벽한 해석
– 전문가를 위한 운명비결 전수

단, 명리, 주역 등 일체의 역학을 설 배워 그 한계를
스스로 벗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학문에 쉬 범접치 마시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 없이 요구해 온 운명비결 전수 희망자들을 위해 오랜 숙고 하에 운명비결을 전수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 안내를 합니다.

- 수강신청 : 수강접수 및 등록
- 수강자격 : 스님, 포교사, 법사, 운명상담소 운영자.
- 문의전화 : 010-6252-5247 (오후 1시-7시)
- 강의일자 조정 및 통보 (등록 후 일정 조정)
※시작에서 수료까지 6박 7일

쑥뜸! 쑥뜸! 온구(쑥뜸)기 개발!

연기와 화상에서 완전 해방된 온구(쑥뜸)기
민간요법, 대체의학계의 기본이 되는 쑥뜸!

한의원, 피부관리실, 경락 · 스포츠 맛사지실,
다이어트방 및 가정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오행좌훈기
생리구조가 복잡한 여성을 위한 훈증기



사용중인 모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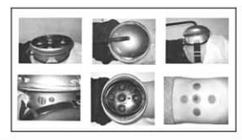


오행온구(쑥뜸)기는
5개의 쑥봉으로 5개의 혈자리에
동시에 쑥뜸을 할 수 있다.

대리점 및 쑥뜸체험실 모집



오행온구(쑥뜸)기
혈자리를 몰라도 뜰 수 있다
(배는 따뜻, 머리는 차갑게)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필요한 혈자리마다 옮겨 뜬다
(백회,견정,명문,족삼,무릎)



쑥뜸이 좋은 이유

하나,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므로써 생식기 주변의 습기를 제거하여 양의 기운을 북돋운다.
둘, 관원혈을 자극하여 음경내의 조직을 강화하여 혈액순환을 시킴으로 정력이 강화된다.
셋, 인체 깊숙한 곳에 쑥의 약초 성분과 열기가 침투되어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감기 몸살에 효과가 있다.
넷, 면역기능 형성이 작용하여 항체를 늘리는 작용을 한다.
다섯, 뜸뜬후 5분 경과시 백혈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한두시간 후에는 정상인의 2배가 된다.
여섯, 장운동을 원활히 하여 숙변이 제거되면서 열기로 인해 노폐물과 단백질을 분해시켜 균형잡힌 복부를 만든다.
일곱, 출산 후 아래로 쳐져 있는 장기들을 쑥뜸의 특이한 기능으로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여 빠른 회복을 돕는다.
여덟, 위장이나 대장의 자율신경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체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몸밖으로 배출시킴으로 인해 기미나 여드름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D.M.I 산업 대구한의대학교(한방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모사포유 www.moxa4u.com ☎ 02-521-6353~4

'주인으로 살 것인가, 종으로 살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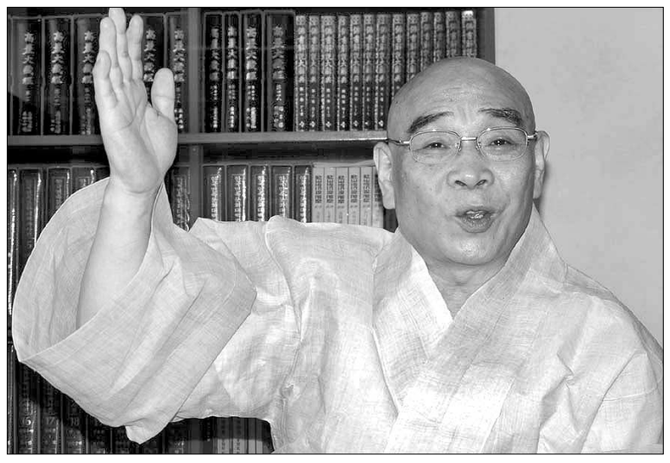
임제 선사가 세상에 던진 화두다. 스승 황벽 선사에게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세 번 찾아가 세 번 물었다가 30방만을 맞았던 임제. 이 같은 질문을 왜 했을까? 8월9일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을 만나 〈임제록〉 선공부법을 들었다. 현재 혜거 스님은 매주 수요일 금강선원에서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임제록〉을 강의하고 있다.

"우리들 모두는 부처와 다르지 않다. 부처도 볼 줄 알고 우리들도 볼 줄 안다. 부처도 들을 줄 알고 우리들도 들을 줄 안다. 이 사실을 알면, 달리 부처다 조사다 할 것 없다. 순식간에 부처와 같게 되는 이치가 바로 이것이다."

어떻게 이 해답을 확인할 수 있을까? 혜거 스님은 "먼저 시비와 차별을 끊은 무위(無位)의 경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부처와 조사 어느 누구에도 의지하지 않는 '무의(無依)'의 단계가 돼, 결국 부처와 조사란 옷도 입지 않는 '무의(無衣)' 진인의 경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02)445-8484

주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혜거 스님에게 듣는 '임제록' 禪공부법



'임제록' 모르면 할과 방 쓰지 말라

〈임제록〉 공부는 선풍(禪風)을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할'(喝:깨우쳐주기 위해 '억!'하고 큰 소리를 지름)과 '방'(棒:죽비나 손으로 일격을 가해 깨우침을 주는 행위)에 대한 연원을 〈임제록〉에서 찾을 수 있지요. 사실 선방의 선풍은 할과 방에 있습니다. 만약 그 선풍의 연원을 알지 못하고 소리만 지르고 몽둥이로 때린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임제록〉을 통해서 그 까닭을 분명히 알고 할과 방을 해야 그것이 살아있는 할과 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임제록〉을 소홀히 하려면, 아예 할과 방도 쓰지 말아야 해요. 할과 방은 쓰고 〈임제록〉은 등한시 한다면, 그야말로 본말이 바뀐 꼴이 됩니다.

특히 할과 방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중생은 자신의 육근(六根)에 변화가 오면, 몽둥이로 자책해야 합니다. 방의 상징적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위한 자책이자 철저한 자기 몸부림인 방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확실히 이해했을 때, '조사들의 공부법이 이랬구나'를 배울 수 있는 거지요. 몽둥이는 '폼 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임제록〉은 구체적으로 선수행의 길잡이가 됩니다.

#부처와 조사의 옷을 벗어 던져라

임제 스님이 강조한 선수행 공부법은 무엇일까요? 불교와 중국 전통사상인 '무위진인(無爲眞人)' 사상과 접목한 '무위진인(無位眞人)'에 있어요. 무위(無爲)와 무위(無位)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임제 스님은 무위의 '위(爲)'를 '위(位)'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자리' 위자는 임금과 백성, 너와 나, 피차가 없는 자리를 의미해요. 자리 즉 분별이 없는 그 경지에 가야 진인이 된다는 거지요. '할 일없는' 진인은 분별에 얽매일 수 있는 진인이란 거죠. 정말로 시비와 분별이 끊어진 참사람이 무위(無位)진인이라고 임제 스님은 강조했지요.

때문에 〈임제록〉의 핵심 키워드는 '무위진인(無位眞人)'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의도인(無依道人)'이란 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임제 스님은 순차적으로 '자리 없는' 진인, 즉 무위진인을 '의지할 곳 없는' 무의(無依)도인으로 바꿨습니다. 한 단계 의미가 더 깊어진 거죠. 무의는 부처와 조사 어느 누구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요. 처음에는 차별과 분별을 끊고, 무의에서는 기대려는 마음을 걷어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의지할' 의(依)자가 '옷 의(衣)'자로 바뀌집니다. 여기서 무의(無衣)는 부처와 조사의 옷을 입지 않고, 부처와 조사의 앵무새가 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경지가 최고의 진인이라는 거지요. 임제 스님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대로 '주인노릇' 하려면

현대를 사는 재가불자들은 '무위진인' '무의도인' 등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은 지성인의 시대입니다. 지성인은 어떠해야 할까요? 가식적인 지성인이 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지성인운동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임제 스님의 '무위진인' '무의도인' 등의 가르침은 지성인이 가식 버리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의지해 남의 것을 모방해내는 지식인, 시비와 분별을 조장하는 지식인의 병폐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겁니다. 가식의 옷을 벗고 자신을 반조하는 거울이 되는 거지요.

즉 임제 스님은 가식적인 지성인 모습(有爲), 차별하는 마음(有位), 차별성에서 절대성에 의지하려는 마음(有依), 그 절대성에 옷을 입으려는 가식(有衣)의 실체를 여실히 알면, 일상생활 속에서 참사람(진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임제록〉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수처작주입처개진(隨處作主立處皆眞)' '살불살조(殺佛殺祖)'이지요.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살불살조는 무의도인(無依道人)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모든 부처와 조사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수처작주입처개진은 '부처와 조사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무의진인(無衣眞人)의 경지에 이른 상태를 일컫는 말이지요.

임제 스님은 '주인노릇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입니다. 주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보이는 것이 없다는 의미에요. 때문에 주인의식이 바로 '한 생각'입니다. 정말 한 순간에 주인의식을 생기는 것입니다.

정리 · 사진=김철우 기자

임제 스님의 '참사람' 되는 3단계

無位 → 無依 → 無衣

(부처와 중생은 본래하나) (본래부처임에 기대지 않음) (본래부처임도 벗어버림)

〈임제록〉은 어떤 책?

〈임제록(臨濟錄)〉은 당나라 선승 임제의현(臨濟義玄, ?~867)의 법어집.

흥화존장(興化存獎)이 비교 · 검토하고, 의현의 제자 혜연(慧然)이 편집했다. 책머리에는 북송 말기 진주장관(鎭州長官)이었던 마방(馬防)의 서문이 있고 상당(上堂:대중 공식법회 법문) · 시중(示衆:문하의 선승이나 신도를 위한 긴 설법으로 선의 정수를 설함) · 감변(勘辨:깨달은 견처를 헤아리거나 나타내보이는 구절) · 행록(行錄:임제 스님의 대오수행과정과 입멸 등의 행장) 등 4부로 이루어져 있다. 행록 마지막에 전기(傳記)가 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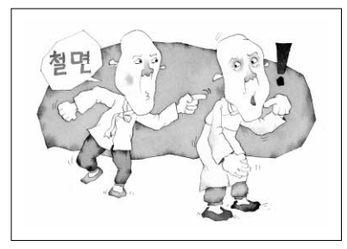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30〉 별명은 또 다른 선가의 문화

별명은 그 사람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또 다른 이름이다. 절집도 사람 사는 곳이라 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부처님의 별명은 무엇인가. '여래 응공 정변지 뭐 어쩌구' 이렇게 나간다면 별로 재미없다. 당신의 별명은 '잔소리 쟁이'이다. 허구헌날 '~는 하지 말라'고 똑같은 소리를 지겹도록 반복해대니 발란타 비구가 호기있게(?) 붙여주었다.

선가(禪家)도 예외는 아니다. 속가의 성씨가 별명으로 불린 경우도 많다. 남전 선사는 성씨가 왕씨인 까닭에 '왕노사'라고 자칭하였고 도일 스님은 마씨인 까닭에 '마조'라고 불렀다. 목주도명(睦州道明) 선사는 만년에 짚신을 삼아 팔아서 노모를 봉양하고, 그 나머지는 대문 앞에 걸어두고서 길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까닭에 '진초혜(陳草鞋)'라고 불렀다. 성이 진씨이고 초혜는 짚신을 가리킨다.



덕산 선사는 〈금강경〉의 대가인지라 '주금강'이라 불렸다. 모두 핏줄을 중시하는 중국적 유교가족주의 영향이다. 하긴 현재 우리나라도 이름 좀 떨치는 유명 스님들에게는 종친회에 참석하라는 공문도 오고 본사 주지급이 되면 족보에도 올려준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신체적 특징이나 습관이 별명이 된 경우도 있다. 달마 대사는 맨날 벽만 쳐다보고 있으니 '벽관(壁觀) 바라문'이라고 불렀다. 육조혜능은 '갈료(獦獠 : 남방의 오랑캐)'라고 했다. 디딜방아를 찧을 때 몸무게가 모자라 허리춤에 돌을 매달고 있었다니까 체격도 왜소하고, 남아있는 등신불을 보면 그렇게 잘 생기신 것 같지도 않다.

명주(明州)땅의 계하덕굉(啓霞德宏) 선사는 인품이 강직하여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웃지 않는 탓에 '철면(鐵面)'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철면피'라고 하면 다소 상스러웠을 텐데 '철면'이라고 하니 같은 말이라도 듣기에 조금 낫다. 아무리 별명이지만 이정도 배려는 필요하다.

선종사에서 가장 언어구사력이 뛰어난 사람은 조주 선사였다. 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언어로 풀어낸 까닭에 그의 선풍을 '구피선(口皮禪)'이라고 불렀다. 구피는 입술을 말한다.

귀종지상 스님은 눈빛이 붉었다고 했다. 그래서 '적안(赤眼)귀종'으로도 불린다. 그 이유는 늘 약수로 눈을 씻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철분이 많은 약수터 물가 주변은 붉다. 귀종 스님이 즐겨 드신 약수도 철분이 많았나? 그렇더라도 석연찮다.

맹수에 빗댄 별명도 있다. 호랑이와 사자가 대표적일 것이다. 장사경잠 스님은 별명이 '대충(大蟲)'이다. 대충은 호랑이란 뜻이다. 앙산 선사와 법거량하면서 스승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런 기개를 가진 탓에 앙산이 붙여준 이름이다.

호주(湖州) 서여사(西余寺) 정단(淨端) 선사는 사자춤을 보다가 깨쳤다. 그리고 항주(杭州) 용화사(龍華寺) 제악(齊岳) 선사를 찾아갔다. 만나자마자 몸을 뒤집으며 사자춤 흉내를 내보였다. 제악 선사가 이를 보고 인가하였다. 사자춤을 통해 깨쳤고 또 인가받은 인연으로 종림에서는 그를 '단사자(端獅子)'라 불렀다.

맨날 벽만 바라본 달마 대사는 '벽관 바라문'
엉덩이와 방석 붙어버린 효봉 '절구통수좌'

근대의 송광사 효봉 선사는 정진 때 꼼짝을 하지 않는 탓에 별명이 '절구통수좌'였다. 언젠가 깊은 삼매로 피부가 짓물러져 엉덩이에서 방석이 떨어지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현재 해인사 방장 법전 선사도 좌복 위에서는 미동도 않는 것으로 제방에 호(號)가 나 있다.

마지막으로 요즘 입심 좋은 스님들을 좋게 표현하여 '지대방 방장'이라 부른다. 반대로 '개구(開口)뻥'이라고도 한다. 이는 '입만 열면 허물'이라는 선어록의 '개구즉착(開口卽錯)'을 패러디한 것이다.

어쨌거나 모든 별명에는 그 사람의 특징만큼이나 품격과 사상 그리고 문화가 알게 모르게 스며들기 마련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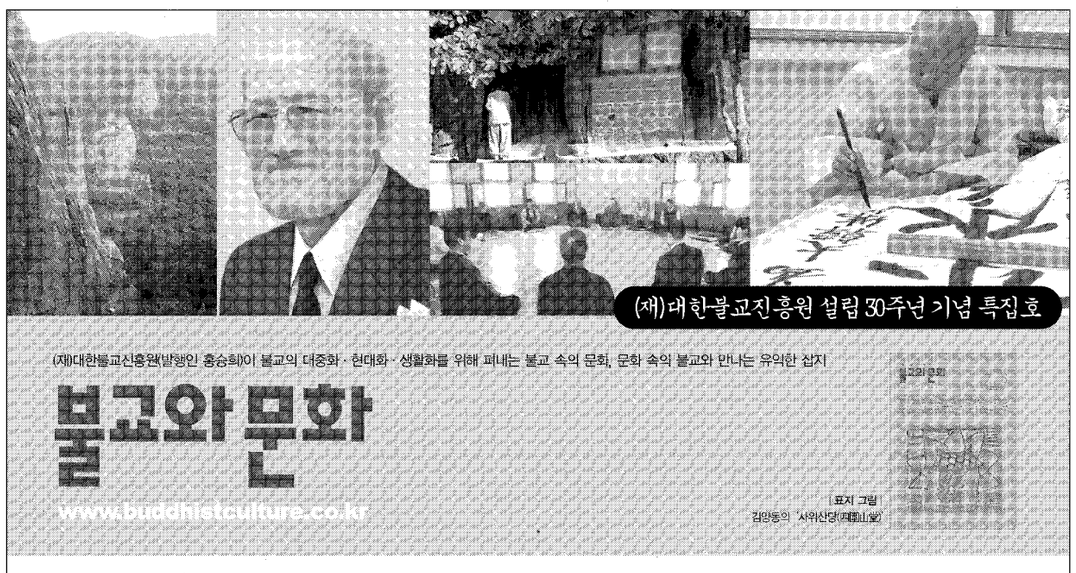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2005년 7 · 8월호 주요 내용

축하 휘호 – '시수음(示水音)'_성수 스님
권두칼럼 | 선택과 집중의 시기, 대한불교진흥원이 나갈 방향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A에서 Z까지 | 불교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3 삼학(三學) · 육바라밀(六波羅蜜)_중범 스님
지상중계 |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 송담 스님의 하안거 입제법문
"어디서든 알뜰하게 정진하여 영원한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 30주년 기념
한국재가불교계를 대표하는 (재)대한불교진흥원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대중불교 운동을 선도하며 재가불자의 희망이었던 대원 장경호 거사 추모특집과 재가수행의 모델을 제시하는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재가 수행단체를 선정, 역사와 현황 및 수행법을 알아본다.
[1] **추모특집 | 대원 장경호 거사**
'대중불교의 빛이시여, 재가불자의 희망이여'
대원 장경호 거사 연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보낸 정재헌납 편지 – 아름다운 회향
대원 거사의 수행관 – 기업가라기보다는 구도자였던 사람
내가 만난 대원 거사 – 한국불교 100년을 내다 본 거목
[2] **기획특집 | 세계 재가불교수행의 현주소 – 역사와 현황 및 수행법**
인도의 재가수행 전통 / 영국 '서양불교교단의 친구들'
미국 재가불교수행의 한 모델 / 일본 재가불교의 역사와 재가교단 현황
한국 재가불교수행의 역사와 수행단체 현황
장로대담 | 활안의 선지식에게 듣는 수행한담
4. 산청 해동선원 조실 활산 성수(活山性壽) 스님
"지금, 한국불교의 절실한 수행화두는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테마기획 | 절집 공양간 맛 풍경 4
서산의 천년고찰 개심사의 영가 천도제 올리던 날
서양불교계를 빛내는 불교인
불교원리를 사업과 삶에 적용하는 기업인, 브라이언 개스트

격월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57)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3강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제목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불성'

금강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가리킨다. 그래서 콘즈도 이 경전을 "다이아몬드의 경전(Diamond Sutra)"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그 투명한 보석이 중국에서는 나지 않은 듯하다. 적어도 혜능은 몰랐던 것 같다. 그는 '쇠 중에 강한 쇠', 즉 강철 정도로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을 영양각, 즉 영양의 뿔로 깰 수 있다고 순진하게 말했다. 그는 <금강경 구결(口訣)>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불성은 견고하기 금강 같다. 그러나 그 단단한 불성도 번뇌의 영양각으로 혼란될 수 있고, 또 그 번뇌의 영양각도 반야의 빈철로 깰 수 있다." 혜능은 이 삼자의 관계를 이해하면, 불교의 근본을 깨친 셈이라고 보증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이다. 그것은 1) 예리하고 2) 견고하며, 3) 그리고 무지 비싸다. 다시 말하면 다이아몬드는 어떤 것도 잘라버리면서, 자신은 그 어떤 것에도 깨지지 않는 것, 그리고 결혼 예물이나 보석상에서 보듯 비싸고 귀하기 그지없는 물건이다.

반야

반야가 바로 그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반야는 '지혜'를 가리키지만, 그것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지혜이다. 그래서 불교가 자리 잡고 난 다음에는, 번역어인 지혜보다 원어인 반야를 더 유통 정착시켰다. 반야는 대인관계를 효율적으로 맺거나, 사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노하우와는 관계가 없다.

반야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향한 지혜이니, 마음 근본의 특성과 기능을 아는 지혜라고 해 두자. 이렇게 하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을 연상할지도 모르겠다. 같은 마음이니 관련이 있지만 거기 접근하는 방식과 통찰한 결과는 좀 다르다. 반야는 마음의 내적 방해물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힘이다. 그 방해물들을 전문적으로 (?) 번뇌, 혹은 망상이라고 부른다.

반야는 1) 이들을 깨부수는 힘이다. 어떤 번뇌나 망상도 이 앞에서 깨어진다. 그리고 이 반야는 2) 워낙 견고하여, 그 무엇에도 부서지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안정하게 흔들리기는 한다. 혜능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반야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번뇌와 망상 앞에 흔들리지만, 그렇지만 이 촛불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 번뇌망상이 태풍처럼 몰아쳐도 반야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것만큼 견고한 것도 없다.

그리고 그 반야는 3) 지상 최고의 보물이다. 이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으니, 그것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라, 모래알처럼 많은 우주에 깔린 칠보로도 까마득히 견줄 수 없다. 로또 당첨금 정도는 새발의 발톱에 낀 때에도 못 미친다. 사람들은 물을지도 모른다. "뭐 돈도 아니 되는 것을 그렇게 치켜 올릴게 무어냐. 그거 위선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은행의 잔고는 늘어나는데, 삶이 여전히 공허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낀다면, 이 말을 수긍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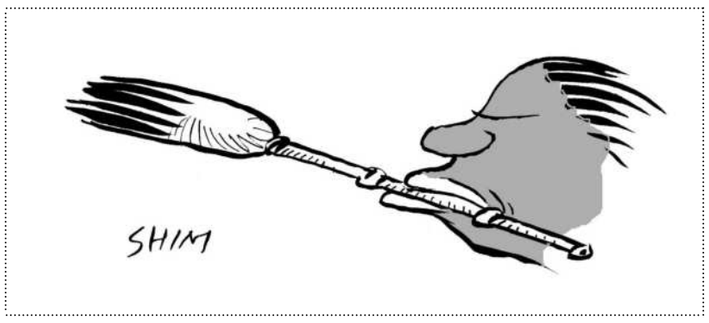
바라밀

바라밀은 도피안(到彼岸)으로 번역한다. 금강이 반야의 특성을 나타낸다면, 반야는 수단이고, 도피안은 그 반야를 써서 성취해야 할 목표에 해당한다. 도피안, 민통선 근처에 이 이름을 단 절이 있다고 들었다. "피안, 저 언덕으로 가 닿았다"는 뜻인데,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저 언덕은 그만 두고, 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덕'은 어디인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대책이 선다.

어찌 보면 개인이나 사회, 역사와 문명이 어느 것 하나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고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찾고, 피곤하면 퍼지르며, 나이가 들면 짝을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 등등이 그렇다.

세속이 추구하는 도피안은 외향적이다. 그것은 늘 밖의 대상을 포섭하고 동화하는 활동인데, 불교는 이와는 달리 내부의 피안에 도달하고자 한다. 마음의 안쪽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을지 모르겠다. 거기, 불건전한 상념과 정념, 충동들이 있다.

이 무지, 즉 무명(無明)이 있는 곳이 이 언덕이고, 이것을 불식시키고 마음이 밝아진 것이 저 언덕이다. 이 전이는 시간을 요하지 않고 한 순간에 일어난다. 전광석화(電光石火), 발뒤꿈치 한번 돌리면 열리는 세상이기에, 불교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다만 이 밝은 지식의 불꽃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돈오(頓悟)는 쉬운데, 점수(漸修)는 어렵다.

요컨대 불교는 이렇다 할 물건을 안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무득(無得)이라고 했다. 불도를 통해 우리는 얻기보다 차라리 잃었다. 그동안 나를 지배하던 불건전한 상념과 정념, 충동들을 태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질식하고 있던 불성이 기지개를 켠다. 그게 해야 할 전부이다.

하나 덧붙여야 할 것은, 이게 '몰록 깨달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흡사 기름때 가득한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다. 양손으로 한번 밀치면, 바다는 깨끗한 속살을 드러냈다가, 곧 다시 밀려오는 기름에 덮여버린다. 그 전에 다시 양손을 노처럼 저어 길을 열어야 한다. 한참을 헤치고 용을 써서 나가야 비로소 깨끗한 바다를 지나 부드러운 모래사장에 닿을 수 있다. 거기 시원한 콜라 한잔과 싫지 않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

그래서 점수(漸修)가 필요하다. 불건전한 상념과 정념, 충동들은 한번 태운다고 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 생을 거쳐 묵은 업장(業障)과, 태어난 이후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는 습기(習氣)로 하여 처음에는 뻑뻑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다가 숙련과 더불어 운신이 점점 임의로워지고 안정된다.

그것은 자동차 운전을 익히는 것과 닮았다. 처음에는 클러치, 액셀 브레이크 헷갈리고 운전대가 겉돌지만, 점차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음악을 흥얼거리거나, 지나가는 아가씨의 선글라스가 눈에 들어올 정도가 된다.

깨달음으로 일대사인연이 끝난 것은 아니다. 조주가 빗자루를 들자, 객이 핀잔을 주었다. "먼지 하나 없고 깨끗한데, 뭘 더 쓸려고 그러시오." 조주가 허공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런, 여기 또 하나 날라 오네."

도피안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사태이다. 피안은 시공을 점하고 있는 어떤 다른 세계에 있지 않다. 극락은 없다. 젖과 꿀이 흐르는, 환상의 나라. 서방 정토도 없다. 혜능은 <육조단경>에서 "그런 곳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서방 정토를 보여주랴"라고 했다. 이곳을 떠나가서 이르러야 할 저 곳은 없다.

지금 여기 서 있는 내 마음 밖에는 어떤 나라도 없으니, 혜능이 다시 말한다.

"마음이 헤매면 차안(此岸)이고, 마음이 깨달으면 피안(彼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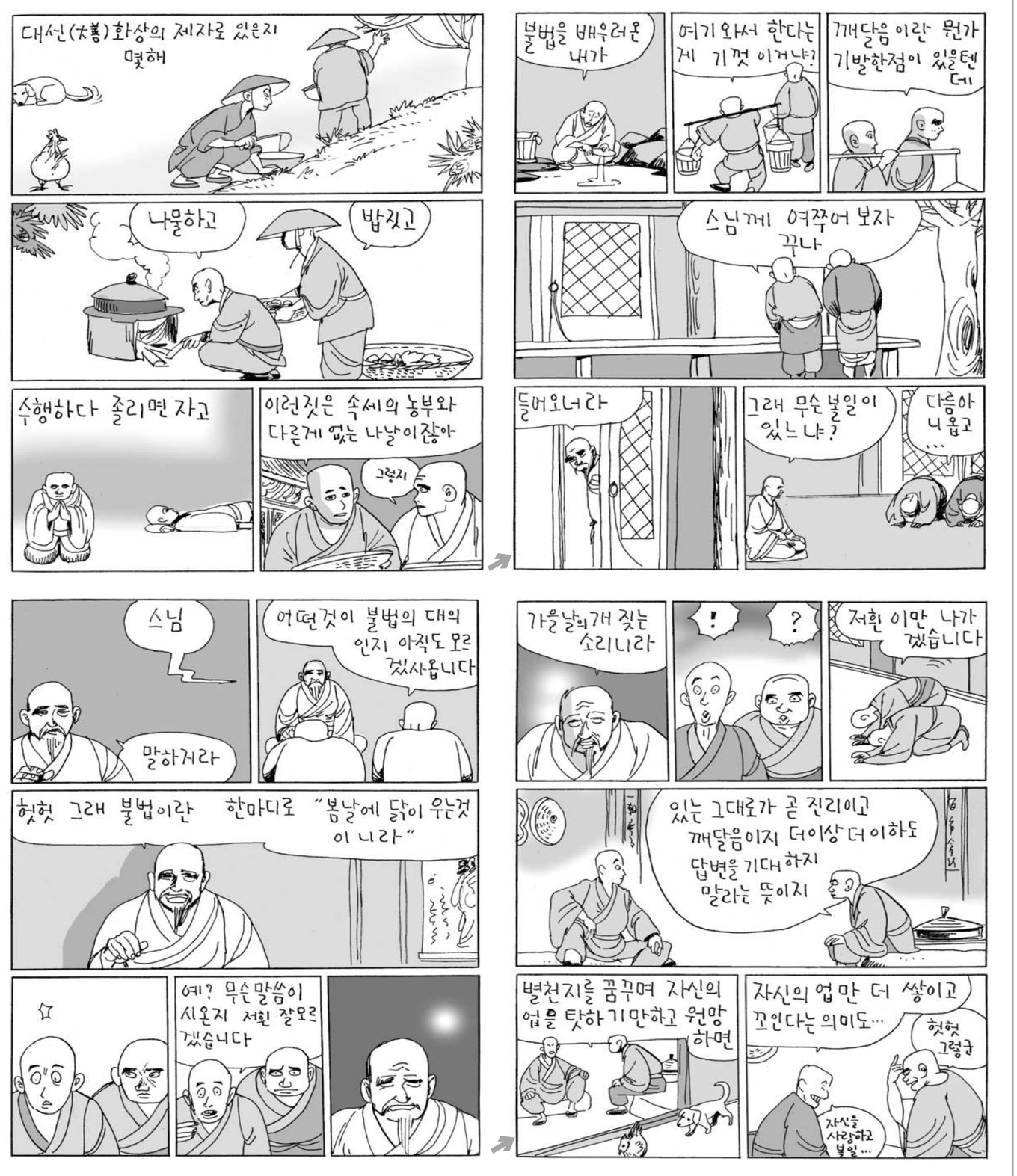
경

위와 같은 취지를 이 짧은 글에 담았다. 위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금강경>의 본문은 읽을 필요가 없다. 더구나, 수많은 주석도 돌아볼 필요 없다. 더구나, 내 군소리는 불쏘시개 감도 못되는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㉙ 대선화상의 '불법'

조태호



대선화상(?~?): 회양선사의 법손. <전등록>에 기록이 전함.

네티즌 교리문답

'재(齋)'가 제사인가요?

문 절집에 가면 의식이 매우 많습니다. 49재, 우란분재, 영산재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럼 이들 의식이 모두 죽은 자를 위한 제사인가요? 사실 '재(齋)'와 '제(祭)'의 개념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초보불자)

답1 : 재는 마음을 맑게 하는 불교만의 의식을 의미합니다. 사실 '재(齋)'는 '제(祭)'와 발음도 비슷하고 의식형태도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그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재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삼가며 맑게 하기 위한 의식이고, 제는 죽은 이를 위해 혼백이나 신령에게 음식을 바쳐서 정성을 들이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재'는 불교만이 갖고 있는 특수의식인 셈이지요. (불학자)

답2 : '재'의 어원은 범어 '우파바사타(upavasatha)'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의미는 본래 '승려의 식사'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스님들에게 식사를 공양하는 의식, 또는 그 와같은 의식을 중심으로 한 법회를 뜻하는 것으로 전용된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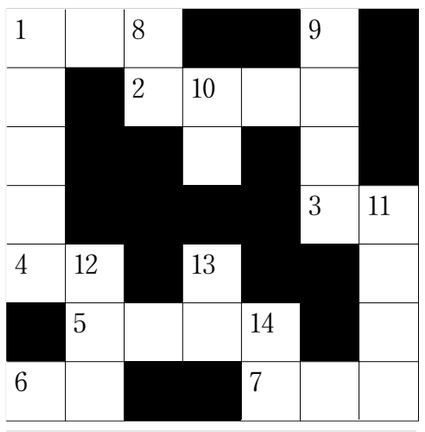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재'라고 하며, 성대한 불공(佛供)을 일컫는 말로도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재'로는 49재, 우란분재(盂蘭盆齋), 영산재(靈山齋), 예수재(預修齋) 등이 있지요. (금강소석)

답3 : '재'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삼가며 맑게 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계(戒)와 통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가지런히 하거나 맑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음에 부담이 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계율이기 때문입니다. 계에는 살생·도둑·음행·거짓말·술을 금지하는 오계(五戒)와 여기에다 꽃다발을 쓰거나 몸에 향을 바르거나 노래하고 춤추는 곳에 가서 구경하지 말 것, 높고 넓고 크게 잘 꾸민 평상이나 좌석에 앉지 않을 것,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 것 등을 포함한 팔계(八戒)가 있습니다. 팔계를 '팔재계'라고도 하지요.

8재계는 출가스님들에게는 가능하지만 재가신도에게는 지키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한달에 며칠을 재일(齋日)로 정해 절에 가거나 집에서라도 팔재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생겼으니, 매달 초 8일, 14일, 15일(보름), 24일, 29일, 30일 등 6재일인 것입니다. (알리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로 은진미륵이 있음 2. 두 팔 두 다리 머리 몸통이란 뜻으로 온몸을 이르는 말 3. 의로운 일을 위하여 일으키는 용기 4. 살구나무의 열매 5. 미련하고 우직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뜻의 고사성어 6. 화살을 병속에 던져 넣어 그 수효의 많고 적음에 따라 승부를 겨루는 놀이 7. 호리병박으로 만든 바가지.

세로 1. 대자대비와 지혜로써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보살 8. 스승으로 섬기며 그의 가르침을 받음 9.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가 있음을 나타낸 말 10. 타이베이가 수도인 나라 11. 용과 범이 서로 싸운다는 뜻으로, 힘센 두 사람이 승패를 겨루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12. 꼬리가 9개 달렸다는 전설 속의 여우 13. 오세아니아주에 위치한 섬으로 수도는 난디 14. 굳게 믿어 지키고 있는 생각.

조상들에게 배우는 지혜로운 자식교육



5백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최효찬 지음
예담 펴냄 | 1만3천원



전남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 다산 정약용은 10년동안 이곳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편지를 통해 자녀교육을 할 정도로 두 아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는 서신을 통해 풍부한 독서, 근검절약 등을 강조했다.

자식교육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렵긴 매한가지다.

5백년을 이어오는 명문가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자식을 교육했을까. <5백년 명문가의 자녀교육>은 인성 교육과 생활 교육을 중시했던 역사 속 위인들의 자녀 교육 방식을 통해 현대의 부모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지침들을 조목조목 소개하고 있다.

자녀교육의 해법을 위해 찾은 명문가는 10집. 풍산 류씨의 서애 류성룡, 고성 이씨의 석주 이상룡, 재령 이씨의 운악 이함, 양천 허씨의 소치 허련, 진성 이씨의 퇴계 이황, 해남 윤씨의 고산 윤선도, 나주 정씨의 다산 정약용, 한양 조씨의 호은 조전, 파평 윤씨의 명재 윤증, 그리고 경주 최씨인 경주 최부 잣집이다.

이 책은 바로 이들의 지조와 자긍심을 대대로 지켜오며 자녀교육의 모범을 실천해온 대표 명문가들의 종가와 고택을 직접 방문, 그들의 생생한 증언과 모습들을 담아냈다. 특히 이 책이 밝히는 명문가들의 공통점은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자식들에게 암묵적으로 영향을 끼친 아버지의 역할이다. 가족이란 틀 안에서 행해졌던 종가의 교육법과 교훈적인 내용들을 통해 부모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던져주며, 더불어 자녀를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해법을 알려준다.

먼저 서애 류성룡 종가를 들여다보자. 임진왜란 때 영의정 등 최고위직을 지낸 서애 류성룡(1542~1607)은 그 바쁜 와중에도 자녀들의 학문을 점검 독려하고 때론 따끔하게 질책한다.

서애는 두 아들에게 "학문은 정밀히 사색하고 자세히 질문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데 언제나 깊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없어 질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물론 서애 스스로는 책 읽는 아버지의 전형을 모범적으로 먼저 보여준다. 그래서 일까. 지은이가 서애 종가에서 찾아낸 교육 비결은 "평생 책 읽는 아이로 만들라"는 것이다.

유림의 기둥인 퇴계 이황(1501~1570)은 될성부른 후학들과 자기 자식을 함께 교육시키며 인맥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데 무던히 애썼다. 또한 퇴계는 학문이 깊고 똑똑한 제자가 있으면 아들과 손자,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해주고 함께 공부하게 했다. 똑똑한 아이나 공부에 뜻이 있는 아이끼리 더불어 공부하면 아이들은 더 경쟁심을 발휘해 학업에 열중하게 되고, 한결 뛰어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백의정승으로 꼽히는 명재 윤증(1629~1724)은 자녀교육을 위해 벼슬길마저 포기했다. 백부 윤순거의 영향으로 일종의 사립학교 격인 '종학당'을 세워 나이와 학문 정도에 따라 후학들을 양성하기도 했다. 특히 종가 사랑채는 담장이 없었다고 한다. 남들 앞에 부끄러울 것도 감출것도 없다는 의미였다.

- 평생 책읽는 아이로 만들어라
- 더 나은 친구로 인맥 네트워크 짜줘라
- 어떤 위기 상황에도 자녀교육은 철저히
- 양보하며 밑지고 살게 하라

자녀 교육으로 유명한 당대 학자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가 바로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 다산은 유배중에도 편지로써 자녀들을 독려했다.

다산은 자신의 유배로 인해 집안이 위기에 놓이자 자녀들에게 문명세계인 서울을 떠나지 말 것, 독서에 힘쓸 것, 재물을 나눠줄 것, 근검절약 할 것 등을 당부했다고 한다.

항상 남에게 '양보하며 밑지고 살라' 것을 가훈으로 정한 운악 이함(1554~1632)은 자녀들이 동네 아이들에게 맞고 들어오면 오히려 칭찬을 해주지만, 때리고 들어오면 크게 혼을 냈다고 한다. 이함의 17대손인 이용태 삼보컴퓨터 창업주는 '지고 밑지고 살라'는 이 집안 가훈덕에 인재들을 모아 창업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고산 윤선도(1587~1671)는 18년간 유배지에서 보낸 인물. 자신의 삶 때문인지 고산은 자식들에게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말라, 혹 벼슬에 오르더라도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또한 고산은 시서화뿐만 아니라 유학과 경제 지리 의학 음악 등에도 능했다. 서재인 녹우당은 잡학도서관과 흡사해 조선후기 호남 학문의 요람이 됐다. 대대로 수집한 수많은 서적들은 후손들이 지성의 바다에 빠져들게 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경주 최부잣집은 최진립(1568~1636)에서 최준(1884~1970)까지 12대 3백년 동안 존경받는 부자였다. 일제치하에서는 백산상회를 설립해 상하이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던 최준은 3백년 된 대저택과 논밭 24만평, 860만원 등 전재산을 대구대학 계림대학(현 영남대) 설립기금으로 내놨다.

이런 집안의 가훈은 과연 어떤 무엇일까. 첫째,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말라. 둘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셋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말라. 넷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주변 1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하라. 여섯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다.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1858~1932) 가문은 교육자들이 많은 집안이다. 망명중임에도 이상룡의 아들은 자기부인에게 논어와 맹자를 가르쳤고, 부인은 남편에게 맹자를 가르쳤다.

안동정착 5백여년 동안 석주 가문에서 과거로 벼슬한 사람은 1명이지만 석주 이후 독립운동으로 건국훈장 받은 이가 9명이다. 그 비결은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자녀교육만은 결코 소홀하지 말라였다. 또한 명가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라는 것이다. 한 후손은 "우리 집안은 독립운동 하느라 요즘에도 넉넉하지 않다. 그렇지만 잘사는 친일파들에게 조금도 꿀릴 게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블루오션전략
르네 마보안 지음 | 김위찬 지음 |
강혜구 옮김 | 교보문고 펴냄 | 1만7천원

산업화 이래로, 기업들은 끊임없이 경쟁에 임해왔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을 넓히기 위해 싸우고 있고, 차별화를 위해 투쟁하며,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맨다.

하지만 애초에 경쟁자가 없는 시장공간을 창출하면 어떨까? 이 책은 전략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한 필수조건들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다.

지은이들은 100년 이상 지속된 30여 분야의 산업에서 150여 건의 전략적 이동(Strategic Move)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포드 자동차의 모델 T부터 애플의 iPod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진 한 가지 공통점인, 전략적 이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블루 오션이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경쟁없는 시장공간, 즉 블루 오션을 창조하였다는 것이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바로 한정된 시장공간에서 서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의 먹이를 빼앗아오는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고, 블루 오션과 같은 새로운 공간으로 나가야 기업과 산업이 영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레임워크와 방법이 담겨있다.

경쟁없는 시장을 창조하라

어찌보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블루 오션을 창출하기 위한 사례, 방법을 찾기란 쉽지않다. 책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경영 전략의 대가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아주 훌륭한 경쟁론이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레드 오션(경쟁자가 있는 공간)에서 기업들은 오로지 현재 존재하는 시장에서 수요자를 찾는 데서만 성장을 국한시킨다. 그 대신, 그들은 시장 바깥에 있는 비고객들에게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블루 오션처럼 거대하고 무한한 새로운 시장공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골프채 회사인 캘러웨이에서 도전적인 스포츠에 겁먹은 비골퍼들을 위해 새로운 블루오션을 열었다. 골프채의 헤드가 크게 디자인된 '빅버사'라는 골프용품에 대한 새로운 요구의 블루 오션을 창출한 것이다.

레드 오션에서는 고객들이 동종 산업 안에서 타 경쟁자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만 질문한다. 그렇지만 블루오션을 창출한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산업간 경계를 넘어서까지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듯 블루오션 전략은 치밀한 방법론을 제시하며, 거대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블루 오션 전략은 비단 기업 경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요즘 대선을 앞두고 일선 정치인들도 블루 오션을 배우겠다고 야단들인 모양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블루 오션을 응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삶이 진부해 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김영인(KTF 전략정보팀장)

만불산 만불사
홈페이지 www.manbulsa.org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만 불 사 ▼ 이동 를 치시면 제 1, 2, 3회 산사음악회 동영상을 보실수 있으며, 제 4회 산사음악회 초대권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선음(線音) 속에서 찾는 산사의 명상세계

8월 19일(음 7.15) 금요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네 번째 산사음악회에서는 불자 여러분께 선음 속에서 산사의 선(禪)과 명상세계를 선사합니다.

◈ 제4회 달맞이 산사음악회 출연진 ◈


가수 심진 스님


가수 도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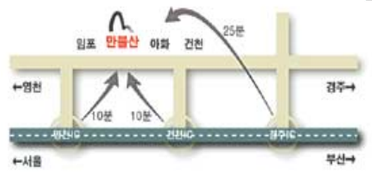

가수 범능 스님


인도전통음악 바르기브 미스트리


해금연주단 이현의 농

● 일 시 : 8월 19일(음 7.15) 금요일 오후 7시 ● 장 소 : 만불산 만불사 대웅전
● 입장료 : 대인 5천원 / 소인 3천원
(만불산 정기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입장료 무료입니다.)

● 찾아오시는 길



〈경부고속도로 상행편〉
건천 I.C에서 4번국도 영천방면 10분 / 경주 I.C에서 4번국도 영천방면 25분

〈경부고속도로 하행편〉
영천 I.C에서 4번국도 경주방면 10분

문의 : 영천 054) 335-0101
대구 053) 756-0101
서울 02) 522-0101
부산 051) 558-0101
마산 055) 251-0104
그외지역 1600-0101

7년 왜란 끝낸 숨은 주역 '의병'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서산대사 진영.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사명당 유정 선사 진영.

서산대사 · 사명당 등 의병장 9인이 쓴 시 · 격문 440편 의병들 활약상 '생생'



임진년 난리를 당하매
곽재우 외 지음 | 오희복 옮김
보리 | 3만원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평양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해 7월, 서산대사 휴정(1520~1604)은 73살의 노구를 이끌고 묘향산 보현사를 중심으로 전국의 승려를 모집해 의병을 일으켰다. 금강산 유점사에 거처하던 사명당 유정(1544~1610)도 강원도 금강산에서 승병을 모았다. 이들이 평양에서 합류해 12월 10일 평양성을 공격하자 고니시 부대는 성에 불을 지르고 얼어붙은 대동강을 건너 도망갔다. 사명당은 당시의 상황을 중사(中使, 임금의 명령을 전하던 내시)에게 이르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진영에서 만나 뵈니 이것 정녕 우연인데/ 깊은 밤 북소리를 함께 듣게 되었어라/ 남방의 일 어떤가고 임금님 물으시면/ 머리 센 늙은 중이 성 지킨다 일러 주오." ('중사와 작별하며' 전문)

흔히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만을 기억하기 쉽지만, 7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전국 곳곳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떨쳐 일어난 의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금과 관료들이 백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는 사이 백성들은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다. 유생 곽재우(1552~1617)는 사재를 털어 의병을 일으켰고 전라도 담양에서는 선비 고경명(1533~1592)이 백성을 불러 모았다. 이들은 '분충토적(충성을 다해 적을 친다)'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왜적의 침입을 막아냈다.

산중의 스님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명대사는 스스로 승병 대장이 되어 잠깐 사이에 5천여 명의 승려를 모아 수많은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고, 사명당은 전쟁이 끝난 후 외교 사절로 일본에 건너가 조선인 포로 송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사명대사는 함경도 백성들에게 보내는 격문(格文)에서 "그대 부모 된 자들이여! 나라가 망하면 집을 어이 보전하며,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부디 자제들을 잘 타일러서 나라를 저버리지 말게 하라"고 호소했다.

당시 숭유억불 정책으로 사찰과 승려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지만, 전란 앞에서는 이 같은 차별도 무의미했다. 의병장 고경명의 아들 고종후(1554~1593)는 사찰에 격문을 보내 자신의 아버지와 아우가 전사한 일을 들어 "생각건대 불교 교리는 자비로써 근본을 삼았거니 나의 오늘의 처지가 어찌 슬퍼할 일이 아니겠는가?"라며 승병 조직을 촉구했다.


1592년 12월 10일. 서산대사와 관군이 왜군 점령하에 있는 평양성을 공격하자 왜군은 성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 그림은 고려대 박물관에 소장된 '평양성 전투도'.

<임진년 난리를 당하매>는 이처럼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이끌었던 서산대사, 사명당, 곽재우, 조헌, 고경명 등 의병장 9명의 작품을 모은 책이다. 가려 뽑은 420여 편의 시와 격문 20여 편에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채 나라를 위해 죽어간 의병들의 활약상과 고향과 나라를 사랑하는 감정이 애절하게 담겨 있다. 특히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작품에서는 스님이면서 나라를 위해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한 아픈 성찰을 읽을 수 있다.

서산대사는 '남산에 올라 서울을 바라보며'에서 "하늘을 높고 땅은 두터우니/ 우리 조선은 만년 세월 영원하리라"며 나라 사랑을 표현했고, 곽재우는 '싸움터'라는 시에서 "고함 소리, 북소리는 바닷물을 삼키런 듯/ 번뜩이는 칼날들은 붉은 해를 덮었는데/ 수천 명의 원수들을 삼대 베듯 하였어라"며 당신의 투쟁을 묘사했다.

보리출판사가 북한 문예출판사의 <조선고전문학선집>을 <겨레고전문학선집>으로 다시 펴내는 시리즈 중 9번째 책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오희복 박사 부교수가 우리말로 옮겼다. 웅글다(소리가 깊고 굵다), 보리가을(보리를 거두어 들이는 일) 등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북한 방언을 그대로 살려 우리말의 풍부한 모습을 확인

어디에 마음도장 찍을까?



마조어록
김태완 엮음
침묵의향기
9천원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식을 늘리기 위해 선어록을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선 공부를 위해 읽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 공부를 위해 선어록을 읽는 사람이라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최근 마조도일(709~788) 선사의 선어록을 풀이한 <마조어록>을 펴낸 부산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은 선어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이와 같이 설명한다.

선어록은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하며, 선어록을 통해 다양한 광경을 만나더라도 결국은 목적이 깨달음에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이 깨달음으로 가는 뗏목으로 선택한 <마조어록>은 <만신찬속장경(卍新纂續藏經)> 제69책 <마조도일선사광록(馬祖道一禪師廣錄)>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이다. 책은 원문과 번역, 주석, 도움말의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김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문은 가능한 직역에 가깝게 번역했고, '주석'은 여러 용어의 설명이나 바른 견해를 풀이한 것, '도움말'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선의 세계와 분별에 끌려가지 않고 곧바로 쉬는 자리를 암시하는 것"이다.

"남악회양에게는 6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오직 마조도일만이 은밀히 마음도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4장 '인가(印可)'에서는 '마음도장'을 "마치 도장을 선명하게 찍듯이 마음 역시 분명하게 깨달아 확인하므로 마음을 마음도장이라고 한다"고 풀이한 후 다음과 같은 도움말을 덧붙였다.

"마음도장은 어디에다 찍을까? 허공에다 찍는다. 허공 어디에다 도장을 찍을까? 살펴보면 벌써 한참 어긋났다."

책 말미에는 마조도일 선사의 생애와 마조선 해설, 선종 법계보, 중국 선종 연보 등을 모아 부록으로 엮었다.

여수령 기자

새로나온 책



■ **<라마나스라맘에서 보낸 편지>**(수리 나감마 지음, 대성 옮김, 탐구사, 2만원)=인도의 영적 스승의 한 명인 바가반 스리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의 제자 수리 나감마가 마하르쉬의 삶과 가르침을 전한다. 수리 나감마는 마하르쉬의 생애 마지막 5년간에 걸쳐 구도자들과의 문답을 편지 형식으로 담았다.

마하르쉬는 17세에 남인도 타밀나두 주의 성산(聖山) 아루나찰라로 출가해 54년 동안 그곳에서 구도자들에게 깨달음을 전파했다. 제자들과 나눈 문답에서 마하르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보편적인 화두를 제시하고, 이러한 자기탐구를 통해 우리가 자신의 참된 성품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



■ **<Click>**(창간호, 리더스넷)=명상전문 월간지 <Click>가 창간됐다. 한국인 교포 게이트(Gate)가 운영하는 인터넷 명상모임 붓다필드(www.buddhafield.or.kr)가 창간한 이 잡지는 '자유'와 '깨달음'을 주제로 참다운 명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이수성 前 국무총리는 "기성의 권위나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모든 가능성을 찾아내도록 하는 붓다필드의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다"며 "월간 <Click>이 내적인 성장의 디딤돌이 되고 외부 세계와의 소통에 열린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창간호에서는 회원들의 글과 인터뷰, '붓다 명언록', '생활 속의 명상요가' 등이 실려있다.



■ **<탐욕과 오만의 동물실험>**(레이 그릭 · 진 스윙글 그리 지음, 김익현 · 안기홍 옮김, 다른세상, 1만5천원)=우리가 복용하는 약의 대부분은 동물실험을 거쳐 탄생한 것들이다.

하지만 수많은 동물들을 희생시키며 진행된 동물실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미국에서만 매년 입원환자의 15%에 해당하는 10만여 명이 약물 거부반응으로 죽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물실험은 도대체 언제부터, 왜 실시됐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험과 그 실험으로 탄생한 약물은 안전할까? 책에서는 동물실험의 비윤리성뿐 아니라 동물실험을 통한 약물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사십이장경
성법 스님 옮김
정우서적
4천원

우리말로 보는 사십이장경

최초로 중국에 전해져 한역(漢譯)된 <불설사십이장경>은 제목에서 보듯이 부처님의 설법을 42개의 장으로 나누어 설명한 경전이다.

이 경전은 불교 교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고(苦) 무상(無常) 무아(無我) 등을 알기 쉬운 비유를 통해 설하고 있다. 또한 불교 수행의 목표를 간단명료하게 서술해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긴 성법 스님은 "우리나라에서는 동북아시아권에 부처님의 말씀이 최초로 전해지게 한 <불설사십이장경>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있지 않다는 점이 안타까워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말한다. 1993년 망월사에서 펴냈던 내용을 다듬어 다시 펴낸 것이다. 성법 스님은 현재 남한산성 망월사에 머물고 있다.


전등록 전 30권을 5권으로 완간!
전강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의 번역. 기존의 학술적 번역과 달리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른 법을 밝게 밝혀주는 <바로보인 전등록>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나 불세존은 가섭과 아난이 남섬부주 대한민국 땅에 왔음을 선포하노라..... (서문중에서)
중생들의 네개의 영체에 대한 법설, 붓다는 무아속 절대 세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사자후, 그리고 붓다는 어떤 어른 인가를 깊이 언급하고,바가바드기타를 능가한 완벽한 생사관의 정립.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보살 붓다로의 위계설정, 지옥이 있고 극락세계도 있다는 등 불교사의 미증유한 법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자재만현 지음
2개월여만에 3판 돌입, 계속 베스트셀러 1위 유지 (도서총판 운주사 8月 집계, 화제의 성서, 절찬리 판매중)
윤회안과, 윤회밖 해탈의 세계를 보다 깊이 갈파한 경전과 같은 보고서.
이 시대를 사는 불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붓다의 메시지
– 장려한 불교체계의 구축, 보다 선명한 생사관, 불교문예 부흥 .... 가히 파천황 운운 <선문화 6월호>에서는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나타난 만현 스님의 법(法)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선문화 6월호)
– 2005년 9월 4일 부터 3개월간 자제만현스님의 매주 불교TV 방송설법(12회)을 시청하시라!
현지궁 현지사 펴냄 | 자재 만현 지음 | 가격 15,000원 | 300쪽 | 구입문의 033)243-1787,1795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무한한 상상력에 날개 달아주자!

불교 애니메이션의 현주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애니메이션 축제인 '2005 동아 · LG 국제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8월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민미술관에서 열린다. 9회째를 맞은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등 일상생활에서 뽑아낸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대거 선보인다. 특히 예년과 달리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도 몇 개 들어 있어 주목을 끈다. 캐릭터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신십이지신상'과 '무제'가 바로 그것. 지난해까지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거의 없었던 점으로 비춰볼 때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 등 다른 종교들에 비하면 무궁무진한 소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교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불교 애니메이션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점검해본다.



불교문화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상 불교 애니메이션의 제작은 그리 활발하지 않다. 눈을 돌려보면 불교소재로 활용할 애니메이션의 테마는 무궁무진하다. 사진은 연등행렬을 보고 재구성한 '원더플데이즈'의 델로스 타워.

오세암, 원더플데이즈 등 독특한 소재 가능성 보여
자료는 무궁무진, 상업적 활용에 대한 인식은 부족
공모전 개최, 장학금 지원 등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소재 많아도 작품은 '가뭄의 콩' 나듯

2000년 이후 불교 애니메이션 작품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작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전남 화순 운주사 와불에 얽힌 전설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지역업체에 의해 공동 제작됐다. 이 작품은 도선국사가 창건한 운주사의 와불을 일으켜 세워 천불천탑이 완성되면 미륵 세상이 도래한다는 전설을 바탕으로 운주사 '미완의 미륵세계' 정신이 담겨져 있다.

2004 프랑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장편 경쟁 부문 최고상인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애니메이션 '오세암'(감독 성백엽 · 제작 마고21). 백담사 오세암의 설화를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불교적 소재를 통해 한국적 정서를 훌륭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3년 김문생 감독이 만든 '원더플데이즈'는 7년간 126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애니메이션 영화다. 촬영기법도 2D · 3D · 미니어처 실사까지 멀티메이션 기법이 사용돼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영화에 등장하는 컨트롤 룸인 델로스 타워는 김문생 감독이 부처님오신날 보았던 강남 봉은사의 연등행렬에서 따온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한서대학교 애니메이션영상연구센터는 감로탱의 디지털 가공을 통해 문양과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에 활용했다.

▲왜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불교문화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불교계는 이에 비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재 발굴 때문에 사찰을 찾으면 비협조적이라고 애니메이션 관계자는 고충을 호소한다. 실제로 모 애니메이션 관련 프로덕션사는 최근 국제 영화제를 겨냥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전국 국보급 문화재들을 촬영해 애니메이션 영화에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대부분 사찰에서 성보문화재는 카메라에 함부로 담는 것이 아니라고 쓴소리만 듣고 촬영을 거부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정민 애니프로덕션 감독은 "불교계는 불교문화의 상업적 활용가치에 대해 너무 모른다"며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도 한국을 대표할만한 무궁무진한 소재를 갖고 있음에도 자료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동아-LG, SICAF 등 국내에서도 요즘 애니메이션 공모전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그만큼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이제는 각 종단들도 소규모의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불교미술대전과 같은 형식의 공모전을 개최한다면 불교 소재 애니메이션 콘텐츠도 무한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유일의 애니메이션 학과인 하남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와 같은 곳에 장학금을 통한 불교인재 양성과 포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문생 감독은 "애니메이션은 특히 상상력이 강조되는 예술 장르"라며 "한층 창의력이 개발되고 있는 젊은 인재들을 육성한다면 불교 애니메이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은택 광주과기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도 "애니메이션이 꼭 영화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므로 애니메이션 '운주사의 전설'과 같이 지방 자치단체와 연결해 해당지역 불교문화 유산을 소재로 작품을 만든다면 지역문화 발전은 물론 불교 문화의 역량 축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아! 윤이상

10주기 맞아 국내외 행사 다채

한국이 낳은 천재음악가, 냉전체제 항거 음악가, 현대음악의 거장 등 다양한 수식어로 불리는 윤이상 선생(1917~1995)의 타계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고 있다.

8월 18일 오후 8시 KBS 교향악단이 특별연주회 '아! 윤이상'을 무대에 올린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윤이상 플루트와 소관현악을 위한 협주곡'(1977)을 국내 초연하고 '윤이상 관현악을 위한 서주와 추상'(1979)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4번 f단조 작품36' 등을 연주한다. 윤이상 교향곡 1 · 2 · 3번을 일본 초연한 재일동포 지휘자 김홍재(51)씨가 지휘를 맡고 가토 모토야키가 플루트 연주를 맡는다.

이에 앞서 15일 오후 4시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광복 60주년 기념 음악회를 통해 코리안 심포니(지휘 장윤성)가 윤이상 선생의 '오보에 협주곡'을 선보였다. 2003년 통영국제음악제에서 국내 초연된 이 작품은 이번에 수원시향 수석 오보이스트 이윤정씨가 국내 연주자로는 처음으로 도전해 눈길을 끌었다.

10주기가 되는 11월 3일에는 윤이상평화재단 주최로 고대 인촌기념관에서 윤이상 추모식이 열린다. 추모행사와 더불어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윤이상 앙상블의 내한 공연과 무용 국악편곡 등의 다양한 문화장르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3일 통영 부산 김해 등지에서도 오라토리오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공연이 준비되고 있다. 민간 합창단 한울림합창단(단장 차재근)이 국내 초연하는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는 4명의 독창자와 합창 관현악을 위한 42분 작품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연주회도 줄을 잇고 있다. 통영국제음악제 상주연주단인 TIMF앙상블은 8월 10일 아시아작곡가연맹(ACL)의 초청으로 태국 ACL페스티벌에 참가했다. 9월 23~24일에는 폴란드의 세계적인 음악제 '바르샤바의 가을'에 초청받아 '윤이상의 8중주'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연주회 외에 음반과 전시 등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바로크합주단이 연주한 윤이상CD는 세계적인 음반사 낙소스에서 나온다. 국내 단체가 연주하고 세계로 발매하는 첫 번째 CD에는 '실내교향곡 1번가 하프협주곡 1번'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융단' 등이 수록된다.

사진 글 문서를 기본으로 그 위에 회화와 설치를 더해 윤이상 선생을 형상화한 작품은 광복 60주년 기념 '큰 사람, 큰 인물'전에서 만날 수 있다. 8월 14~28일까지 국회 잔디마당과 본관 테라스에 마련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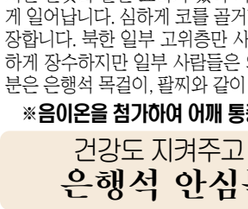


법비 내리는 곳!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곳!
동 해 사
어떤 소원도 이루는 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소원 이루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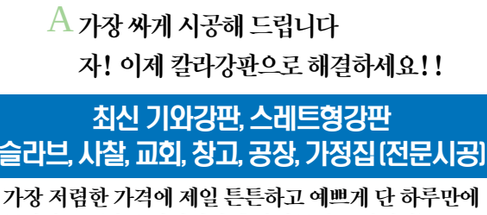

▶ 낙산사 홍련암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3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점심 공양 제공(예약에 한함)
답답한 분 상담은 혜명스님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671-6079

소원성취 기도도량
봉화 약수암
봉화에 위치한 **약수암은 부처님의 가피와, 산신각의 산신 할아버지의 영험함, 그리고 경내 석간수로 흐르는 약수의 치유력**으로 고통받아 오던 신도들이 건강을 되찾고, 소원하던 바를 이루어 가며 점차 기도도량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난치병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김순분 보살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지병으로 삶을 포기했던 박정희 보살님.... 약수암 부처님께 의지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한 결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님들 또한 약수암의 기도로 원하는 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약사암
삶의 끝에 서 있다고 절망하는 신도님들께 마음과 질병의 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약수암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돈보다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2리 약 수 암
(분천역 바로 뒤 /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 현동, 울진방향)
054)672-7932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배개볼 1인용 ~~75,000원~~ → 45000원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잇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신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氣를 골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 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125,000원~~ → 95.000원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 주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①

주제 : 계와 율이 생긴 까닭은? (8월 6일)
법주 : 종진 스님 (해인총림 율주)

계율은 부처님 삶으로 나아가는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은 계와 율을 배우는데서 그치지 않고 올바로 실천할 때 참다운 행복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를 지녀 신구의(身口意)를 깨끗이 하고 / 섭심하여 생각을 바로잡으며/ 다문하여 진실지를 나타내나니/ 계율은 이들의 바탕이 되네.

계율은 미묘법을 간직하는 곳/ 그대로가 출세간의 재보(財寶)가 되고/ 계율은 큰배를 타고 감과 같은 것/ 생사의 저 고해를 건네어 주네.

계율은 청량한 연못이 되어/ 모든중생 열뇌(熱惱)를 모두 식혀주고/ 계율은 두려움없는 이슬이되어/ 중생의 사독해(邪毒害)를 제거해 주네.

(범망경 보살계 '계율찬' 中에서)

사회에서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몇몇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교 계율에도 역시 그런 식의 사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율은 그것을 지키고 공부하는 율사스님들만의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만연합니다.

오늘 법회의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부처님의 삶을 배우는 법회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율은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스님들이 지키는 소승계와 재가자들이 지키는 대승보살계가 그것입니다. 스님은 비구 · 비구니 · 식차마나니 · 사미 · 사미니계가 있습니다. 또 남자신도는 거사라 하고 여자신도는 보살이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지켜야하는 것은 재가율장입니다.

오늘 출가 5부중(비구 비구니 식차마나니 사미 사미니)과 재가대중들을 모여 법회를 열고 있는데 법문 중에 혹시 뜻하지 않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계율을 설명할 때는 스님과 신도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구분되어 있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戒)는, 중국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 때 두 손으로 무기를 들고 경계를 선다는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 뜻을 빌리자면 계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한 행동, 좋은 습관, 좋은 성격, 도덕적 행위 등을 잘 익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출 · 재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지침을 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율(律)은 우리 세속의 법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출가자가 잘못을 저질러 벌을 줄때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제재를 가합니다. 곧 잘못이 있을 때 벌을 받고 그 벌을 받은 다음, 다시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 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삼귀의(三歸依)도 역시 계율에 관한 겁니다. 흔히 깨닫은 분을 '부처님'이라 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가르침'이라 합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아직 승단이 이루지 않았을 때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라 해서 이귀의(二歸依)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승가가 이뤄지면서 불법승(佛法僧) 삼보에 귀의하라는 삼귀의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삼귀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계율이라고 봐야 합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5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로 5계를 '~하지 마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라, 행실을 바로 하라, 술을 먹지 말라'고 해석하는 데 사실은 '제거하라' '떠나라' '조심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도둑질 않고, 거짓말 않고, 헛생각 않고, 죽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할 인간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팔관재계(八關齋戒)'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만 하루 동안 8가지 계(첫째 살생하지 말라, 둘째 도둑질하지 말라, 셋째 음행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 다섯째 음주하지 말라, 여섯째 몸에 패물을 달거나 화장하지 말며 노래하고 춤추지 말라, 일곱째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 여덟째 제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를 받고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즘 오대산 월정사의 단기출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 신도가 이러한 계를 어긴다고 무슨 벌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부처님은 지계가 청정한 삶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인과의 법칙을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 설명하십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5계를 지킬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바른 도리입니다. 수계식 때 받은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됩니다. 재가불자는 이것만 지켜도 어김없이 열반이라는 행복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좋은 말만 하라. 둘째, 이치에 맞는 말을 하라. 셋째, 남을 상하게 하는 말 하지마라. 넷째, 늘 진실만을 말하라는 겁니다.

제가 1985년부터 율장을 공부했지만 어디서도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모진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해치고 가족과 주위를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를 지킨다는 것을 지계(持戒)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내 것'이라는 표현 참 좋아하지요. 아무리 계를 잘 알고, 설명을 잘해도 오래 익혀 몸에 배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속담에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죠?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율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늘 재가불자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불자의 기본은 합장입니다. 합장을 단정하게 하고, 신을 반듯하게 바로 벗어놓으세요. 이 두 가지만 바로 해도 나머지 것은 차차로 갖춰집니다. 겉모습을 부처님 같이 하다보면 속도 나중에 부처님처럼 자비심으로 넘쳐날 거예요.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스님들에게 계율은 목숨처럼 중요합니다. 이생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 부처님을 만나 제자가 된 스님들은 매우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재가자와는 달리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은 가지수도 많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승단을 이끌어 나가실 때는 무엇이든 좋은 일만 하라, 그리고 나쁜 일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로만 승단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율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 한 지 12년이 지나 어떤 제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계기로 처음 제정됐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승단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무렵 부처님은 인도의 빔비사라 왕에게 나라의 중죄인을 다스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평생 부처님을 떠받들었던 빔비사라 왕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 할 때, 남의 부인을 넘볼 때, 대중이나 국왕을 일부러 망령되게 속이고 거짓말을 할

누구나 지켜야 하고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것
못 지키는것 '자기 허물'이지
'계율 허물'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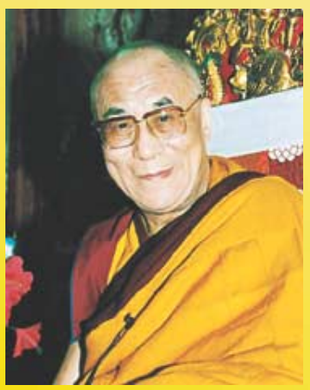


계율수행대법회에 참석한 스님과 불자들이 종진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법회 동영상 중계
buddhanews.com

※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기사 관계로 10주동안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과 '스님이야기' 연재를 쉽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베트 불교의 원전인 입보리행론(깨달음에 드는길)
을 5일동안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5년 12월 12일 - 12월 16일 (5일간)
■ 장소 : 인도 티베트 망명정부가 위치한 다람살라
■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 (진옥스님 061-662-1607)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샨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
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복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A팀 기간 : 12월 3일~12월 18일 16일간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살리-
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설법)-찬디가르-델리-인천
B팀 기간 : 12월 9일~12월 18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C팀 기간 :12월 10일~12월 19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 출발일 :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
탁실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
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
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카슈카르-
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 8월 20일 - 27일(4박 5일) 749,000원
● 8월 24일 - 31일(3박 4일) 699,000원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생활의 길잡이

때 사형을 시킨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처님도 승단이 지켜야 할 4가지 계를 제정하십니다. 그 뒤로 승단의 질서와 스님의 위의에 관련된 수많은 계율이 생겨납니다. <사분율>에는 비구 250, 비구니 348가지의 계율이 나옵니다.

계율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씩 추가하다보니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계율을 제정하다보면 어떤 계율은 특수한 상황에서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생겨납니다.

오늘도 날씨가 몹시 덥지요. 원래 부처님은 한달에 목욕을 2번만 하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땀이 나는데 그 원칙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나 바람을 맞고, 땀을 많이 흘린 환자들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계율은 전혀 융통성이 없이 제정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구 250, 비구니 348가지 계율은 비구와 비구니가 부처님 삶을 배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스님들에게 계율은 의무이지 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족계를 받는 순간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이 세상을 다할 때 까지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라고 합니다. 계정혜(戒定慧)는 부처님의 세계, 열반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배우고 그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부처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목마른 이는 물을 마셔야 갈증을 이길 수 있고, 무더움을 느끼는 이는 부채질을 해야 시원합니다. 결론은 실천이 따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열반이 어떻다 뭐다 백날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와 율을 배워서 실천할 때라야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면 '집을 지을 때 터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터를 잘 놓지 못하면 집은 오래 갈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리=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말 잘하는 비결

1. 가장 좋은 말을 하라
2. 진리에 맞는 말을 하라
3.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
4. 진실을 말하라

〈숫타니파타〉

일우 율사 계맥 이어

종진스님은 1940년 강원도 강릉 출생. 55년 동화사에서 석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61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63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70년 지관 강백스님으로부터 강맥(講脈)을, 85년 일우 율사로부터 계맥(戒脈)을 이었다.

1970년부터 8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인사강원 강주, 1985~98년 해인총림 율원장, 1999~2004년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를 지냈다.

조계종 재심호계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계단위원, 법계위원, 의제실무연구회 위원, 해인총림 율주를 맡고 있다.



동화사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주최한 계율수행대법회의 첫번째 법주로 나선 종진 스님은 8월6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15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계와 율이 생긴 까닭'을 주제로 법문을 했다.

논 찬

파계자들이 '개차법' 악용해 변명삼아선 안돼



지현 스님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 : 오늘 법주인 종진 스님은 제가 출가하면서부터 늘 존경하던 스승으로 저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새롭게 하면서 유지시켜준 힘은 삼보님의 힘과 청정계율의 힘이었습니다. 계율의 힘은 욕심 많고 어리적은 제 자신의 중심을 잡아주는 방편입니다.

하지만 출 · 재가자의 구분이 옅어지고 비구 · 비구니 수행자들이 법 세우는 힘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계율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부처님이 인도에서 맨 처음 5비구를 제도한 것을 시작으로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후 부처님 열반 500년이 지나 용수보살 등이 주창한 대승불교운동이 번성합니다. 그러나 불법이 가장 활발하게 꽃필 무렵 인도에서 불교는 사라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대승불교운동이 승가와 재가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인도에서 불교를 사라지게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승보살운동의 핵심은 출 · 재가자를 가리지 않고 보리심의 발하는 정도에 따라 누구나 비구 비구니 보다 높은 지위의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단에서 승속의 구분이 약해지고, 계율조차 흐려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출가자는 재가자에게 법을 보시하고, 재가자는 승가에 물질을 공양하는 본질적 역할을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재가자들이 출가자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간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령 참여불교재가연대 같은 경우 절의 수입이 늘면서 생기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재가자들이 종단운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스님의 부정적인 면을 언론이나 인터넷 등으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불성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업성(業性), 수행력, 신분은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 역할도 다릅니다. 출가와 재가가 서로를 도우고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계율대법회가 출 · 재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계율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 계의 조목마다에 지범개차(持犯開遮)에 대한 정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율을 소홀히 하여 배우지 않은 탓에 계율을 어겨놓고서도 이를 변명의 구실로 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진 스님 : 지(持)는 계율을 지킨다는 뜻이고, 범(犯)은 못 지킨다는 것인데, 반드시 지킬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이를 허용하는 것을 개(開)라 합니다. 그러다 상황이 개선되면 그것을 다시 막는 것을 차(遮)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 걸식하라는 계율이 있었지만 어느 해 극심한 기근이 들어 도저히 걸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손수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풍년이 들어 형편이 나아지자 다시 제자들에게 걸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율을 지킬수 있도록 유연성을 인정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계를 지키지 못한 이들이 이 개차법을 악용해 변명의 구실로 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제자라면 계와 율의 근본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율은 시대 변화에 맞게 바꿔야… "不可"



이자랑
(동국대 강사 · 인도철학)

이자랑 : 계와 율은 방비지악(防非止惡), 즉 잘못된 것을 막고 악을 멈춤으로써 올바른 행을 몸에 익히고 이를 기반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계율이란 자기 자신을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심신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잘 지켜 번뇌에 휘들리지 않고 항상 두려움 없는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주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을 단속하며 다른 생물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는 계율이라는 자발적인 힘은 분명 나라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도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1 : 평소 율사스님들에게 계율을 지키는 것이 어떤 점이 좋은 지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율을 지키는 것이 어떤 공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진 스님 : 저는 출가한 뒤로 잠잘 때를 빼곤 거의 행건(行巾 · 무릎아래 단을 쳐서 묶는 천)을 차고 있습니다.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한 모양입니다. 일찍 배워 익히면 나이 들어도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이처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한다면 차차 익혀나감으로써 계와 율이 몸에 배여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질문2 : 부처님은 잘못이 발생할 때 마다 그것을 규제하는 수범수제(隨犯隨制)를 원칙으로 율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반직전에 소소계(小小戒 · 중요하지 않는 작은 계율)는 버려도 좋다고 하신데서 보아도 율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종진 스님 : 원칙적으로 수결(隨結 · 계율을 제정해 죄를 막는 것)과 수개(隨開 · 계율에 예외를 두어 완화하는 것)는 모두 부처님만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여기저기서 율을 고치자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경(經)에 대해서는 고치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부처님 친설(親說)이 아닌 경들이 많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율에 대해서만 유독 시대가 바뀌었으니 고치자 하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계율 때문에 수행에 방해가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리 저리 고쳐서 근본 가르침을 훼손하다보면 원형은 사라지고 원칙도 없이 혼란만 가중될 수 있어요. 계율을 만들고 없애는 것은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우리주변에 걸식하는 이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걸식하라 했지만 한국에서 걸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걸식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만 다 형편에 따라 맞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계율 때문에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계율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탓해야지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탓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질문3 : 부처님은 재가불자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때로는 외도들의 비판까지 감안해 계율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승단이 교단 내부는 물론 다른 종교와 일반사회로부터도 존경받는 공동체이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겁니다. 화합을 위해 승단이 재가신자들의 제언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종진 스님 : 부처님 당시에 비구 비구니에 대해 재가자가 여러 가지 충고를 하거나 조언, 때로는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 외부사회의 건의에 따라 정해진 계율도 많아요. 그러나 그 당시 재가의 요구는 승단을 보호하고 불교를 지키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재가신도가 요즘처럼 종단의 이러저런 사안에까지 간섭을 하겠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스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교도 없습니다. 재가신도들은 스님의 신분의 무엇이고 재가신도의 신분은 무엇인지 공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연 속에 천둥,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무균 천둥,번개가 일어날 때 지구를 정화해 주는 원리를 도입하여 실현된 100%살균 능력으로 신선한 공기 생성.
무필터 신소재 리트스크린 방식으로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의 저하를 막아 줍니다.
무소음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작동의 소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반영구 후면 신소재 스크린과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 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이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뢰성 미국과 캐나다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공해연구소의 시험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조절가능 5평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model:XL-15
model:Fresh Air
자연의 신선한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둥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둥번개는 오존을 생산하고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표면에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지상에 떨어지거나 산화 시킨다. 리빙에어는 야외의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증세를 가리거나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 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충전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서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순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성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으로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사 제작 수입완제품이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스피커만한 크기로 84평까지 청정지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가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인증서
▶ 산업공해시험성적서 : 오존수치(세계안전 오존(O_3) 안전수치 0.05ppm이하)
▶ CSA :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청
▶ EPA : 미국 환경보호청(검사인증서) ▶ 미국방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발행 분진, 수은 검사 측정결과서
다중 시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시찰 및 복지기관에 꼭 필요합니다.
TEL : (02)2055-0202
FAX : (02)2055-027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www.o2air.net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 노력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02)733-6141 / 팩스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a.co.kr
● 대표 : 범산 원광식 (인간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26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기 2549년
8월 17일 수요일 제 539 호


삶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거창국제연극제 참가작품 '침묵과 독백(한국)'의 한장면.


서울시 주최 제10회 좋은 영화 감상회에서 상영되는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8월 28일까지 열리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05 참가작품 '안녕! 셰익스피어 아저씨'.


벽을 허물고 화합과 상생의 몸짓을 담아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참가작품 '틀'.

연극 볼까? 영화 볼까?

늦여름, 국내외 연극 · 영화제가 관객들을 부르고 있다. '감성의 숲에 꽃들이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거창국제연극제, 연극 음악 전시 공연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 등 다양한 테마로 개막된다. 이번 주말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연인의 손을 잡고 연극과 영화 속으로 빠져봄은 어떨까?

8월 전국서 열리는 연극 · 영화제

 # 자연과 인간, 연극이 하나 되는 곳, 거창국제연극제

지역 문화 축제이자 명실상부한 국제연극제로 자리매김한 제17회 거창국제연극제가 '감성의 숲에 꽃들이 피어나다'는 주제로 열린다.

8월 17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경남 거창군 수승대 일대 야외공연장과 거창문화센터에서 펼쳐진다. 해외 공식 초청작 5편, 국내 공식 초청작 16편, 공식 참가작 18편 등 총 9개국 45개 단체가 참가해 총199회 공연을 선보인다.

해외 초청작으로는 루마니아 비질의 '살로메', 일본 동경건전지의 '한여름 밤의 꿈' 등 5개 작품. 국내 초청작은 극단 목화의 '심청이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한국창극원의 '오류란전', 조승미 발레단의 '한여름 밤의 발레 여행' 등 16개 작품이다. 또 대상, 희곡상, 연출상 등을 놓고 국내 18개 단체가 경연을 벌이며, 국내외 학술세미나와 베를린 레벤스레움 무대미술전 등 흥미로운 부대행사들도 있다. 참가비 무료. (055)943-4152

 # 이 보다 더 다양한 예술축제는 없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05'는 '몽유열정가'라는 열정 넘치는 슬로건 아래 8월 28일까지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펼쳐진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한국,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일본, 호주 등 8개국 300여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독립예술축제다.

'고성방가(음악축제)' '이구동성(연극축제)' '내부공사(전시축제)' '암중모색(아시아독립영화제)' '중구남방(거리예술제)' 등 5개 부문 예술제로 구성된다. '아시아 독립예술의 창작과 교류 활성화'라는 축제의 지향점을 찾기 위해 '아시아프린지포럼' 등 학술교류의 장도 밀도 있게 진행된다. 인디 문화를 만끽하고 싶다면 지금 홍대 거리로 가보자. (02)325-8150

 # 어린이들을 위한 꿈과 희망의 축제,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

올해 처음 열리는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국내 최초의 국제어린이영상축제로 미취학아동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이 상영된다.

'어린이 날개 달다'라는 슬로건으로 8월 19~24일 고양시의 덕양어울림누리, 롯데시네마 일산 14, 일산호수공원 주제광장에서 동시에 열린다. 영화제의 개막작으로는 노르웨이 영화 '우유의 빛깔'(The Color of Milk, 감독 토런 리안)이 상영되며 이밖의 작품들은 △메인 프로그램(48편) △경쟁부문(18편) △어린이가 만든 영화(32편) △테마 프로그램(46편) 등 네 개 부문으로 나뉘어 선보인다.

정문도&스크린의 작품 '어른들은 못 말려'는 거리에서 침을 뱉는 등 어른들의 나쁜 모습을 추적하는 6분짜리 고발 영화다. 이희재&IMS 작품 '달리아'는 우유 · 단소 · 홀라후프 등 주변의 물건을 의인화한 인형극으로, 절약의 중요성을 재치 넘치는 상상력으로 표현해 냈다.

또 단편 영화가 상영되는 경쟁부문에는 104편의 출품작 중 선정된 16편의 영화도 함께 소개된다. 무료. (031)902-7124

 # 그 밖의 연극 영화제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서울숲 등 시내 광장과 공원 7곳에서 9월 9일까지 제10회 좋은 영화 감상회를 연다. 매일 오후 8시(서울광장은 오후 8시 30분)부터 '간 큰 가족' '배트맨 비긴스'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등 6편이 무료상영되며 영화 음악과 재즈가 연주되는 콘서트도 마련된다. (02)3707-9467

'산과 고개의 도시' 문경에서도 제2회 문경산악영화제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주흘관 성곽 정문에 스크린을 걸고 국내외에서 출품된 19개 작품이 상영된다. 영화제 초청작은 아와니디 오로라의 '암벽등반', KTV의 '남극을 가다' 등 등반을 통해 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도전의식, 희망과 좌절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많다. 이밖에도 4,000m 몽골 상공을 비행하는 패러글라이더들의 이야기를 다룬 '고 퍼더', 경북 칠곡 연꽃 밭의 아름다움을 담은 한문식 감독의 '망월사의 연밭' 등 독특한 작품도 상영한다. 산악체전, MTB, 패러글라이딩 등도 열린다. 무료. (054)554-8848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수원화성국제연극제'에서는 리투아니아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러시아의 '소년들' 등 국제 연극공연과 '사랑은 비를 타고' 기획공연과 북남미 민속공연 등이 펼쳐진다. (031)238-5740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게시판

무료직업교육생 모집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는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8월 19일까지 무료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의상 · 패션디자인, 건축인테리어 등이며 원서교부와 접수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된다. (02)441-5561

예비 부모 교육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임산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8월 22~31일(월 · 수 10~12시) 영아의 발달 교육과 건강 가정을 위한 훈련을 주제로 예비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02)2144-1130



5060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총론 · 건강 · 노동 및 여가라는 내용으로 '5060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프로그램(사진)을 9월 6일(매주 화요일 오후 1시)까지 실시한다. (02)2282-1100

진주대첩 무료상영 국립진주박물관은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해 3D입체애니메이션영화 '진주대첩'을 8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와 4시 2회에 걸쳐 국립서울과학관에서 무료 상영한다. (055)742-5951

휴대전화 활용강좌 전주시 평생학습센터는 8월 22~26일 매일 오후 2~4시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활용 무료 강좌'를 연다. 수강신청 및 접수는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063)241-1123

20면 상식 퍼즐 정답

관	촉	사			군	
세		사	대	육	신	
음			만		유	
보					의	용
살	구		피			호
	미	생	지	신		상
투	호			조	롱	박

공연


노장춤과 취발이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미란씨.

불교 전통 춤사위 + '지금 여기'

국립무용단 실험무대
국립극장 8월 10~20일

승무, 봉산탈춤의 노장춤 등 불교의 숨결이 스민 전통 춤사위가 현대적인 안무로 거듭난다. 국립무용단의 '대화가 있는 무대'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 2005가 8월 10~20일 국립극장 별오름극장에서 그 화려한 대장정을 벌인다.

올해로 5년째 이어지는 국립무용단의 실험무대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 2005'에는 국립무용단 정소연, 부산시립무용단 김미란, 대구예술대 강사 추현주, 선화예고 강사 이미희씨 등 신진 안무가들의 작품이 오른다.

첫 번째 무대는 봉산탈춤 중 노장춤과 취발이춤을 창작춤 '버려짐'으로 재해석한 김미란씨의 무대이다. '봉산탈춤 속에 형상화된 성(性)'을 주제로 노장춤과 취발이춤을 중심으로 건강한 에로티시즘의 세계를 춤사위로 표현한다.

두 번째 무대는 정소연씨가 불교의식에 뿌리를 둔 이매방류 승무의 팔사위 발디딤사위 등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창작춤 '어떻게든'을 선보인다. 고립된 유배자의 삶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어떻게든'은 거울을 소품으로 이용해 이중적인 삶의 부조리를 춤으로 승화시킨다.

세 번째 무대는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살풀이인 권명화류 살풀이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창작춤 '열어라, 열릴 것이다'로 추현주씨가 맡았다. 살풀이에 '난장'의식을 결합해 인생의 희로애락과 업보를 풀어내린다.

이미희씨는 서울 새남굿의 춤사위와 정신을 창작춤 '해탈문'으로 네 번째 무대를 장식한다. '해탈문'은 굿이 궁극적으로 마음의 해탈을 위한 노력이고 예술가의 행위는 자아 수련과 해탈에 이르기 위한 노력


만불사 산사음악회에 출연하는 도일 스님의 통기타 연주 모습.

달맞이 산사음악회

8월 19일 경북 영천 만불사서
해금-印 전통악기 사로드 협연

경북 영천시 만불사는 8월 19일 오후 7시 '선음(線音)속에서 찾는 산사의 선(禪)과 명상'이란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부터 매월 음력 보름마다 열린 만불사 산사음악회는 1회-찬불의 향연, 2회-찬불과 국악의 한마당, 3회-산사에서 만나는 안데스음악과 국악 등 매회 마다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열린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산사음악회에서는 해금실내악단인 이현의 농, 인도전통 현악기 사로드 연주자인 바르가브 미스트리의 영산회상 등 해금과 사로드의 협연이 장엄을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찬불가로 포교하는 심진 스님, 범능 스님, 도일 스님의 음성공양과 모둠북의 향연이 준비돼 있어 음성공양의 진수가 펼쳐진다.

만불사 회주 학성 스님은 "앞으로 매월 음력 보름마다 달맞이 산사음악회를 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단과 명상음악가들을 초청해 포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음악세계를 보여줄 계획이다"며 개최목적을 밝혔다. (054)335-0101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시


'한국미학의 선구자, 우현 고유섭의 생애와 연구자료展'에 나오는 고유섭씨의 논문 '조선탑파의 연구'.

'한국 미학의 선구자' 우현 고유섭 생애와 연구자료展

8월 12~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문화재단은 '한국미학의 선구자, 우현 고유섭의 생애와 연구자료展'을 8월 12~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고우현 선생은 한국미술사학계의 3인의 거목 진홍섭, 황수영, 최순우의 은사였으며 <금동미륵반가상의 고찰>, <조선탑파의 연구> 등 다수의 불교 관련 논문을 남겼다. 이번 전시회는 우현의 육필 원고와 저서들의 초판본, 생애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 등이 선보인다.

특히 전시회에서는 우현의 제자인 황수영 박사가 동국대박물관에 기탁해 오던 사료들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다.

1,000여점에 달하는 탑파, 건축, 공예, 회화 등의 다양한 원본 사진자료들 중에서 200여 점이 엄선됐다.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 영주 부석사, 경주 불국사, 개풍 현화사지 칠층석탑, 개성 천마산 영통사지 오층탑 등의 유리원판 사진도 전시된다. (032)433-171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5일 06:15 8.15 보도특집
16일 11:05 아름다운 초대
17일 15:00 음악의 마을
18일 07:05 아침저널
19일 09:05 행복한 미소
20일 14:05 진시몬의 낭만라디오
21일 10:00 라디오 법회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5일 05:50 한국의 명찰
16일 01:45 TV법회
17일 15:50 열린마당
18일 17:30 법문가요
19일 16:50 고향사랑 건강사랑
20일 07:45 불교TV메디컬
21일 20:00 또 다른 수행 '사경'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진시몬의 낭만라디오(8월 20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나른함이 밀려오는 오후 2시. 진시몬이 준비한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8월 21일 21:45~22:45)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김영동 명상음반 '생명의 소리'

대금으로 만나는 명상음악의 진수. 우리나라 대금 연주의 거장 김영동씨는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삶의 의미를 명상음악 '생명의 소리'로 담아냈다. 대금과 단소 독주, 자연의 소리, 영가2, 수제천 등 다양한 명상음악과 낭송이 삽입돼 있다. 가격 1만5천원.

내 삶의 큰 가르침 (하)

황용순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불교를 만난 후 가정의 평화를 되찾았지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혼자서 불교 교리를 공부해보자는 마음을 먹고 불교방송을 듣기 시작했다. 매일 같이 라디오를 옆에 두고 불교방송을 경청했는데, 당시 중앙승가대총장이신 종범 스님의 교리공부가 시작됐다.

매회 방송을 놓치지 않고 노트정리를 해가며 들었고, 혹시 일이 있어 방송을 듣지 못할 때는 녹음을 해 놓고 들었다. 그렇게 메모를 하며 방송을 들으니 불교란 어떤 종교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환희심이 생겼다.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 세간의 모든 이치가 다 그 속에 담겨 있었다. 인연법, 연기법,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등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다 부처님 말씀 속에 있었던 것이다.

전생에 그나마 선근공덕이 있어 부처님의 진리를 접하게 됐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더구나 정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셨지만 나는 어느새 부처님 법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이 어찌 크신 은혜가 아니란 말인가?

이 같은 감동은 나를 벅차오르게 만들었고 인과의 이치를 모르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원망하고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 누구의 탓도 아니요 원망도 아니요 좋고 나쁜 것, 슬픔도 기쁨도, 그 어떤 대립되는 모든 것도 다 내 것이었던 것을!

매일 수없이 절을 하면서 저절로 눈물이 솟구쳐 흐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참회하고 또 참회할 뿐이었다.

당시에는 제일 큰 소원이 우리 남편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불법과 만날 수 있도록 늘 발원했다. 당시 남편은 나에게 종교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자꾸 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불교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집에서는 불교계 신문을 구독해서 봤는데, 1주일에 한 번씩 오는 신문에는 큰스님 법문이라든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한 좋은 글귀들이 많이 실려 있었다.

늘 화만 내고 어긋나게 나가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신문을 찾아보게 되었고 점점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절에 갈 것을 은근히 이야기하며 불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면서 속으로는 연신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지극한 발원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못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더욱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 남편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고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보살님이 옴자 목걸이를 하고 우리 매장에 들어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느 절에 나가시냐고 물었더니 방배동에 있는 정광사에 다닌다고 했다. 거사님들도 많이 오고 스님도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서 주말에 경주 남산에 성지순례를 간다고 했다.

"성지순례에 같이 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미 접수가 다 끝난 것 같긴 하지만, 절에 전화를 한 번 해보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딱 두자리가 남았다고 했다.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얼른 신청했고 우리 부부는 성지순례를 가게 됐다.

성지순례에서 만난 정광사 신도들 중에는 거사님들도 무척 많았고 신심 깊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도 여기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처음 뵌 분이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이셨다. 스님의 첫인상은 참으로 큰 뜻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피안사에서 공부해보리라 생각했는데 마침 <반야심경> 강의가 시작되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성지순례를 다녀온 느낌이 좋았는지 선뜻 공부에 동참하게 됐다. 1회, 2회, 3회 계속되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강의에 참석했고, 도반들과 어울려 공부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스님의 강의는 정말 명강의였다.

또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반야심경>에 있었다. 우리 남편도 속으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이치를 보는 듯 좋아했다. 공부하는 동안 스님께서 남편을 주시하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남편의 공부가 무르익어갈 무렵, 스님은 남편에게 법회의식의 사회를 볼 것을 부촉하셨고 남편은 망설임 끝에 승낙했다. 그 후 남편은 법회 때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금강경> 강의와 <반야심경>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했다. 남편 스스로도 자신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부부는 <반야심경> 사경기도를 통해 번뇌 망상이 일고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경을 꾸준히 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됐다. 하루 천 배씩 103일을 기도하고 내 몸에서 허물이 벗겨지는 꿈을 꾸었고, 천도재를 통해 가정평화와 사업성취를 이루었다. 이처럼 불교를 만나면서 우리 가족이 입은 가피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불교계 신문과 방송통해 교리공부
'반야심경' 사경 후 마음 평온 찾아
삶이 苦 아님을 불법 통해 깨달아

나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남편의 불교 입문도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봉사하고 전법하고 언제들 달려가 영가 시다림까지 하는 남편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날의 고통은 절대 고통이 아니었고 나를 성숙시켜주는 계기였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우리 부부가 부처님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된 불교! 불법 안에서 본 남편은 항상 고맙고 감사한 존재였다. 이같은 이치를 알게 해주신 불보살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깊은 신심으로 보살펴주신 도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snoopy@buddhapia.com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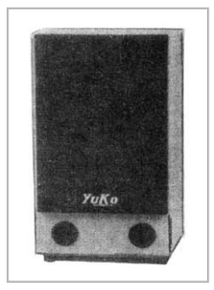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법당전용스피커 YM-520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고급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5. 9. 5
월 · 화반, 수 · 목반, 금 · 토반(주 · 야간 : 3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9월 5일 개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부산 : 부산 동구 좌천동 567-2 다전리치텔 1004호 (좌천역 1번 출구)
문의 :018-312-7110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❶ 아함경에서 설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❷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❸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❹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❺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❻ 주역에서 설하는 선천 · 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❼ 극락세계는 진정코 서방세계에 있는가?
❽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통 지음 | 신국판 | 394쪽 | 값 9,600원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신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세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셨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眞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韓·中 秘方針法

• 음양원리 침법 : 우리 인체의 365혈을 단 7혈만 응용하는데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던지 침 1-3개만 꽂으면 1분 이내로 효과를 볼 수 있고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비한 가정 의학이다.
• 사상체질 침법 : 사상체질을 정확히 감정하는 법과 체질에 맞는 음식 궁합과 한약재를 처방하고 간단한 체질공식 침법으로 만병을 고친다.
• 평형 침법 : 중국 인민 장교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수 되어온 1침법으로 사병들을 치료하였던 것을 왕문원교수에 의해 세상에 밝혀진 침법.
• 전통활락법 : 220V 전기를 직접 사람이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바로 최고의 기공력을 쓸 수 있다. 사기를 받지 않고 손기가 없다. 전립선염이 낫고 성능력이 회복된다. 마비된 신경이 살아난다. 독소가 배출되고 정상체중으로 회복된다. 디스크 수술 2번에도 사라지지 않던 통증이 사라진다.
황제내경 맥진법과 복진법으로 인체에 모든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암도인 침법을 1시간의 강의로 원리를 통달 할 수 있게 강의하여 드림)

■ 강의시간 : 8월 30일 부터 9월 2일까지(4일간) 오후 3시부터
■ 숙식제공 4일간 실무교육 : 보시금 2백만원
(예약전화 외 사절 / 선착순 10명, 예약 선입금)
농협 457109-52-098389 홍점순
■ 찾아 오시는 길 : 공주시에서 청양가는길 13km 오셔서 공수원 4거리 하차(신풍면 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 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번지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041)855-7114, 016-663-2159



벽라춘? 철관음? 헷갈리네!

차의 분류와 종류

벽라춘, 철관음, 용정차, 보이차….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차는 대략적인 집계만으로도 수 백여 종을 헤아린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차가 수입, 판매되고 있어 차인들의 기호를 만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차의 종류와 이름을 외우는데만도 애를 먹는다. 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이는 어떻게 분류되는 것일까?

우선 '차(茶)'라고 하면 차나무(학명 Camella Sinensis)의 어린 싹이나 잎을 음용하기 좋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중국 사천성과 운남성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차 가공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백여 종에 이르는 차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다양한 차는 제다기술과 품질의 특성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전통 제다방법에 의해 생산된 기본차류와 이 기본차류를 다시 한 번 가공해 형태나 품질을 변화시킨 재가공차류가 그것이다.

기본차류는 다시 가공조건에 따른 폴리페놀의 산화정도 즉 발효정도에 따라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를 6대 다류(茶類)라 하는데, 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다기술 · 품질 특성에 따라 기본차 · 재가공차로 구분



녹차(綠茶) 찻잎을 딴 즉시 열기로 효소의 작용을 억제시켜 폴리페놀 산화를 막은 것으로, 발효 정도가 10% 이하다. 잎이 연녹색이고 찻물색이 맑다. 향은 맑고 은은하며 맛은 신선하고 입안을 상쾌하게 한다. 중국의 용정차(龍井茶)와 벽라춘(碧螺春), 일본의 옥로(玉露)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동과 보성 지역에서 전체 70~80% 정도의 녹차가 생산되고 있다.



백차(白茶) 발효가 5~15% 정도 이루어진 약발효차. 폴리페놀의 산화정도가 녹차보다는 약간 높고 찻물색은 담황색이다. 백차는 위조(찻잎을 펼쳐 널어 세포 중 수분을 증발시켜 잎을 부드럽게 함) 후 건조시켜 만들어 차싹의 하얀 털(백호, 白毫)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찻잎의 모양은 길고 뾰족하다. 솜털향이 진하며 맛은 신선하고 상쾌하며 단맛이 난다. 대표적인 차로 백호은침(白毫銀針)이 있는데, 백호로 인해 찻잎이 은백색을 띤다고 해 붙은 이름이다.



황차(黃茶) 10~25% 정도 발효된 경(輕)발효차. 녹차와 제다방법이 비슷하나, 민황(悶黃)이라는 발효과정에서 소량의 데아플라빈이 형성되어 찻물색이 황색을 띤다. 제조된 찻잎과 찻물색, 우리고 난 후의 찻잎 색 모두 황색을 띤다고 해 '삼황(三黃)'이라 한다. 향과 맛은 맑고 순하다. 황차는 채엽 시 잎의 여린 정도에 따라 황아(黃芽)차, 황소(黃小)차, 황엽(黃葉)차로 분류된다. 중국 호북성의 군산은침(君山銀針), 사천성의 몽정황아(蒙頂黃芽), 호남성의 북항모첨(北港毛尖) 등이 유명하다.

청차(靑茶) 부분발효차를 일컫는 것으로, 발효 정도는 15~70%로 다양하다. 흔히 청차를 '오룡차(烏龍茶)' 혹은 '우롱차'라고 총칭해서 부르기도 한다. 소량의 데아플라빈과 데아루비긴이 형성되어 찻물색은 등황색을 많이 띤다. 청차는 주로 중국 복건성과 광동성, 그리고 복건성에 속해 있던 대만 등 세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대부분 차나무 품종명이 차 이름으로 쓰인다.



중국 복건성 북부 무이산(武夷山) 일대에서 생산되는 대홍포(大紅袍)와 철라한(鐵羅漢), 안계(安溪) 일대에서 생산되는 철관음(鐵觀音)과 황금계(黃金桂), 광동성 산두(汕頭) 지역의 봉황단종(鳳凰單欉)과 봉황수선(鳳凰水仙), 오룡(烏龍) 등이 유명하다. 최근에는 대만 지역에서 우수한 품질의 청차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고산오룡(高山烏龍), 문산포종(文山包種), 목책철관음(木柵鐵觀音), 동방미인(東方美人) 등이 널려 알려져 있다.



홍차(紅茶) 발효가 70~95% 이루어진 완전발효차로 폴리페놀의 산화정도가 가장 높다. 데아플라빈, 데아루비긴, 데아브로닌 등이 형성되어 찻물색이 붉다. 중국과 인도, 스리랑카에서 주로 생산되며 중국의 기문홍차, 인도의 다즐링, 스리랑카의 우바는 세계 3대 홍차로 꼽힌다. 생산지에 따라서는 인도 아셈 고원에서 생산되는 아셈 홍차, 인도 남부 고원지대에서 재배되는 닐기리(Nilgiri), 스리랑카 실론섬에서 생산되는 실론티 등이 유명하다. 또한 실론티와 인도차를 섞은 잉글리쉬 블렉퍼스트, 홍차에 베르가못 향료를 가미한 얼그레이, 레몬이나 사과, 딸기 향을 가미한 과일 홍차 등이 유명하다.



흑차(黑茶) 후발효차로 보이차가 가장 대표적이다. 후발효란 이미 고온으로 효소의 작용을 멈춘 후 진행된 발효를 말하며, 찻잎을 쌓아 둬 미생물 발효가 일어나도록 한다. 찻잎의 색이 윤기 있는 검은색 또는 흑갈색이다. 향과 맛은 비교적 순하며 찻물색은 짙은 홍색을 띤 등황색이다. 흑차는 잎차 형태의 차를 증압(烝壓, 증기로 압축함)해 덩어리 모양의 타차(沱茶), 둥근 떡모양의 병차(餠茶), 벽돌 모양의 전차(甎茶) 등으로 만든다.

그 밖에도 기본 차류에 쟈스민(말리화)이나 장미 등의 꽃향을 가미한 화차(花茶), 레몬이나 복숭아 등의 과일을 가미한 과미차(菓味茶) 등의 재가공차류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자료제공: 한국국제차엽연구소(소장 정인오, 02-723-1600)

조선시대 ⑮



조선-실사구시 학풍 영향으로 남자 다모 출현
중국-세계화 박차, 일본-가루차 시대 열어

조선 후기에도 차의 열기는 식지 않았으니, 다세를 부과하는 지역이 36개 군현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는 청나라 못지않게 일본과의 교류가 많았고, 그들도 우리 문화에 대한 선망도가 높았다. 그래서 일본어 통역이 필요해 일본말 교본을 출간하기도 했고, 실사구시 학풍은 생활과 직결된 문제와 관해 많은 노력이 이뤄졌다. 그 한 예가 남자 다모의 출현이며, 이제까지의 다모 소임과는 다른 직무도 그들에게 주어졌다.

청나라는 국내적으로 다마사의 활동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도 많이 노력해 중국차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했다.

일본은 우치(宇治)에서 가루차를 만들기 시작해 일본 가루차 시대를 열었다. 한편 중국에서 도일한 스님 은원(隱元)에 의해 잎차 마시는 방법이 전해지고, 임진왜란 때 납치해 간 한국인에 의해 덖음차 문화가 생겨나게 됐다.

① 종우: 대마주태수로 우리의 예조참의에게 외교문서와 함께 점다행주(點茶行廚) 한 벌을 보냈다.

② 당시 36개 군현에 다세를 부과했다.

③ 일본 사신 평성태가 동래부에 이르렀으니, 다례가 행해졌다.

④ 임년헌의 교거쇄편(郊居瑣編)에 남자 다모 얘기가 실렸다.

⑤ 복평군이 주야로 차를 마셨다는 기록으로 당시 왕가의 차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⑥ 강우성이 쓴 일본말 교본

⑦ 설암선사(1651~1706): 대둔사 오대 대종사로 〈설암잡저(雪巖雜著)〉에 다시 십여 편이 전한다.

⑧ 청의 노대여가 찬술한 책으로 절동(浙東)의 다사(茶史) 및 다법을 기록했다.

⑨ 황종희(1610~1695): 명·청 시대 학자로 그의 〈광려유록〉에 나오는 '여요폭포차(餘姚瀑布茶)'는 고대 명차다.

⑩ 포송령(1640~1715): 〈요재지이〉에서 소평초(小萍草)의 독을 찻잎으로 시험하는 얘기를 썼다.

풍가빈: 차학자로 대나무와 바위 그림에 능했고 차를 좋아해 〈개다전(岕茶箋)〉을 썼다.

주여규: 개차를 좋아해 어려서부터 춘추로 나개에 120여회나 들어갔다.

장영(1637~1708): 육안, 무이, 나개 등의 차를 즐겨 마신 차인이다.

⑪ 청대 양청원이 쓴 책으로 포다(泡茶)에 관해 썼다.

⑫ 〈개옹다사(介翁茶史)〉는 유원장이 쓴 중국 다사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⑬ 서회가 쓴 저술로 다사를 보유한 내용이다.

⑭ 고전직부(1544~1615): 다탕(茶湯)의 명인이다. 수길의 사후에 덕천가(德川家)의 다도사범이 되어 장군풍의 다도를 일으켰다. 직부류(織部流)의 시조가 된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661 삼남일대 기민(飢民) 전염병 만연 1662 대마도 종의진(宗義眞) ① @ 다세 부과지역(36개군) ② 1665 다시(茶時) 1668 하멜의 〈조선표류조난기〉 1671 평성태(平成太) ③ @ 남자 다모(茶母) ④ 1675 복평군(福平君)의 음다 ⑤ 첩해신어 ⑥ 1677 경상도 대동법 시행 1678 상평통보 주조 왜관 신관사 완성 @ 설암(雪巖) 선사 ⑦	청대	1600 〈구강일지(甌江逸志)〉 ⑧ 1661 강희제 즉위 @ 황종희(黃宗羲) ⑨ 1665 운남 북쪽에 승주다마사 증설 1669 동인도 회사 차 구입 @ 포송령(蒲松齡) 풍가빈(馮可賓) 주여규(朱汝圭) 장영(張英) ⑩ 1674 〈정화기〉 ⑪ 1677 〈다사(茶史)〉 ⑫ @ 〈다사보(茶史補)〉 ⑬	강호시대	1662 토좌(土佐) 곳곳에 차나무를 심다 @ 고전직부의 활동 ⑭ 1673 유구(琉球)에 차밭을 만들다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연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캅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캅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현대불교 제 539 호
서기 2005년 8월 17일
(음력 7월 13일) 수요일

한마음으로 중심 촛대를 세우고 불을 밝혀야

불을 밝히면 천도가 되나요?

문 칠석과 백중이 되면 불을 켜서 등을 밝힙니다. 그런데 왜 그렇듯 불을 밝혀야 하며, 불을 밝히면 나와 조상님이 정말 밝아져서 천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 서천궁은 바로 내 마음 깊은 속을 말합니다. 잠재의식으로서의 깊이 들어간 그 속을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불성 자리, 움죽거리지 않는 거기까지 말입니다. 그게 서천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내서 움죽거리는 이 세상은 예를 들어서 동천의 아촉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내는 겁니다. 요렇게 간편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알려면, 마음 깊은 속이 서천궁이다 한다면 바로 마음을 내는 것은 우리가 불을 켜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인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불을 켜기까지 재료를 다 해서 자리가 딱 잡혀야 한생각을 내는 게 바로 불을 그어대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라이터가 준비가 돼야 여러분이 탁! 불을 켤 수 있고 한찰나에 불을 댕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한 찰나에 불을 댕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촛대라고 본다면 바로 불을 댕기는 그 생각은, 우리가 촛대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주인공 자체를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불을 탁! 켤 때에 불이 확 가서 붙는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칠석과 백중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중이 서천궁이다 한다면 칠석은 동천에 불을 댕기는 즉, 해가 뜨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인생이 태어남을 말하고 인생이 죽어감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알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로 우리가 여여함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천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천에 불을 켤 수가 있는, 인등을 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을 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올 때는 바로 불을 켜들고 나올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죽어갈 때는 바로 그 초가 완전히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 초를 장만하고 마련을 하기 위해서 서천궁으로 가는 거고 또는 불을 켜기 위해서 동천으로 온다 이겁니다. 이렇다면 불을 켜기 위해서 오는 것은 칠석이고, 불을 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바로 서천궁, 백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제 자리를 굳건히 다지지 못한 채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처님 조상도 그렇고 여러분을 다 한마음으로 공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백중이 생긴 것이고 칠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칠석에는 그렇게 공덕을 한마음으로 모아서 백중에 정성을 들일 수 있게끔 우리가 불을 켜고 자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칠석이 부모 조상들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죽은 조상의 마음이나 산 조상의 마음이나 둘이 아닙니다. 몸만 없어졌을 뿐이지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차원도 그대로죠. 산 사람들도 그 마음의 차원은 그대로요, 마음을 내기 이전도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불을 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초를 만들어 놓고 성냥불을 그어댈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불을 댕기는 것도 한순간에 불을 댕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칠석입니다. 그 불을 댕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은 지금 불을, 우리가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불을 아무 때라도, 생각을 한데 합쳐서 불을, 아무 때라도 생각을 하면 그냥 불이 당겨지도록 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공부를 하신다면 백중에도 조상들의 마음이나 산 사람의 마음이나 둘이 아니어서 그렇게 공 도리를 완전히 한마음으로서 이끌어 나가면서 중심을 딱 세우고 촛대를 세우고 불을 켜게끔 딱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마음의 자가발전소에 불을 댕기는, 한생각에 그대로 불이 댕겨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칠석에는 산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댕기고, 백중에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그 바탕을 세우고 중심을 세워서 주장자를 세워 놓으면, 동천에 와서 금방 불을 켤 수가 있으니까, 살아나올 때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상을 위해서 하는 것도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되고 부모나 자식, 아내나 남편, 친지 형제들을 다 위해서 한마음으로서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한생각에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신 그 자체, 또는 가지고 돌아가고 가지고 괴로움을 받고 이러는 그 재료를 가지고 모든 걸 여러분의 한생각에, 인등의 불에 한생각이면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실험하기 위해서도 칠석과 백중을 지내면서, 재료를 가져오신 것을 실험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성냥을 탁! 그어대서 불이 일어나서 그 모두를 무너뜨리고 태워 버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살아나가는 가정과 앞길이 환하게 길이 인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산 사람들의 마음의 인등을 켜는 날입니다. 우리가 백중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인등을 켜기 때문에, 자식들이 인등을 켜기 때문에 그 인등의 불이 백중에 촛대를 해 놓은 데 가서 불이 붙으면 영가님들께서 좋은 데로 천도가 되기 때문에 백중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중날 여러분이 촛불에 댕길 수 있는 불을 켜서 영가님들의 마음에까지 불이 들어올 수 있어야만 영가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 촛대에 불을 켜지 못한다면 어떻게 조상님들의 촛대의 불이 켜지겠습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이어진 연결된 둘 아닌 도리입니다. 이 도리는 칠석과 백중과 연결이 돼 있는 둘이 아닌 그런 뜻입니다. 그걸 가깝게 본다면 자기 깊숙한 마음내기 이전과 또는 깊숙한 마음속에서 촛대에 불이 댕겨지는 것과 현실의 불이 댕겨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다 밝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죠. 지나가다 지나오다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불을 밝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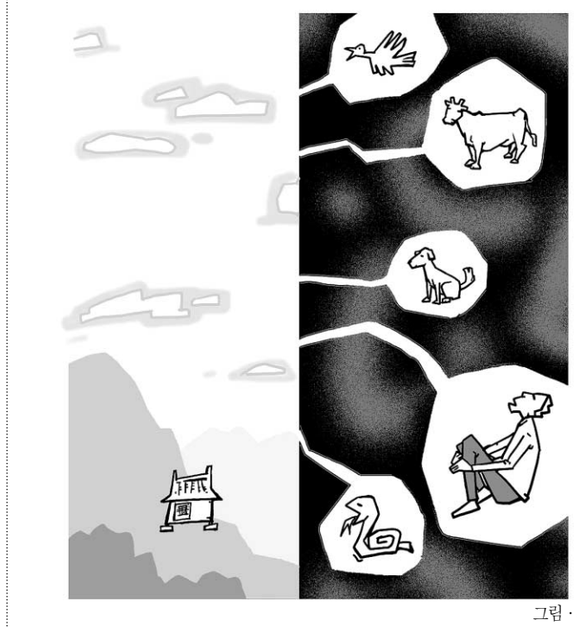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림 · 최주현

마음이 잡히지 않는데…

문 마음 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청년 법우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모르게 부모님이 다 계신데도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확고하게 잡히지 않고 가끔씩 불뚝불뚝 올라오는 마음의 일렁임이 있습니다. 스님, 관을 한다고 하면서도 관해지지가 않고 공부가 잘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만날 내가 산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세상이 모두 허튼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웃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웃은 사이도 없고 성낸 사이도 없고 우는 사이도 없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사이도 없어요. 매사 게 다 내가 살아 있으니까 모두 있다 그러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있다고 그러는 걸로 인해서 오는 허탈감도 있고 매사 게 거기서 오는 거지요. 사람이 길을 걸을 때 한 발자국 떼 놓으면 있나요? 없지요. 또 떼 놓으면 있나요? 또 없지요. 사람 사는 게 그래요.

내가 있다고도 생각 말고 없다고도 생각 말고 닥치는 대로 그냥 놔 가면서 사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산 게 없고, 죽어도 죽는 게 없고, 길을 걸어가도 걸어간 게 없고, 악을 써도 악을 쓴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 보니까 없는 걸 가지고 애탄지탄하고 야단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그냥 놔 가면서 살아요. 놔 가면서 안 살아도 놔지는 것 아녜요? 한 살 먹어 두 살 먹어, 그냥 저절로 놔지지요. 다 늙어서 죽어도 죽은 사이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돌아다니고 살아도 돌아다니고 죽어도 그냥 다녀요. 살아도 산 게 없고 죽어도 죽은 게 없고요.

더 살아 보세요, 안 그런가. 이 세상 우주 만상이 다 죽거나 살거나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다. 그러니까 죽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었다 살았다를 다 놓아야지 놓지 않으면 어떡해요? 놓을 것도 없이 놔야지요.

전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죽겠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가 앉아서 울었대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가시고 한 번도 저는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앞에 나서더래요. "아니, 울긴 왜 우니? 떳떳하게 살아라. 죽어도 울지 말고 살아도 울지 마라." 그러곤 서 계시더래요. 그러니 눈 깜짝 할 새 부모가 돌아가셔서 안 보인다 하더라도 안 보인단 말 하지 마라 이겁니다. 죽었다고도 하지 말고. 정말이에요. 항상 눈에 보이질 않아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아 같다고 했는데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요. 언제는 고아가 아니었는지를요. 부모가 안 계셔야만 고아인가요? 이 세상 태어난 게 본래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탸박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어디에 대신 살아 줄 누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좀 컸다고 이 생각 저 생각 해 봐도 그게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으니까 그냥 놔 버리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힘들어요.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산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어요. 질문한 사람도 없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고, 질문 받는 나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찾을 것도 없고 애걸복걸할 것도 없어요. 하품하면 없어지듯이 꿈 같은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잘 관해진다 관해지지 않는다, 공부가 잘된다 잘 안된다 할 것도 없이 몰록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올라오는 것마다 다시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가세요.

도로에서 죽은 동물들에 대해서

문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차에 깔려 죽은 개나 고양이의 모습들이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요.

답 내가 살생을 꼭 해서만이 살생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죽은 것을 봤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건져야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벌레가 죽어 있다 하더라도 한생각에 건져야 합니다. 에누리가 없어요. 모든 마음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과 좋은 행동과 좋은 건짐이라는 것은 세세생생에 버릴 것이 없고 아까울 것이 없고, 또 그러면서도 안 버릴 게 없듯이 전부 때에 따라서 한 찰나에 도움이 오고, 거저가 없습니다. 내가 했으면 한 대로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모든 생명들의 모습들이 다르다 이러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착하면 서로 다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전에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부자 대갓집에서 그 집을 고치려고 헐어서 부수는데 그 집에서 큰 구렁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집의 젊은이들이 모르니까 그걸 그냥 토막토막 내서 저 길바닥에다 그냥 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토막토막 낸 것이 그냥 펄떡펄떡 뛰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지나가다가 보고 참 안 됐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 마음이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헌 통을 집어 가지곤 집게로다가 집어서 넣어서 저 모래톱에다가 묻어 줬습니다, 흙에다가, 밤동산이라고 하는 데다가 묻어 줬거든요. 묻어 주고 기왓장을 덮어 놨습니다. 비를 맞으면 썩을까 봐. 그랬는데 얼마 있다 거길 지나가다가 그것을 헤쳐 보니까 간 곳이 없어요. 그게 썩었으면 거기에 구더기가 나야 할 텐데 간 곳이 없단 말입니다, 아예. 해 놓은 것 그대로 있는데 묻어 놓은 구렁이를 한데 합치면 한 깡통이나 되는데 그게 가뭇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나는 저녁에 사람들이 다 자면 풀섶이든 어디든 내가 앉아 있고 싶은 데 그냥 앉아서 30분, 그거는 30분이다 한 시간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앉아 있고 싶으면 별을 쳐다보고 나를 보고 이러면서 앉아 있는데, 그 재미있는 거는 말도 못해요. 정말이지 저녁이 돌아오면 그렇게 조용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별성 하나하나가 나 아님이 없고 풀포기 하나하나가 나 아님이 없으니 그 벗들하고 노느라고 아주 정신이 팔렸죠. 그랬는데 그렇게 잠시 앉아서 저녁이 돼서 별이 뜨고 그래서 좋아서 쳐다보고 그러는데, 쳐다보니까 그 구렁이가 말입니다, 공중으로, 광목 있죠? 하얀 광목. 그것이 그냥 파르르르 날더니 그걸 타고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타고. 그러더니 그것이 저 꼭대기로 올라가더니마는 탁 보이는데 부처님 상이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게 화해서. 그 마음이 화하면 몸뚱이는 벗어지고 그 마음이 화하면 마음이 바로 사람도 될 수 있고 부처로서의 한마음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게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걸 거기다가 묻어 줄 때 벌써 나로 변했고 내가 변해서 벌써 거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뱀도 언짢을 때는 모두가 와 쫍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됐든지 그 어려움의 용도에 따라서 모두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 시골에 다니면서 소에 치인 사람 뱀에 물린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한생각 지극히 하면 그 병이 나았단 말입니다. 그건 왜냐. 모두 그 용도에 따라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러니 한마음이 뭉쳐지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 내면세계에, 우리 몸뚱이 속에 천차만별로 들어 있는 그 이름들이 다, 의식들이 그 생명들이 다 나 아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그걸 한데 합쳐서 부르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그렇게 자기 사람이 많은데

☞30면으로 계속

일체를 나온 자리에 다시 돌려놓고 자유롭게 살라

☞29면에서 계속

말입니다. 그 이름을 어떤 걸 부를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장에 있는 그 모습들이 나라고 하겠습니까, 또는 간장에 있는 생명들이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생명이 그렇게 많고 내 모습이 그렇게 많고 내 마음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자꾸 화해서 자꾸 나투고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는 것도 없고 안 끊는 것도 없느니라. 색과 공은 그냥 그대로 들이 아니어서 바로 여러분이 움죽거리는 대로 공해서 돌아가니까 둘이 아니란 뜻이죠. 그것은 정녕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생명들을 보더라도 마음으로 함부로 무시하거나 하찮게 보지 마시고 함이 없는 무주상 보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세요.

왜 화를 내고 힘들어지나요?

문 본래청정심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왜 똑같은 일을 가지고 다른 도반들은 여유롭게 잘 넘어갈 수 있고 그러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며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까. 수행의 부족으로 인해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요?

답 마음은 체가 없어서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항상 말해 왔지만 자기가 자기 몸 다루는 것도 자유스럽게 생각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실정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놓으라고 말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놓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 주인 근본 뿌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휘몰아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자기인 줄 알고 이리 쓸려 다니고 저리 쓸려 다니며 세상이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꾸 말리지 말고 거기에 모든 것을 놓고 부드럽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면서 일체를 나온 자리에 다시 돌려놓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부드럽게 생각을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진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질이 나고 부아가 치미는 그 상태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올라오는 대로 끄달려서 밖으로 내뱉는 그것이 바로 화탕지옥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딴 데서 화탕지옥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화탕지옥이거든요. 근데 왜 내가 자꾸 거기에 끄달려서 괴롭게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 해야 한다고 말을 한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 지배인의 마음은, 마음내기 이전은 그대로 부처지만 이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마음 분별은 바로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중생들의 마음이 그렇게 들끓어서 분별심이 마구 동할 때는 '어,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 거기서 해결해야 한다.' 하고 믿고 그 생각들이 나온 그 자리에 다시 놔야 될 텐데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를 더욱 안절부절 안달복달 하기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마음인 줄 알고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들 어떻고 땅이 꺼진들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죽기가 그렇게 원통합니까? 그러니깐 "놓아라! 놓아라!" 해도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로 살지 못한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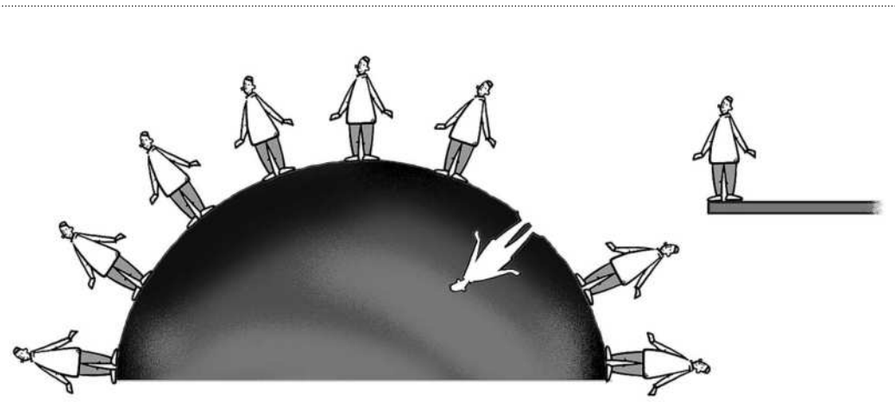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함이 없는 무주상보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없죠?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분도 없습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삼합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고 우주의 모든 근본이 바로 같이 직결돼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살림살이가 전기 가설돼 있듯이 모두가 가설이 돼 있다는 걸 믿으세요. 모두가 모습은 다를지언정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은 항상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공심으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공심이라는 걸 믿지 않고 각자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 명이 일을 하면 쉬운데 자기 혼자, 단 한 명이 다하는 줄 알고 설쳐 댄다면 자기가 만 명이 할 일을 혼자 어떻게 합니까? 만 명의 능력과 한 명의 능력이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그 만 명이 같이 돌고 만 명의 그 마음이, 만 마음이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면 너도 나고 나도 너고, 네 능력이 내 능력이고 내 능력이 네 능력이고, 네 생이 내 생이고 내 생이 네 생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고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공심이라는 것을, 공용이라는 것을, 공생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다가오는 바깥의 일들에 그렇게 연연해하고 아파하지 않으면서 나와 남까지도 지혜롭게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넓혀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원하지 않은 일을 당해야 하나요?

문 나름대로 열심히 사느라고 살지만 생각지도 않은 데서 사고를 내고 가족들이 속을 썩이거나 하는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업으로 인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살아갈 의욕을 잃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에 지은 업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 어떤 사람이 예전에 아주 한탄을 하면서 그러더군요.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나 노름만 하고 그러는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미운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벌이는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이놈의 새끼, 나가서 급살이나 맞아라." "이놈의 새끼, 염병이나 걸려서 죽어라." 이러곤 욕을 해댔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욕을 하면서 부모 속을 썩이고 살았다. 당신이 예전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대로 보라고, 그 애가 바로 당신이라고, 그런데 누구 탓을 하느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업이 많아서 그런데 그 아들이 인제는 원수를 다 갚았으니까 갔다. 갔는데 조금 더 살아서 그 업보가 다 지나면 아들이 인제 그렇게 안 할 때가 돼 가는데 당신이 욕을 하도해서 그게 그렇게 됐다, 그랬으니 당신이 죽이고서 당신이 왜 우느냐 이러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공부들 열심히 하십시오. 자기가 해 놓은 것은 누가 뺏어 갈 수도 없고 헛된 게 아닙니다. 그저 일을 하면서도 그냥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일하면서 생각하시는 거야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돈이 드니 걱정입니까? 아, 몸으로 일하면서 돈 벌면서 생각을 좀 하시라 이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돈 내고 생각합니까? 따로 시간이 걸립니까? 일하면서 생각하라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광대한 것은 비행기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자체가 바로 수레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거기 먼지 앉을 자리도 없을 거고, 고(苦)가 있을 자리도 없을 거고, 또 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음 하나 점프해서 돌리는 데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이 마음의 도리를 알면 내가 죄가 있다 없다도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이 세상 살아나가기가 아주 수월하고, 또 수월한 것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그 지혜의 뿌리가 이어져 가면서 자기가 뿌린 것 자기가 다 걷을 수 있고 과거에 내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거쳐 오면서 지은 인과들, 그런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아주 한순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해 보세요. 그리고 이 공부 하는 데에 생활이 지장이 된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생활이 즉 공부니까 말입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황토는 병을 치유하는 신비가 있다는데"
황토집 건축에서부터 황토요법 [민간요법]을 상담해 드립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천연 황토방
천연황토 BIO21
※ 천연 황토방의 특성
· 새집증후군의 해결은 물론 화재에 안전하다.
· 인체에 해로운 화학재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 열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100% 생황토로 시공한다.
· 도배를 하지 않고 흙에서 자유롭게 생활한다.
· 집안에서 황토찜질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발명특허 제 0300446호
천연황토 BIO21
TEL : 041-663-4977~8
H.P : 016-269-1233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영산범음집 한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패집 카세트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山寺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헛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기청량 조청(품절)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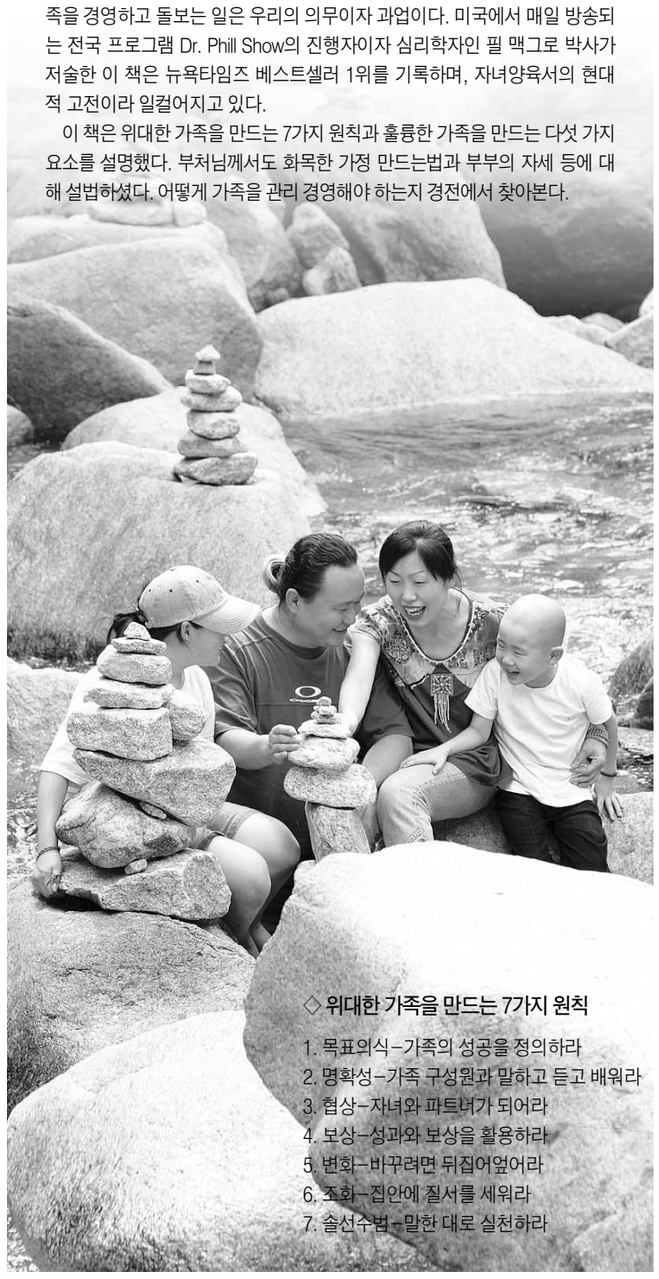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서로 믿고 화합할 때 '화목'

중구 신당동에 사는 주부 정희영(33)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밤잠을 설친다. 밤마다 싸우는 이웃부부 때문이다.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 사소한 일로도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는 가정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최근 출간된 <위대한 가족을 만드는 7가지 원칙>(시공사 刊)에 의하면 가족을 경영하고 돌보는 일은 우리의 의무이자 과업이다. 미국에서 매일 방송되는 전국 프로그램 Dr. Phill Show의 진행자이자 심리학자인 필 맥그로 박사가 저술한 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며, 자녀양육서의 현대적 고전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이 책은 위대한 가족을 만드는 7가지 원칙과 훌륭한 가족을 만드는 다섯 가지 요소를 설명했다. 부처님께서도 화목한 가정 만드는법과 부부의 자세 등에 대해 설법하셨다. 어떻게 가족을 관리 경영해야 하는지 경전에서 찾아본다.



◇ 위대한 가족을 만드는 7가지 원칙

1. 목표의식-가족의 성공을 정의하라
2. 명확성-가족 구성원과 말하고 듣고 배워라
3. 협상-자녀와 파트너가 되어라
4. 보상-성과와 보상을 활용하라
5. 변화-바꾸려면 뒤집어엎어라
6. 조화-집안에 질서를 세워라
7. 솔선수범-말한 대로 실천하라

부처님이 가르친 '화목한 가정 만드는 법'

■가족 - 욕심 버리고 안색은 화평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행복하고 즐거울 때 가족은 서로 공감해야 한다. <잡아함경>은 가족을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무량수경> 역시 가족은 '항상 서로 공경 · 사랑하여 질시 · 증오하지 않고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족 공동체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야 서로 믿고 화합할 수 있다. <대반열반경>은 진실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라고 지적한다.

가족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난무사불기흥경>은 공통된 신앙생활을 요구한다.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복이 저절로 오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법답게 사는 것이 바른 생활이라고 <중아함경>은 강조한다.

■부부 - 평등과 존경, 사랑으로

부부관계는 평등의 기반 없이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동등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녀평등이 중요하다. <보문품경>에 의하면 '하늘은 아비이고 땅은 어미이므로 천지가 낳은 남녀는 일체 평등하다'고 평등에 대해 설하고 있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남녀의 차별보다는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등한 관계를 수립한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선생경>은 남편의 도리를 △바른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경멸하지 않아야 한다 △도리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의식주 걱정을 없애 주어야 한다 △때를 맞추어 장신구를 사주어야 한다 등의 다섯 가지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아내의 도리는 무엇일까. △일을 잘해야 한다 △일가친척들을 잘 대우한다 △도에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모은 재산을 잘 관리한다 △할 일을 솜씨 있게 처리하며 또한 근면해야 한다 등의 다섯 가지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 수미산 · 대해 같은 은혜에 보은

부모님 때문에 속상할 때면 <부모은중경>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수태에서부터 자식을 길러 출가시킨 후에도 전전긍긍하며 자식 위하는 마음을 구구절절이 설명한 <부모은중경>은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한 여섯 가지 실천방법을 제시한다. <부모은중경>을 쓰고, 읽고, 잘못을 참회하고, 삼보께 공양하고, 재계를 지키고, 보시하여 복을 닦는 것 등이다.

<심지관경>은 자비스러운 부모가 길러 주기 때문에 모든 남녀가 더 편안할 수 있으니, 아버지의 은혜는 높아서 수미산과 같고 어머니의 은혜는 깊어서 대해(大海)와 같음을 상기시킨다.

경제적 활동으로 부모의 근심을 덜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기본덕목임을 <유방예경>은 강조한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지장경>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모를 죽인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록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 인생의 선배로서 바른길 안내

잘못된 것을 잘 바로잡아야만 올바르게 자녀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꾸짖는 법조차도 설하셨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를 통해 설한 다섯 가지의 잘못은 믿지 않음, 게으름을 피움, 욕설함, 부끄러움을 모름, 나쁜 벗을 가까이함이다.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함께 말하지 않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가려서 가르쳐주지 않음, 그가 바치는 것을 받지 않음, 착한 일을 칭찬하지 않음, 의지가 되어 주지 않음으로 벌을 주었다.

꾸짖기 이전에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생경>은 자식을 제어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하고, 착한 행위를 알려주며, 학(學)과 도(道)를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라고 강조한다.

<육방예경>은 악을 떠나 선에 이르도록 하고, 글을 가르쳐 부처님 말씀과 계율을 받들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강지연 기자

사진제공=조계사



국소해부학의 발달 조장과 연관

생명 발생과정 '사부의전' 등서 생생히 묘사 은유법 활용 신체 구조 쉽게 이해토록 설명

단세포생물로부터 어류 파충류 포유류의 단계로 진화해 온 인류 진화사가 태내(胎內) 수정란으로부터 고스란히 재현되는 발생과정이 <사부의전>과 <티베트의학괘도>에 글과 그림으로 사진처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장기(臟器)와 그 기능 그리고 인체의 국소해부학적 형상은 티베트의학에 매우 구체적이고 놀랍도록 정교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역시 오랜 조장(鳥葬) 풍속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티베트의학에서는 장기를 오장육부로 나누고 각 장기의 위치와 기능을 은유적으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5장은 허파(肺臟) 염통(心臟) 간(肝臟) 지라(脾臟) 그리고 콩팥(腎臟)을 말하며, 6부는 위(胃腸) 작은창자(小腸) 큰창자(大腸) 쓸개주머니(膽囊) 오줌보(膀胱) 및 생식기를 일컫는다.

우리 몸통의 상부에는 허파(肺)와 염통(心臟)이 위치하고 있다. 폐는 티베트의학에서 다시 후엽(後葉)과 내엽(內葉) 각 5부(총 10부)로 나뉘고 뒤쪽에 위치한 후엽은 모폐(母肺) 앞쪽에 있는 내엽은 자폐(子肺)라 하였다. 심장은 폐의 후엽 즉 모폐의 꼭대기에 보좌(寶座)를 튼 왕과 같이 보았다.

5장의 나머지 세 장기는 몸통 하부에 들어있다. 오른쪽에 있는 간은 절벽 위에 곧추서 있는 바위의 형세이다. 가운데가 잘록하고 양끝이 도톰한 비장은 위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좌우 신장은 반듯하게 서있어 호위병에 비견된다.

6부에서 먼저 위는 섭취한 음식물의 저장장소로써 위쪽이 평편하고 아래쪽이 홀쭉한 모양이다. 소장은 위와 연결되어 물이 흐르는 도랑과 같다. 방광은 물을 담는 항아리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생식기는 분비선(分泌腺)과 같이 생겼다.

천궁의 기벽은 엉덩이뼈와 같고 척추뼈는 금화(金貨)를 쌓아 올린 탑과 같으며 갈비뼈들은 천궁의 들보와 같고 살덩이와 살갗은 회반죽과 같다. 머리는 천궁의 망루와 같고 창문들은 오감(五感)의 감각기관과 같다. 몸통의 상부와 하부는 각각 천궁의 윗마당과 아랫마당과 같다.

오장은 중요도 순서로 설명되어 있는데, 먼저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로 보좌(寶座)에 앉아있는 왕과 같다. 폐는 왕을 보좌하는 대신과 같고 간과 비장은 위 아래 왕후와 왕비이며 신장은 왕의 외무대신이다.

육부는 위를 가마솥이요 소장과 대장은 왕후의 노복들이며 담낭은 양념이 가득 담긴 자루와 같고 방광은 물통과 같으며 항문과 요도는 하수구와 같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두 다리는 궁문(宮門) 위 홍예벽(虹霓壁)에 비유하였다.

이밖에 신체 부위들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뼈는 티베트의학에서 2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머리뼈들은 두개골 후두골 비골(鼻骨) 이빨 그리고 아래턱뼈 총 5종이 있다. 몸통에는 9종의 뼈가 있는데, 척추뼈 융추골 미추(꼬리뼈) 엉덩이뼈 어깨뼈(견갑골) 쇄골(鎖骨) 가슴뼈(胸骨) 갈비뼈 그리고 갈비연골(肋軟骨)이 그것이다. 팔에는 위팔뼈(上腕骨) [노뼈(撓骨)와 자뼈(尺骨)로 된] 아래팔뼈(前腕骨) 그리고 [(손목뼈(手骨) 손허리뼈(中手骨) 및 손가락뼈(指骨)로 된] 손뼈 그렇게 세 종류의 뼈가 있다. 다리에는 다섯 부류의 뼈가 있는데, 넙다리뼈(大腿骨) [정강뼈(脛骨)와 종아리뼈(腓骨)로 된] 아래다리뼈 무릎뼈(膝蓋骨) 발꿈치뼈(踵骨) 그리고 [발목뼈(足根骨) 중족골(中足骨) 및 발가락뼈(趾骨)로 된] 발뼈 등이다. 마지막으로 손톱과 발톱은 같은 종류의 것들이다.

티베트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뼈는 모두 360개로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는 척추뼈는 28개 갈비뼈 24개 그리고 이빨 32개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뼈들은 모두 12개의 큰 관절과 210개의 작은 관절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대(靭帶) 16개 머리카락 21,000개 그리고 땀구멍 1,100만개 등 매우 구체적으로 인체의 국소해부학적 구성을 세세히 적시하고 있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통증·근육통 완화
"관절 · 허리통증 · 어깨결림 각종통증"
적외선조사기(통증 완화) 탄생
1 먹고 2 바르고 3 찜질하고
123 시스템으로 통증에서 해방

적외선조사기 통증, 근육통완화
1·2·3시스템으로 해결하세요
먹고 1 자생환 신비생기가활력
바르고 2 써바크림
찜질하고 3 적외선조사기
공동개발 (주)일신코리아 (주)고려생약
대리점모집 문의전화 080-521-6666

대체의학과
수강생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수시모집 (지역 교육원에서 접수)
2. 교육과목
• 법화경(교양필수)
• 황제내경(교양필수)
• 운동요법 · 추나요법
• 자연요법 · 식이요법
• 교정요법 · 침구요법

학장 최광영
3. 교육기간 : 4년 (8학기) 수료
4. 교육일시
• 대 구 : 화요일 오후 2시 - 4시
• 부 산 :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특강 : 매월 첫째일요일 오후 1시30분-4시 (대구교육원)
5. 교육장소
• 대 구 :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3층
• 부 산 : 부산역 옆 삼진빌딩2층
6. 기타특전
• 수료증서 수여
• 중국 중의대 자격증 취득(검정후)
• 대체의학요법사 자격증 취득(검정후)
• 평생대학원 진학자격부여
7. 문의전화 : 053)952-8711. 017-501-87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276-25번지
교육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韓國平生大學(院)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MAHAMALL www.mahamall.co.kr 한가위선물을 마하몰에서 미리 준비하세요~

마하몰 추석용품 지상기획전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전화 02-732-1520 2004-8218~9

M 수행과 함께하는 추석



▌범어시 설선대법회문 테입세트
30,000원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문 없는 문을 열다'
· 구성 : 카세트 테이프 10개



▌심경(心經)
2CD 1세트 20,000원, 2MC 1세트 10,000원
풀세트(CD6,MC6) : 75,000원
[제품구성]
[C D]
1SET(2CD) 1.배우기 쉬운 힙합 불경. 2.의미 있는 노래
2SET(2CD) 3.김하리 시인의 불경명상. 4.옴나니 반메흠,관세음보살
3SET(2CD) 5.불자가요메들리1. 6.불자가요메들리 2
[Tape]
1MC(2테잎) 1.배우기 쉬운 힙합 불경. 2.의미 있는 노래
2MC(2테잎) 3.김하리 시인의 불경명상. 4.옴나니 반메흠,관세음보살
3MC(2테잎) 5.불자가요메들리1. 6.불자가요메들리 2

M 스님께 드리는 추천상품



▌희담석 좌복
~~396,000원~~ → 298,000원
· 색상 : 회색,살구색
· 크기 : 세로 720 mm×가로 390 mm
※ 베개겸용 고급휴대용케이스 증정
· 특징 : "희담석 좌복"은 살아 숨쉬는 희담석의 뛰어난 생체 활성 메커니즘이 일상생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신체대사가 원활치 못한 직장인, 수험생, 스님, 운전자에게 매우 유익한 방석이 될 것입니다.



▌기능성 명상방석
38,000원
"스님들의 참선원리 그대로...."
장시간 결가부좌 상태로 참선을 하시는 스님들이나 신도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크기 : 36×32(cm) · 무게 : 1kg
· 소재 : 항균 폴리 우레탄
· 허리 곡선 "S"커브 유지을 위한 경사 설계
· 미골 보호를 위한 컷어웨이 섹션
· 압력 분산을 위한 인체공학적 경사면
· 항균제 및 피톤치드향 첨가
· 특수 연질 우레탄 소재 사용
· 편안한 착석감



▌연화 무선찻주전자K1
67,000원
독일 직수입품!
한정수량 특별보급
· 300pes한정
· 220V/2000W
· 용량 : 1.7ℓ
· 고급스테인레스 소재
· 초고속가열 1컵(30초)
· 360(도) 회전
· 찻잎 거름 필터
· 코드보관장치
· 순간 재가열 기능



▌연화 삭발기
58,000원
원터치 터보 장착 방식으로
날의 움직임이 빠르다
· 충전+전기식
· 원터치 터보
· 특수 MiM 합금날 및 초강력 티타늄 코팅
· 밋살캡 · 커트길이 조절
· ABS 소재의 초경량 제품
·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 충전시간 : 5시간
· 소비전력 : 5.5W
· 전원 : 110/220V

M 효도하는 추석



▌희담석 찜질팩(어깨, 허리팩)세트
~~110,000원~~ → 88,000원
희담석 찜질팩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 능력입니다.
희담석 찜질팩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 능력으로써, 희담원석 중에서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였다.
렌지에 데우거나 끓는 물에 끓여 수건이나 헝겊에 싸서 사용하는 이 제품은 아픈 부위에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주어 회복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심장안정 숯 목걸이
30,000원
최고의 효도선물 심장을 돕는 숯목걸이...
숯의 보석 비장탄이 원적외선의 방사와 음이온의 발생 그리고 탄소덩어리인 숯에서 유도되는 기(氣)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 사이즈 : 가로 18mm×세로 65mm
· 모양 : 卍, ♡, ○, 법륜



▌요로모로 베개
일반형 26,000원 / 고급형 35,000원
베개와 등받이가 하나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YOROMORO PILLOW (요로모로 베개)
· 색 상 : 청녹색,진분홍
· 재 질 : 폴리우레탄 폼(PUR FOAM)
· 사이즈 : 35cm × 35cm× 10cm
[특징]
· 어느곳에서나 휴대가능 · 두개의 베개가 하나로
· 부드러운 탄력성 · 정밀하게 규정된 견고함
· 코골이 예방 · 위생적인 제품
· 고급형 – 40°C 이상의 전열을 가하여야만 원적외선이 방사되던 기존의 제품과는 달리 체온만으로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기(氣)암석(Life Soul)이 28개 부착되어 누울때 마다 건강이 증진 됩니다.



▌숯베개 (음이온800)
40,000원
· 베개는 단순한 잠자는 도구만은 아니다. 기능이 있고 내장재의 효능이 있어야 자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다
· 숯베개의 특징과 효능
① 후두부, 목, 어깨의 혈액순환 원활촉진.
② 뇌신경 안정으로 숙면할 수 있음.
③ 수면중 공기정화효과
④ 숯베개는 머리냄새가 나지 않는다.(숯의 탈취효과)
⑤ 습기제거.(수면중 수분을 한컵반 배출)
⑥ 신변 이온바란스의 개선.(음이온 발생효과)
⑦ 목과 뒷머리의 인체구조적으로 설계된 베개.(목부분은 높고 뒷머리부분은 낮다)
⑧ 후두부 경혈자극효과.(풍지, 뇌호, 옥침)
※ 숯베개의 약간 딱딱한 느낌을 극복하면 수면건강이 보인다.



▌건강지압봉 (은행나무봉)
16,000원
은행나무 건강봉이 온 몸의 기[氣]를 활성화 시켜 줍니다.
혼자서도 전문인의 손길처럼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몸의 피로는 그때그때 풀어버립시다.
· 특징
1. 자기가 원하는 곳을 스스로 자극 할 수 있다.
2. 강도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자극 할 수 있다.
3. 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도 자극의 효과가 크다.
4. 손잡이가 있어 편한 자세로 자극 할 수 있으며, 氣의 전달이 우수하다.
5. 손으로 氣血을 풀어주듯이 건강봉의 적절한 자극은 온 몸의 氣血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6.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 3종세트(1호봉,2호봉,3호봉)

M 연꽃차 선물세트



▌연인다인 백련차3종세트
102,000원
· 원산지 : 전남 무안
· 구성 : 연화차 50g+백련차 50g+백련근(연근) 200g



▌연마을백련차 부부다기 2호
54,000원
· 백련차 50g+연문양 부부수제다기 (토담 장용덕선생 작품)



▌연마을백련차 1인 2벌다기 2호
32,000원
· 백련차 50g+귀알무늬 1인다기2벌세트



▌연향차
30,000원
· 재료 : 연잎 100%
· 중량 : 40g



▌연인다인 벽련차 1호
1호 13,000원
▌연인다인 벽련차 2호
2호 26,000원
· 백련잎 100% , 25g, 50g



▌연인다인 백련근분말차
26,000원
· 백련근100%, 분말 200g
▌연인다인(連人茶人)-연화차
50,000원
· 백련꽃12%,백련잎88%,혼합침출차 50g



▌연마을백련차 3인다기특선
102,000원
· 연화차 50g+연문양 3인 수제다기
▌연마을백련차 3인다기 2호
83,000원
· 백련차 50g+연문양 3인수제다기



▌백련차-우전
50g:50,000원 100g:100,000원
▌백련차-세작
50g:30,000원 100g:60,000원
▌백련차-중작
50g:20,000원 100g:40,000원

M 가정용 불기



▌가정용 촛대세트 (6015) (6039)
30,000원
· 재질 : 놋쇠
· 규격 : 7cm(넓이) X 8.4cm(높이) X 6.5cm(밑넓이)
8cm(넓이) X 7cm(높이) X 7cm(밑넓이)



▌가정용 촛대세트 (6031) (6004) (6003)
(6031)(6004) 45,000원 / (6003) 75,000원
· 규격 : 9.2cm(넓이) X 12cm(높이) X 6.5cm(밑넓이)
8.3cm(넓이) X 5.5cm(높이) X 6.4cm(밑넓이)
10cm(넓이) X 6cm(높이) X 7.9cm(밑넓이)



▌반야심경 개인향로 (1409K)
30,000원 · 재질:청동
· 사이즈:4.5cm(높이) x 6cm(지름)
▌개인용 향로(백자, 청자)
12,000원
· 크기 : 지름 90 mm x 높이 55 mm



▌놋쇠불기(小)
30,000원
· 사이즈 : 폭 90mm, 높이 115mm
▌놋쇠다기(小)
36,000원
· 사이즈 : 폭 90mm, 높이 110mm



▌황옥 촛대향로 세트
(小) : 570,000원
· 촛대 : 13cm(넓이) × 31.5Cm(높이)
· 향로 : 20cm(지름) × 15Cm(높이)
(大) : 750,000원
· 촛대 : 13.5cm(넓이) × 46Cm(높이)
· 향로 : 25cm(지름) × 19.5Cm(높이)

M 마하몰 홈피개편기념 특판상품



▌반야심경 최고급손목시계
~~77,000원~~ → 55,000원
불자님을 위해 스위스 론다 최고급 무브먼트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 재 질 : STAINLESS STEEL
· 무브먼트 : Swiss Ronda Move
· 원 산 지 : 한국
· 종 류 : 라운드브라운, 라운드블랙, 아크브라운, 아크블랙
· 기 능 : 고급다이얼, 3기압방수



▌음이온 석재다보탑
~~398,000원~~ → 298,000원
'음이온' 이 발산하며 '야광빛' 으로 신비로운 석재 불국사 다보탑 모형(1:30) 국내유일의 "소형석재모형다보탑" 이며 다보탑 실제크기의 1/45로축소 제작
· 재질 : 자연 대리석 (90%). 야명석 (8%). 음이온분말 (2%).
· 제품 규격 : 22 X 22 X 31cm
· 제품 무게 : 3 kg



▌운상관음도
~~150,000원~~ → 100,000원
고통받는 이 중생이 당신을 따르오니 대자대비(大慈大悲)를 내리고, 해탈하게 하소서..
불화보급을 위해 창선하는 마음으로 조성하였습니다.
· 그림크기 : 가로 40cm x 세로 100cm
· 족자크기 : 가로 52cm x 세로 140cm
· 형 태 : 최고급 족자 완제품
· 작 가 : 조중일



▌운월달마족자
~~100,000원~~ → 50,000원
달마의 기운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마다 복과 지혜를 구족하게 하여지이다..
· 그림크기 : 가로22cm x 세로43cm
· 족자크기 : 가로28cm x 세로92cm
· 재질 : 운용지(한지중에 제일 질기고 튼튼한 재료) 최고급 족자
· 작가 : 청곡 이한동 화백

M 법 요 집



법요집 · 기초교리집 쾌도 특별한정 보급합니다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한정수량판매)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열전도서 (용성큰스님, 운허큰스님) 2권을 드립니다.
(사은품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립니다.)

● 법요집
·삼귀의 ·정근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입정 ·산회가
·청법가 ·기타찬불가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단청문양알람시계' 증정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